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불기 2545년(서기 2001년) 1월 10일 수요일(주간) 제302호



금주법구

보시하는 자는 공덕을 얻고,
자심(慈心)을 지니는 자는 적이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악이 소멸하고,
탐욕을 떠나는 자는 고뇌가 없다.
-대반열반경-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인도에 심는 '자비의 인술'

부처님 재세 당시 마가다국의 재상이자 빔비사라왕의 전의(典醫)였던 지바카(耆婆, Jivaka)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약을 나눠주고, 남쪽 나라의 포악한 임금의 병을 고쳐 주는 등 탁월한 의술을 베풀어 큰 부자가 되었다. 그는 부처님께 귀의하여 세존의 풍병, 아나율의 귀머거리, 아난의 창병 등을 치료하여 의왕(醫王)으로 존경받았으며, 승가에 망고과수원(기바동자정사)을 보시해 많은 불제자들이 이곳에서 수행하게 했다.

이 같은 의왕 지바카의 뜻을 되살리는 병원이 3천여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인도의 천민부락 주민들과 한국 불자들에의해 건립돼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국제 기아·질병·문맹 퇴치 민간구호단체인 한국JTS(이사장 법륜·Join Together Society)가 10일 인도 비하르주 둥게스와리 지역에서 문을 여는 지바카병원은 의료시설이 전무한 둥게스와리 인근 16개 천민 마을의 1만여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거의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2년간 1억5,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립한 이 병원은 병원 부지와 노동력을 지역주민들로부터 기증받아, 민간 차원의 국제구호활동의 모범사례가 되기에 충분하다.

지바카병원이 세워진 둥게스와리 지역은 10여년전부터 JTS가 구호활동 및 교육사업, 마을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곳이다.

JTS는 7년전 이 곳에 학생 600명, 교사 12명 규모의 수자타아카데미를 설립하고 16개 마을마다 부설 유치원을 만들어 교육사업을 시작했으며, 임시 메디칼캠프를 설치해 긴급 의료지원활동을 벌여왔다.

오염된 식수 등 불결한 환경에서 야기된 콜레라와 결핵 등 후진국형 전염병으로 마을마다 때죽음을 당하곤 했던 천민부락 주민들에게 건강검진과 각종 의약품 지원 등 의료지원사업을 시작함으로써 많은 주민들의 인명을 구해 왔다.



"1만원이면 어린이 50명에게 콜레라를 비롯한 전염병 예방이 가능하기에, 불자들의 후원과 의료자원봉사가 절실하다"는 게 이곳 자원봉사자들의 호소다.

불교의 발생지인 인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비행으로 회향한 지바카병원 개원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이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벗어나 세계일화(世界一花)의 정신으로 세계 곳곳의 어려운 곳에 자비의 손길을 펼치는 자원봉사 대국이 되길 기원해 본다.

김 재 경 〈취재1부 기자〉

자원봉사 교육·관리 교계 두손 놓고 있다

복지시설 오리엔테이션 수준 교육
불자련 회원 3400명 수작업 관리

불교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이 시급하다. 자원봉사자 관리와 교육, 자원봉사단체들간의 상호연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등 어느 하나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없다.

올해 유엔이 정한 '국제 자원봉사자의 해'를 맞아 본지가 불교 자원봉사 현황 및 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자원봉사자 및 수요는 계속해 늘고 있는 반면 이를 조직적으로 관리·교육하고 활용하는 구조는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원봉사자들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곳은 조계종 복지재단과 불교자원봉사연합회 두 곳이다. 공식·비공식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불자가 최소 10만명 이상임을 감안할 때 터무니없이 적다. 각 복지시설이나 단체들이 교육에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리엔테이션 수준 정도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관리의 문제 더욱 심각하다. 3400여 회원이 등록돼 있는 교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자원봉사단체인 불교자원봉사연합회의 경우 자원봉사자 관리를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다. 한 해 평균 2000여명씩 지금까지 2300여명의 자원봉사자를 배출한 조계종 복지재단의 경우도 이들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진각종 복지재단은 200여명이었던 진각사회봉사단 인원이 지난해에는 150여명으로 오히려 줄었고, 그동안 해오던 기초교육마저 중단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단체들간에 연계는 꿈도 꾸지 못한다. 필요한 인력이 있어도 찾기 힘들고, 공급할 인력이 있어도 어디로 보내야 할 지 고민해야 한다. 자원봉사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네트워크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모 복지관에 컴퓨터 관련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거절당했다는 한 보살은 "다른 곳을 소개해 달라고 했지만 그런 곳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대답만 들었다"며 "불교계에 자원봉사를 할 만한 곳이 그렇게 없느냐"고 본사에 전화를 걸어왔다.

☞2면으로 계속



부처님 되신날 '축하' 29일 부처님 성도재일을 맞아 서울 봉원사의 스님과 신도 4000여명이 연등행진을 하고 있다. 이날 전국 사찰에서는 성도절 법회를 봉행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생사의 고행에서 벗어나 중생을 구제하고 불국토를 건설하겠다고 서원했다.

천태종 12대 총무원장
운덕 스님 유임

천태종 제12대 총무원장에 현 총무원장인 운덕스님이 유임됐다.

운덕 총무원장을 비롯 덕산 종회의장, 정산 감사원장 등 3원장은 구랍 28일 개최된 62차 임시종회 인준을 거쳐 29일 구인사에서 도용 종정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임기는 4년이다.

운덕 총무원장은 이번 유임에 따라 81년 1월 7대 총무원장에 임명된 이래 5대째 계속해서 총무원장을 역임하게 됐다.

(관련 기사3면)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국방장관 "선도책자 깊은 유감"

종편위에 공문 … "재발간 조계종 의견 반영"

국방부 군종실이 펴낸 〈선도상담백과〉의 종교편향과 관련, 조성태 국방장관은 구랍 30일 종교편향대책위원장 양산스님(조계종 사회부장) 앞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장관은 또 "이미 배포된 책자는 파기하되, 수정보완하여 재발간 배포할 책자를 선도업무 지침서로 활용토록 조치하겠다"며 "책자를 재발간하기 위해 종교간 동수로 편집위원을 구성하고, 조계종의 견해를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군종실은 3월 내에 책자를 재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다. 조장관은 이어 "이를 계기로 유사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이번 사건 관련자는 군종윤리위원회와 군총발전위의 심의를 거쳐 조치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종교편향대책위는 "종교편향의 내용을 담고 있는 문제의 책자를 즉각 폐기하지 않고 재발간할 때까지 사용하겠다는 것은 불교를 우습게 보는 처사"라며 "이후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두식 기자

현대불교 올 10대사업 불국토 앞당깁니다

새해 현대불교신문이 다양한 캠페인과 사업으로 독자여러분께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깨침의 세상, 함께 하는 세상, 정보가 살아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현대불교신문의 캠페인과 기획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깨침의 세상을 위하여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동국역경원과 손잡고 한해 동안 십시할 이 캠페인은 동국역경원이 36년에 걸쳐 완성한 〈한글대장경(전320권)〉을 보다 많은 불자들이 읽도록 하는 동시에 사찰 등에 법보로 봉안할 것을 권유하는 캠페인입니다. 조계종과 불교종단협의회가 후원하는 이 캠페인을 통해 대장경, 장경각(한글대장경 전용서가) 보급 사업도 펼칩니다.

◇도난문화재 찾기 캠페인 전개
경찰청의 후원으로 전개하게 될 도난문화재 찾기 캠페인은 기획기사와 일간 붓다뉴스, 부다피아 정보센터, 마하몰에 도난문화재의 목록, 사진 등을 공개해 도난문화재 회수에 일조하고 문화재 보호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시킬 것입니다.

◇제7회 신행수기 공모
창간 이후 매년 전개 해 오고 있는 신행수기 공모는 해를 거듭할수록 감동적이고 신선한 작품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금년 일곱 번째 공모에서는 시상 분야와 참여 계층을 보다 다양화하여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발굴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을 위하여

◇화상 무료법률상담
생활 현장에서 겪게 되는 법률적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 드립니다. 법률상담의 권위자 이종오 변호사와 인터넷을 통해 전국어디에서나 1대 1로 법률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사는 2월부터 전국 한마음선원의 지원에 관련 장비를 갖추고 독자들의 법률상담 신청을 받게 됩니다.

◇테마기행 3월부터 다시 실시
2001년 지역문화의 해를 맞아 전국의 유명 지역축제와 인근 사찰 및 역사유적, 박물관 등을 연계하는 테마 기행을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회씩 전개합니다.

◇제4회 부다피아 어린이 캠프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4회 부다피아 어린이 캠프(7월말 실시)는 어린 불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부처님의 품속입니다.

정보가 살아 있는 세상을 위하여

◇우수 불교사이트 시상
불교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사이트들에 대한 특성의 이해와 효율적인 활용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우수 사이트를 가리는 이벤트를 마련합니다. 이 심사에서 선정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우수인증마크를 부여하게 됩니다.

◇무선인터넷 등 정보서비스 사업
이미 지난해 무선인터넷 5개 이동통신사와 제휴해 불교정보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는 본사는 올해 보다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통해 불교무선인터넷 마당을 넓혀 가겠습니다. 아울러 PDA와 IMT-2000의 불교정보 서비스를 위한 각종 프로젝트들도 전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나눔의 손잡기 운동
사이버 상에서 전개되는 대안화폐 운동과 불교계 자원봉사 기관을 연결하는 품앗이 봉사 운동을 전개합니다.

◇'천년의 미소' CD 제작
경주에서 돈황에 이르기까지 불적지에서 만나는 부처님들은 어떤 미소를 짓고 계실까. 시대를 따라 지역을 따라 다르게 변해 온 부처님들의 미소를 한 장의 CD에 담겠습니다.

불교사학의 모든것! 여시아문
국내최대 인터넷불교서점
여시아문닷컴
www.yosiamun.com
Tel : 02) 737-
Fax : 02) 737-

一心佛院
각종 불사 / 불교 용품 일체
大佛, 小佛, 불단, 탱화, 단청
02-725-2030 / 725-2040

새천년의 발원
- 온 국토를 장엄 하겠습니다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가격에를 자랑합니다.
- 연등의 종류별로 영가등 이 있습니다.
- 각 사찰이름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주문 부탁드립니다.(만월등)
- 연등용 전선 케이블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팔모주름등


(빨강) (핑크) (노랑) (연두) 보관형태 (팔모주름등)

공단등(비단등 실크등)

(빨강) (노랑) (오색) (차걸이등)

팔모조립등


(빨강) (노랑) (주련등 빨강) (주련등 노랑)

만월등


(육각등) (핑크) (노랑) (오색) (만월장등)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찬덕 연등제작사
전화 : 031)792-6288, 794-4055 / FAX 031)794-6288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사 설

문화재조사 미룰 수 없다

문화재청이 2001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계획한 '불교문화재 일제 조사' 사업 계획이 백지화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에 놓였다. 5억원으로 책정된 예산이 국회의 새해 예산 처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됨으로써 사업 추진의 근거마저 잃게 된 것이다.

현재 불교계가 이 일을 두고 분노 이상의 감정을 숨기지 않는 것은 예산 즉 돈 배정 문제 때문이 아니다. '나라의 일'로 추진되어야 마땅할 사업이 궤도를 이탈했다는 데 있다.

불교의 많은 성보들이 '보물'이나 '국보'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는 것도, 그것이 불교계의 것만이 아니라는 국민적 공감의 토대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불교 문화재 일제 조사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렇다면 이번 국회의 처리 결과는 무성의나 무관심을 넘어 무지의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

조계종에서는 자체적 노력만으로 '불교문화재 도난 백서'를 발간하는 등 문화재 보호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것은 결코 특정 종교 집단의 자산 관리 행위가 아니었다. 불교 문화재들이 조계종의 것이 아님은 물론 불교도의 것만도 아니질 않는가. 다만 불교 문화재이자 민족 문화의 고갱이인 만큼 정부의 몫까지 떠맡기를 기꺼이 했던 것이다. 스님들이 기거하는 요사채라 할지라도 그것이 지정문화재인 한은 비가 새도 기와 한 장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찰에서는 상상을 초월한 불편도 감수한다. 그것이 단순한 집이 아님을, 절집의 소유물만이 아님을 철저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의 예산 백지화는 문화재 보호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도 정면 배치된다. 좋은 예로, 지난 해 8월 26일에 입법예고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정면으로 부딪친다. 6만 여건에 이르는 사찰의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조사가 전제되지 않는 한, 도난의 표적이 되고 있는 비지정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이 법률은 있으나마나 한 법이 될 것이 뻔하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보호를 한단 말인가.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예비비로라도 불교문화재 조사사업 예산은 확보되어야 한다.

'연합감찰제' 필요하다

최근 경실련의 공기업체 후원 요구가 언론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정치와 경제 등 우리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집단에 대한 감시와 비판 활동이다. 언론이 경실련을 나무라는 것은, 비판과 감시의 대상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경우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비판을 받는 경실련의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겠지만, 그만큼 남을 감시하고 비판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행실이 떳떳해야 함은 물론이다.

종교인과 종교단체도 정부와 기업이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담당하는 큰 역할을 하는 곳이다. 종교는 예로부터 정신과 사상의 발원지이며, 우리 사회 최후의 양심의 보루라는 칭송을 받아왔으며, 지금도 마찬가지다. 종교는 절대적인 신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영향력만큼이나 그 책임이 시민단체에 비할바 아니다. 정부와 기업의 실패는 법적인 심판으로서 평가를 받겠지만, 종교인의 악영향은 양심의 심판을 받는다. 종교인의 잘못된 가르침과 행위는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인 폐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행자와 성직자들의 잇따른 비행을 보면서 자칫하다가는 종교의 존엄 자체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 종단협에서 지난 해 종단연합감찰제 시행을 검토한 것도 승가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이해한다.

물론 몇 종단 이외에는 호법업무를 담당할 부서조차 없는 현실에서 연합감찰제는 실현성이 없다는 우려에 이의를 달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각 종단의 호법업무를 활성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고, 징계자의 타종단 등록을 막는다든가 하는 낮은 단계의 연합업무부터 하다보면 차츰 정착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단속하고 징계를 내리고 하는 것은 아주 하급의 조치이다. 연합감찰제도에 대해서는 이러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건강한 집단일수록 제재 일변도의 조치에 대한 비판이 많다. 그러나 사바세계에서 상급의 조치만 있을 수는 없다. 연합감찰제를 시행하면 예방의 효과도 클 것이다. 종단 관계자와 종단협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길 기대한다.

북동포돕기 온정 밀물

종단협-평불협 겨울내의 · 밀가루 전달

불교교육硏 어린이 의료장비 · 약품 지원

11일 진각종의 월동용품 1컨테이너가 북한에 전달되는 것을 필두로, 교계 종단 및 단체가 새해 시작과 함께 겨울생필품 및 어린이 치료용 약품 북한보내기 운동에 적극 나선다. 이 같은 교계의 지속적인 북한 지원활동은 최근 소강상태에 빠져 있는 각계의 대북지원사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종단협의회와 진각복지재단, 평화통일불교협회 등이 이달 중 각각 3,000만원 상당의 물품과 60톤의 밀가루를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에 전달한다. 또 좋은벗들과 불교교육연구원도 사랑의 보따리와 어린이치료 장비 및 의약품을 탈북난민과 북한어린이들에게 보낸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정대)는 20일(예정) 겨울내의와 운동화 1컨테이너를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에 전달할 계획이다. 종단협은 이달 초부터 종단협 소속 조계, 태고, 천태, 진각종 등 4개 종단을 비롯 26개 종단이 십시일반으로 1월 북한지원 기금 3,000만원을 모았다.

진각종(통리원장 성초) 사회복지재단과 국제불교연구소도 11일 종도들의 성금으로 마련한 겨울점퍼와 내의 등 2,500점을 북한에 보낸다.

조국평화통일불교협의회(대표 법태)는 13일 겨울내의 2천점과 모포 1천장, 양말 1만켤레를 북한에 보낸다. 또 20일에는 평불협이 운영하는 사리원국수공장에 밀가루 60톤도 전달할 예정이다.

(사) 좋은 벗들(이사장 법륜) 역시 이번 달부터 중국현지에서 탈북난민들에게 '사랑의 보따리'를 전달한다. '사랑의 보따리'에는 겨울옷과 간장, 식용유, 옥수수, 쌀 등 생필품 및 식량이 들어있다.

불교교육연구원(원장 황학현)도 지난해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 무용단의 공연수익으로 마련한 어린이 치료용 의료장비 및 기초 의약품을 3~4월경 북한에 보낸다는 계획이다.

종단협의회 사무총장 법현스님은 "21세기 새해를 여는 자비의 실천이 교계에서 확산되고 있다"며 "교계의 대북 지원사업은 남북이 민족공동운명체임을 인식하고, 민족의 통일이 하루빨리 이룩되도록 하는데 일조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조계종 총무원은 3일 시무식을 갖고 총무원 청사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뢰받는 종무행정"

각 종단 신년하례법회

조계, 태고, 천태, 진각종 등 각 종단들이 시무식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정대)은 3일 종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층 불교회관에서 시무식을 개최했다.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2월부터 건축설계에 들어가 1년반의 공기로 본격적인 청사건립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태고종(총무원장 종연)은 5일 중앙불교회관에서 100여명의 종단간부및 서울 경기지역 사암주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법회를 개최했다. 총무원장 종연스님은 "대승교화종단의 이념정립과 종무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총무원을 만들겠다"며 "종무네트워크 구축과 민족통일불사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천태종과 진각종도 각각 2일과 4일 구인사와 통리원에서 시무식을 갖고 종무계획을 발표하고 종단 발전을 기원했다. 김원우기자

범어·통도사 종회의원 보선 촉구

조계종 중앙선관위

해인사 내달 13일 실시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지명)는 4일 70차 회의를 열고 종회의원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못한 14교구(범어사와 15교구(통도사에 조속히 보궐선거를 실시하라는 공문을 10일 간격으로 세 차례 발송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교구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호법부에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해인사는 다음 달 13일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중앙선관위는 또 다음 달 14일 직능직종회의원 선출위원회(위원장 정대)를 열어 현묵스님의 종회의원 사퇴로 공석이 된 선원대표 종회의원을 선출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다음 달 5~7일 입후보등록을 받아 9일 입후보자 자격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확정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중앙선관위 연수를 3월 28~29일 법주사에서 열기로 했다. 중앙선관위 구성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연수는 종단 내 선거관련 전문가와 정부 중앙선관위 전문강사의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성운기자

"사찰·문화재 보러" 20%

"등산·체력 키우러" 40%

18개 국립공원 이용객 조사

국립공원 탐방객들은 5명중 1명꼴로 문화재와 사찰을 관람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탐방객들은 여전히 사찰 이정표 등 공원 안내시설 등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달 10일부터 13일까지 전국의 18개 국립공원 탐방객 3천1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23.6%인 751명이 불편사항으로 안내시설 부족을 지적했다고 구랍 31일 밝혔다. 김재경 기자

☞1면 '자원봉사'서 이어짐

프로그램의 단조로움도 문제다. 간병, 무료급식, 발관리 등 몇몇 분야의 인력만을 양성하다보니 봉사활동 분야의 폭도 좁을 수밖에 없고, 수요자를 기다리는 공급자 중심의 소극적 활동이 반복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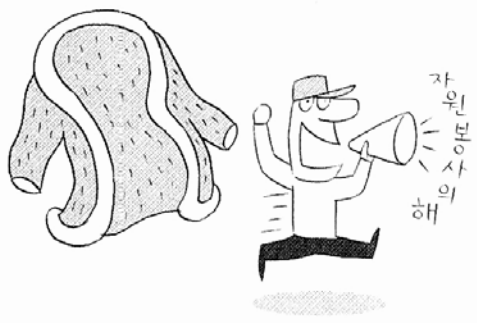
다른 종교와의 비교에서도 불교 자원봉사의 열악한 현주소는 그대로 드러난다. 자원봉사 실천연구교육 민간단체인 '볼런티어 21'이 99년 우리나라 성인 15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원봉사자의 81.4%가 종교인이며, 이중 개신교가 36.7%로 가장 많았고, 불교 22.3%, 가톨릭 21.9% 순이었다.

수적으로만 본다면 개신교인의 활동이 훨씬 활발한 셈이다. 가톨릭의 경우는 불교와 수적으로는 비슷하나 각 교구별로 철저한 교육을 통해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어 질적인 면에서는 불교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월등하다.

조계종 복지재단 이호걸 과장은 "1사찰 1봉사단 조직, 교육 및 관리 통합시스템 구성, 불자라면 당연히 봉사한다는 신행문화에 대한 인식 전환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재정과 인력부터 해결돼야 하며, 종단과 스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현 대 만 평 박구원



움츠린 마음 활짝 열고

"시주금 주지소유 아니다"

부산지법 판결…사찰 재정공개 청신호

사찰 주지와 신도간의 분쟁으로 인한 시주 수입금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주지가 개인 수입금을 전제로 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8단독 김무신 판사는 3일 부산시 강서구 C사찰 주지 K스님이 자신의 주지 취임을 방해한 신도회장 김모씨 신도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실 시주수입금을 배상할 책임은 없지만, 주지 취임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정신적 고통을 준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시주수입금 손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주수입금이 있을지라도 시주는 주지직에 있는 원고 개인의 수입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원고 개인의 수입금을 전제로 한 배상요구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 이영철 사무처장은 "이번 판결은 사찰재정 투명화 및 교단자정운동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졌다"며, "오는 3월28일 교단자정감시지원센터 준비위 발족을 계기로 사찰청정지수를 개발, 모니터링 활동을 벌여 모범 사찰을 선정하는 등 사찰재정공개운동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창 종 공 고

本 宗은 大願本尊이신 地藏王佛과 諸佛菩薩의 共通된 情神을 이어받아 大佛宗이라 稱한다. 일찍이 地藏王菩薩께서는 地獄衆生들이 단 1人이라도 남을시 결코 成佛하지 않으리라 하셨다. 또한 釋迦世尊께서는 末法衆生의 根氣를 觀察하시어 成道의 이행문을 열어 놓으시니 打力 自力信仰의 地藏菩薩 禪敎念佛로 生存安樂과 死後 極樂往生 하신다 하였다. 이에 新羅 王子이시며 中國 구화산의 地藏菩薩로 나투신 김 교각 大宗師를 宗祖로 모시고 용각 만덕 大禪師를 建宗祖로 하여 地藏信仰의 大本山으로 자리매김한다. 아울러 地藏經을 所衣經典으로 하고 기타의 諸 經典을 두루 硏究하는 것을 제한치 않으며 末法衆生들에게 彌勒 부처님이 오시기 전가지 一切衆生을 諸道하시는 地藏菩薩님의 큰 뜻을 펴고자 함이다. 本 宗은 地藏王佛의 菩薩情神과 諸佛菩薩의 共通된 情神을 指向하고 그에 따른 眞言, 다라니, 經, 등을 崇拜하며 佛法僧 三寶를 護持하고 念誦 念佛 呪力參禪 修行을 통해 無相大道를 成就하는 것을 終止로 하여 창종을 宣布합니다.

대 한 불 교 대 불 종

종 정	석만덕	대원부장	석법성
총무원장	석등명	총무부장	석도범
종회의장	석등오	사회부장	석종성
사정원장	석등각	기획부장	석종월
교육원장	석월화	재무부장	석인석
		호법부장	석성원

창 종 발 기 사 찰

의성	등운사	석월화	영천	만월사	석등각
포항	자명선원	석등명	안동	정법사	석종범
영천	등명사	석일월	대구	증심사	석종월
속초	관음사	석용각			

外 10개 사찰

불기 2545년 1월 1일

대한불교 대불종 총무원

경북 영천시 화북면 오동리 603-2번지

전화 (054)-337-4572 / 338-7702 / 팩스 (054)833-1082

지장보살 염송회원 및 대불종 입종 공고

본 대한불교대불종은 지장왕불의 보살정신을 계승하여 불교의 대중화 및 보살사상의 전법을 위하여 지장보살칠백만독염송회를 결성 현재 여법하게 법회를 봉행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지장보살칠백만독염송회원을 널리 모집하오니 이번 기회에 회원이 되셔서 정법선양에 동참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본 종단의 종지와 종풍을 따르는 스님들의 입종을 받고 있사오니 뜻있는 분들의 동참으로 동공발원동공성불을 기약해 보십니다.

목어

미당의 얼굴

내 방에는 미당 서정주 선생의 친필 액자 하나가 걸려있다.

'한송이 국화꽃을 / 피우기 위해 /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의 유명한 시 '국화 옆에서'의 한 구절이 독특한 필치로 쓰여 있다. 내가 그에게서 이 글을 받은 지 25년 정도가 되었으나 그냥 간직하고 있다가 작년에야 겨우 표구사에 맡겼었다. 어느 날 느닷없이, 그도 나이가 꽤 많이 들어 이승을 떠날 채비를 하겠거니 생각하니 불현듯 표구할 생각이 일었던 것이다.

사람은 물론 돌과 호수, 연꽃까지도 그는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겼고 또한 그들이 자신과 더불어 하나임을 노래했다. 이같이 '만남'과 '하나'를 주제로 한 불교적 시상을 간직했던 시인 미당은 그래선지 시 못지 않게 인품이 매우 아름답고 후덕했다.

몇 달 전 선생의 사당동 댁을 찾았을 때 선생은 몸져 누워있는 아내를 보살피고 있었다. 꺼칠한 모습으로 넓은 집을 홀로 지키던 그는 냉장고에서 손수 마실 것을 꺼내와 권했다. 그 걸걸한 웃음은 예나 다름없이 정겨웠다.

그는 젊은 시절, 영호대종사의 문하에서 불교와 문학을 수학하며 스님에게서 크게 영향을 받은 터였는데, 당시 내로라 하는 문인이나 경사치고 큰스님 문하를 오가지 않는 사람이 드물 정도였다고 한다.

내가 선생과 자주 만나던 때는 70년대 말. 영호대종사의 문집을 준비하는데 입적한 운기 대강백과 선생, 그리고 필자가 한동안 머리를 맞대고 번역과 문맥을 다듬는 소임을 맡았다. 그때의 분위기는 마치 부처님 경전을 결집하는 그것과도 같이 경건하면서도 신심이 끓어올랐다.

얼마 전 그분이 86세로 이승의 몸을 벗었다. 그리고 선운사 스님들의 독경속에 고향 고창의 아담한 동산에 묻혔다. 한켠에서는 한때 행적이나 종교적 입장차이로 선생을 폄하하려는 의도를 나타낸다. 그러나 투사연 하는 그 누구도 오랜 수행을 거친 듯한 선생의 그 아름답고 후덕한 얼굴을 닮은 사람을 나는 그다지 쉽게 만나지 못했다. 그의 얼굴이 참 그립다.

도 수(정업도량 회주 · 본지논설위원)

잇단 방북 · 동시법회 추진

올 상반기 남북불교교류 '전망 밝다'

올해 상반기 남북불교교류의 전망은 '밝다'는 게 남북불교교류를 추진해온 종단과 단체의 전망이다. 특히 지난 해 12월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조불련) 대표단과 회동에 참여한 스님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측의 잘못을 지적하는 듯한 태도가 없어졌다"며 "분위기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음을 느꼈다"고 평가했다. 한마디로 조불련의 부드러워졌으며, "느낌이 좋았다"는 것이다.

"조불련 태도 부드러워졌다"

조계종과 진각종 평불협 등 주요 종단과 단체에서 1월중 조불련을 수신자로 지정해 월동생필품을 지원하는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우선 1월중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대표단의 방북이 예상된다. 올해 조계종-조불련간 교류를 논의하기 위한 방북이다. 조계종은 지난 12월 조불련과 베이징 회동 때 모종의 교류 방안을 북한에 제시했으며, 이에 대한 조불련의 결심을 얻어내기 위한 방북이다. 조불련이 조계종의 제안을 수용하면 방북하지 않을 수도 있다.

통일토론회 열릴 가능성

종단협의회 대표단의 방북은 3월로 예정돼 있다. 통일토론회를 논의하기 위한 방북이지만, 남쪽의 불교를 대표하는 종단협의회 대표단의 최초의 방북이라는 점에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어 5월 말 또는 6월 초 남북불교도 통일토론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토론회는 지난 해 3월부터 조불련과 의견을 모은 사안으로 지난 해 열기로 했으나, 북측의 연기 요청으로 미뤄졌다. 지난 12월 북경 회동에서 조불련이 장소를 금강산으로 하자고 제안해올 정도로 북측에서도 토론회를 개최하는 데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북경 회동에서는 남북 양측이 비용을 비롯한 매우 세부적인 부분까지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님 오신날과 6 · 15, 8 · 15를 맞아서는 남북불교가 장소를 달리하지만 동시에 공동법회를 봉행한다. 부처님 오신날과 8 · 15는 이미 두세 차례 공동법회를 봉행한 적이 있다. 6 · 15 남북공동선언 채택 1주년 기념 공동법회 봉행은 조불련이 제안한 것이다.

남한 종교대표들의 방북도 다시 추진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동완 목사는 4일 만나 남한 종교대표들이 북한을 방문하면 통일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에 종교대표들의 방북을 성사시키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문화관광부도 종교대표들의 방북 계획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한 종교대표 방북 재추진

신계사 복원을 위한 첫 삽을 뜰 가능성도 있다. 신계사 복원과 관련, 금강산 개발권을 가진 현대아산에서는 이미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나, 50억원 가까운 예산 마련이 여의치 않아 지난 해부터 미뤄오고 있으나, 현대아산과 조계종이 머리를 맞대고 고심하고 있다. "이르면 부처님 오신날 이전에 기공식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조계종과 현대아산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올해 상반기 남북불교교류 일정

1월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방북
3월	종단협 대표단 방북
5월	부처님 오신날 동시법회 남북불교도 통일토론회
6월	6 · 15 공동선언 동시법회
8월	8 · 15 동시법회



◇지난해 12월 중국 베이징에서의 종단협 대표단-조불련 회동 장면. 올해 남북불교교류는 예년보다 더욱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20년동안 주요종단 '자리매김'

천태종 총무원장 5대째 역임 운덕 스님



천태종 제12대 총무원장에 현 원장인 운덕스님이 다시 임명됐다.

운덕 총무원장은 이번 유임에 따라 81년 1월 7대 원장에 임명된 이래 5대째 계속 총무원장직을 역임하게 됐다. 운덕스님은 80년 불교계에 불어닥친 10.27 법난의 한파로 종단의 존폐가 위태롭던 지난 81년 1월 총무원장에 임명된 이래 현재까지 20년간 재임하며 신생종단인 천태종을 한국불교의 주요 종단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평을 얻고 있다.

상월대조사 유지 계승 종단내 폭넓은 신임

운덕스님의 20년 연속 총무원장 재임은 우선 한국불교의 대표 종단인 조계종과 태고종의 역대 총무원장 대부분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하차한 것과 대비돼 매우 이례적인 일로 비춰진다. 조계종은 현 정대 총무원장이 30대(代)지만 그동안 임기를 제대로 채운 스님은 의현스님과 월주스님 단 2명에 불과하고 태고종 역시 4년 임기를 채운 총무원장은 지난해 퇴임한 인곡스님 한 명뿐이다. 이처럼 큰 종단들의 총무원장들이 단명한 것은 종단이 그만큼 불안정하고 '흔들기'가 심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그러나 천태종은 종파불교 성격이 강한 특유의 종단 분위기와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의 유지를 계승한 수제자로서 대조사의 창종정신을 일관되게 선양하고 있는 운덕스님이 종단내에서 폭넓게 신임을 얻고 있어 장기집권이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운덕스님은 외유내강(外柔內剛)형으로 온화하고 원만한 성격이나 한번 하기로 결심하면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강한 추진력을 지녔기에 20년 동안 천태종의 역사에서 큰 획을 긋는 대형 불사들을 원만히 이끌어 온 점도 총무원장직을 계속 수행하게 한 동인(動因)으로 작용했다. 특히 불교교육의 중요성을 인식, 재가불자를 위한 금강불교대학을 설립해 수많은 인재를 길러냈으며, 나아가 4년제 정규대학인 '금강대학'의 건립에도 박차를 가하는 등 종단발전을 위한 가풍확립에 진력한 점도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온화하고 원만한 성격 강력한 추진력도 겸비

또한 국제포교에 관심이 많은 운덕스님은 천태종이 중심이 되어 중국과 일본의 천태종과 교류를 강화해 이른바 '황금의 유대'를 이루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매년 한 중 일 미얀마 등 국제적인 불교학자들이 동참하는 천태학술회의도 빠짐없이 개최해 세계속 천태종의 위상을 높이는데 앞장서고 있다.

종단협 사무총장 흥파스님(관음종 총무원장)은 "천태종이 창종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해 종세를 확장한 것은 중창조 상월스님의 유지를 계승실천하고자 한 운덕스님이 독특한 천태종만의 승가가풍을 확립하는데 역점을 두어 종무행정을 펴왔기 때문일 것"이라며 "국제불교교류나 대사회적 불교활동에 있어서도 매우 적극적"이라고 운덕스님을 평했다.

이경숙 기자(gslee@buddhapia.com)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논 설 고 문 : 고 은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TV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2001년 '문명간 대화의 해'

유엔 '인류보편윤리' 제정 추진
문명권 아우르는 '공동가치' 주목

유엔이 2001년을 '문명간 대화의 해'로 결정했다. 과거 대립의 역사를 반성하고, 문명간 대화를 통해 올해를 공존과 화합의 원년으로 만드는 데 인류 모두 앞장서자는 것이다.

'문명간 대화의 해' 지정을 처음으로 제안한 모하마드 하타미 이란 대통령은 99년 유엔총회에서의 제안 연설을 통해 "교통, 통신의 발달로 국경과 민족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어, 지금까지 고립적으로 발전해온 문명들이 서로 소통하지 않고서는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하버드대 새뮤얼 헌팅턴 석좌교수는 1996년 〈문명의 충돌〉이라는 저서에서 각 문명권의 대립과 갈등이 냉전 이후 국제관계의 주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가까운 미래에 문명간의 대화를 통해 보편적 윤리와 가치를 세우는 것이 이제 인류 모두의 과제임을 강조한 것이다.

헌팅턴 교수의 저서는 특히 기술발전, 경제운용방식, 통치체계, 사회구조 등에 따라 문명권을 나눈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가치체계, 그것도 종교를 결정적인 척도 삼았다는 데 더 큰 반향을 일으켰다. 헌팅턴 교수가 구분한 주요 문명권은 기독교 · 동방정교 · 이슬람 · 유교 · 힌두 · 불교문명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이 '문명간 대화의 해'로 지정한 2001년 한 해 동안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의 활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욱이 '문명간 대화의 해' 기념 사업의 진행을 맡은 유네스코는 첫 사업으로 각 문명권을 아우르는 '보편적 가치'를 제정해, 선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유엔이 현재의 세계인권선언(48년 제정)을 보완하는 새로운 윤리강령을 채택하기 위한 준비작업이기도 하다.

유네스코는 이미 1999년 9월에 '보편적 가치 제정' 관련 보고서와 함께 '21세기 윤리를 위한 공동의 틀'이라는 초안을 만들었다. 여기에서는 21세기 인류가 추구해야 할 보편윤리의 기본 원칙으로 '자연의 자생능력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자연 이용', '권리와 책임의 자유로운 행사에서 인간의 자기 실현',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보완', '정의에 기초한 평화'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유네스코는 오는 4월 리투아니아의 수도인 빌뉴스에서 '문명간의 대화'를 주제로 대규모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도 서구에서 도입된 민주주의와 동아시아 전통의 상호보완을 논의하는 학술회의를 10월 개최할 예정이며 인류 공동의 가치를 논의하는 국제포럼도 계획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佛紀 2545년 (辛巳年)
이천만 불자가 하나되어 희망찬 새해를 만들어 갑시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종
종정 영산 일공
고시위원장 법 신
원로원부위원장 송 산
원로원 위원 선 명
원로원 위원 효 계
승정원장 보 인
종의회 의장 성 관
교육원장 벽 성
포교원장 성 견
중앙비구니회회장 대 월
총무원장 법 륜
총무부원장 선 진
총무부장 보 광
재무부장 대 월
사회부장 체 인
사업부장 체 도
광주종무원장 혜 광
부산종무원장 도 승
인천종무원장 체 혜
경남종무원장 은 광
전남종무원장 정 의
충청종무원장 체
▶ 서울시 구로구 구로 2동 704-39호 전화 : 02) 853-0531 / FAX : 02) 853-0532

일주문



무불선원 신년설법

법장 수덕사 주지는 10일 오후 2시 강남 무불선원 신년법회에서 법문한다. (02)541-0002



'지장경 강좌' 회향

자우 경찰청 경승실장스님은 12월 28일 경찰청 법당에서 〈지장경강좌〉 회향을 겸한 2000년 송년법회를 봉행했다.



태고종 강원종무원장

혜성 춘천 정토사 주지는 지난 12월13일 원주 용덕사에서 열린 임시지방종회에서 태고종 강원 종무원장에 선출됐다.



좋은벗 풍경소리 총재

지현 봉화 청량사 주지는 최근 '좋은 벗 풍경소리'의 총재로 취임했다. 취임식은 2월3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갖는다.



광주사암련 회장 취임

성호 관음암 주지 스님은 2일 광주 무각사에서 '제13대 광주불교사암연합회장'으로 취임했다.



부처님 마을 지도 법사

정도 조계사 기획국장 스님은 4일 1년동안 공석이었던 나우누리 부처님 마을 지도법사 스님으로 위촉됐다.



감사원서 천수경 강설

김호성 동국대 교수는 11일 오후 5시 30분 감사원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천수경 강설 특별법회'에 초청돼 강의한다.



문화부장관 표창받아

조달현 청소년 교회연합회 사무총장은 12월 18일 청소년단체협의회 창립 35주년 을 맞아 문화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석주 태고종 승정 입적

신석주 태고종 승정이 지난 12월27일 대구 대흥사에서 입적했다. 세수 85세, 법랍 73세. 스님은 1915년 달성 生으로, 27년 유가사에서 박정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동화사 강원 사집과, 해인사 강원 대교과를 수료했다.

석주 스님은 태고종 대구·경북교구 지방종회 의장 종무원장, 중앙종회 의원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석주스님의 영결·다비식은 12월29일 대구 대흥사에서 종무원장으로 엄수됐다.

"춤 추다보면 사바번뇌 씻겨요"

신사년을 뛰는 **우 바 이** ①

불교무용 '사천왕' 준비

손 재 현 동국대 교수



타종교인들의 활동폭이 큰 무용계에서 신심 하나로 불교 소재의 포교 무용을 무대에 올리고자 새해 벽두부터 연습에 몰두하고 있는 우바이가 있다.

5월 30일~31일 봉축기념으로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 극장에서 불교무용 '사천왕'을 무대에 올리는 동국대 체육학과 무용담당 손재현 교수(41). 손 교수는 새해부터 이번에 공연될 '사천왕' 연습으로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다.

"98년 무용단을 창단한 이후 절을 지키는 수호신인 사천왕을 소재로 포교 무용을 꼭 한 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흩어진 속세에서의 마음을 모아 부처님의 정법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천왕을 통해 불자들이 재발심할 수 있도록 꾸밀 계획입니다."

손 교수가 불교 무용과 인연을 맺은 것은 대학시절 부터다. 타종교인 이었던 스승이 춤을 통해 제자들에게 선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고 부터다. 그때가지만 해도 선교는 목사님의 설교나 인쇄 매체를 통해서만 이뤄지는 줄 알았는데 춤의 선교 효과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절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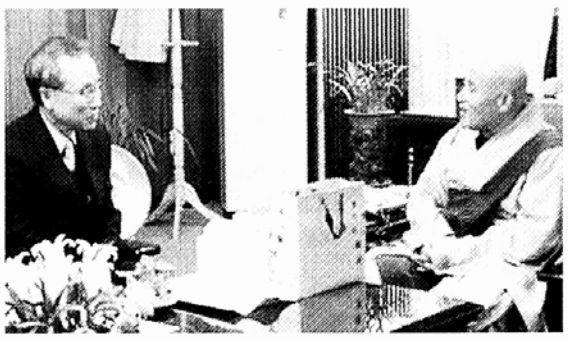
그 후 무대 체질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손 교수는 동국대에서 후학들을 양성하며 자신이 공부한 서양 발레를 불교와 접목시키기 시작했다. 동국대는 무용학과가 정규학과로 개설되지 않았지만 종립학교라는 장점 때문에 포교무용을 펼치기엔 안성마춤이었다.

"발레만 할때는 공연이 끝나고 무대를 내려올 때 왠지 모를 허탈감에 빠진 적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과정들이 춤 한동작에 실려 허공으로 날아 가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부처님의 정법을 몸짓으로 표현하는 포교 무용은 오히려 공연이 끝나면 환희심이 들어 힘든 줄 모릅니다."

'넋의 소리' '월광무' '밀레니엄 페스티벌' 등 국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손 교수는 국내에서만 머물지 않고 99년에 이스라엘에서 열린 '카미엘 국제 댄스 페스티벌'에 참가해 20만명의 세계인들에게도 한국 불교 무용을 선보일 정도로 포교 무용에 대한 열의와 신심이 뛰어나다.

"앞으로 불교 공부를 계속해 '팔만대장경' '원효대사' 등을 소재로한 불교춤을 선보이려고 합니다. 또 국내 최고의 무용수들은 물론 세계적인 무용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 러시아 무용수들도 초청해 포교 무용의 수준을 한 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변변한 후원 단체 하나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심 하나로 묵묵히 포교 무용에 힘쓰고 있는 손 교수의 야심찬 새해 각오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스님과 김동완 목사가 환담하고 있다.

"통일·종교 화합 함께 노력"

조계종 정대 스님 - KNCC 김동완 목사 환담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총무 김동완 목사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다.

정대스님의 크리스마스 축하메시지 발표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한 김 목사는 "정대스님의 축하메시지 전문을 〈교회와 세계〉에 게재할 예정"이라며 "새해에도 종교간 벽을 허무는 데 함께 노력을 기울이자"고 말했다. 정대스님은 "지난 해 6.15남북공동선언으로 남북간 화해분위기가 크게 조성됐다"고 평가하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종교인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대스님과 김 목사는 또 지난 해 추진됐던 남한 종교대표들의 북한방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성운 기자

"대자비로 보리심 밝히자"

세계불교법륜종 법광 종정 신년사



새해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구도전법을 펴며 생명의 존엄을 최상의 가치로 삼고 민족 정신문화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환상과 열망과 지나친 욕망의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종교인의 사명과 위대한 서원을 재인식하고 투영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성인들의 가르침을 깊이 헤아려야 합니다. 헛된 망상과 한탕주의로 호의호식하려는 무기력한 이들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으며 거품이나 탐욕스러운 망상을 버려야 새롭게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의 존엄과 불법의 가르침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정법에 입각해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정의로운 불국정토가 되도록 각자가 지혜의 심지에 대비(大悲)로써 기름을 삼고 대사(大捨)로서 불을 삼아 보리심등(菩提心燈)이 법계를 비추도록 생활화해야 하겠습니다.



김희옥검사 홍조 근정훈장

인권옹호·정의실현 공로

김희옥 수원지검 제1차장이 23년간 검사로서 인권옹호와 정의실현에 헌신한 공적이 인정되어 12월 28일 정부로부터 홍조 근정훈장을 받았다.

독실한 불자로 잘 알려진 김희옥 검사는 1972년 동국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시 18회에 합격했으며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 환경과장, 평택지청장, 서울지검 남부지원 차장검사를 거쳐 현재 수원지검 제1차장 검사로 있다. 1995년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예비법조인 불자들의 모임인 '다르마법우회'를 창립하여 지도했으며 현재에도 수원법조인 불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최근엔 동국대 총동문회가 동국대를 빛낸 인물에게 수여하는 '올해의 동문상'도 수상했다. 지난 85년 동국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김검사는 현대 동국대 법대 겸임교수로 재직하며 형사법을 강의하고 있다. 이경숙 기자(gslee@buddhapia.com)



상묵 대강백 영결·다비식 엄수

구랍 28일 오후 9시 30분 강화 전등사에서 입적한 전등사 회주 인공당(印空堂) 상묵(象默) 대강백의 영결 및 다비식이 30일 오전 11시 전등사 경내에서 1천여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엄수됐다.

상묵 대강백은 1953년 마곡사에서 서운스님을 은사로 득도해 동화사 연주암 주지와 불국사 강원 강주를 역임했다. 87년 월산 스님에게 입실건당한 상묵스님은 중앙승가대교수 동국역경원 역경위원을 역임하며 대장경의 한글화와 후학양성에 공을 세웠다. 상묵대강백은 28일 전등사 극락전에서 "사대금이주(四大今離主)하니 진인화중소(眞人火中笑)로다 차시심마물(此是甚麼物)인가 개중무불조(箇中無佛祖)로다"라는 임종게를 남기고 입적했다.



소림정사 평화통일 해오름 법회

서울 소림정사(주지 지형)는 1일 경주 감포 앞바다 백사장에서 '민족 평화통일 기원 해오름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3천여명의 불자들이 관음·지장 정근 등을 하며 민족의 평화통일과 업장소멸 및 소원 성취 등을 발원했다. 지형 스님은 법문을 통해 "철야정진의 공덕과 원력으로 올 한해 각 가정에 공덕이 가득하길 기원한다"며 "이번 기도를 시작으로 3천일 결사 일재에 들어가 10년간 일원상 1백만점을 인연 불자들에게 드리겠다"고 밝혔다.



수원포교당 금강보탑 점안

부처님오신날(성도재일)을 맞아 수원불자들의 염원을 담은 금강보탑이 세워졌다. 수원포교당(주지 성관)은 1일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님오신날 기념법회 및 금강보탑 점안식'을 가졌다. 전통적인 한국의 미와 현대적 감각을 잘 조화시킨 금강보탑은 4m 높이의 3층석탑으로 불국사 다보탑과 화엄사 각황전을 모델로 동국대 문명대교수, 문화재청 김창균 전문위원의 자문을 얻어 단이슬 불사연구소(소장 최용석)가 1여년에 걸쳐 제작했다.

人 事 말 씀

大韓佛敎 曹溪宗 前 佛國寺 講主이시며 傳燈寺 會主 印空堂 象默大講伯께서 지난 12월 28일(음12.3) 午後 9時 30分에 傳燈寺 極樂庵에서 圓寂 하시어 佛紀 2544年 12월 30일 宗團의 元老 大德스님과 四部大衆을 모시고 門徒葬으로 永訣式과 茶毘式을 嚴肅히 奉行 하였습니다. 嚴冬의 추운 날씨에 公私 多忙하심에도 不拘하시고 參席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일일이 찾아뵙고 人事 드림이 道理인줄 아오나 慌忙中 우선 紙面으로 인사드리오니 널리 解諒하여 주시기를 仰望하나이다.

四十九齊案內

일 자	장 소	일 시	일 자	장 소	일 시
초 제	전등사	1월 3일 (음12.9)	2 제	전등사	1월10일 (음12.16)
3 제	불국사	1월17일 (음 12.23) ※ 불국사 종무소 054) 746-9912~4			
4 제	전등사	1월 24일 (음1.1)	5 제	전등사	1월31일 (음 1.8)
6 제	전등사	2월 7일 (음1.15)	49 제	전등사	2월14일 (음 1.22)
印空堂 象默大講伯 四十九齊를 위와 같이 奉行코자 합니다.					

佛紀 2545年 1月

印空堂 象默大講伯 門徒葬 葬儀 委員會

葬儀委員葬 성타 集行委員葬 법등 護喪 종진
門徒代表 세웅 門徒一同 상좌: 성대, 장윤 합장

강화 전등사 종무소 032) 937-0125,0025 전송 032) 937-5450

2001학년도 무불선학대학원 2기 신입생 모집

선의 대중화·생활화·세계화를 지향하는 무불선학대학원에서는 진정한 자아를 찾고 선의 원리를 실용화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불교의 선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2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원서교부 및 접수
2001년 2월 1일~ 2월 24일

모집 내용
· 주간반 00명, 야간반 00명,
· 통신반 00명(비디오TAPE수강)
· 인터넷 수강가능
(Homepage : http://www.moobool.com)

전형 및 구비서류
· 서류전형(전형료 2만원) 입학원서(본원소정양식) 1통
· 자기소개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자 격
· 기존 불교교양대학 수료자 및 동등한 불교 교리 숙지자
· 선학에 대한 전문적 이해를 희망하는 자

합격자발표
2001년 2월 26일~ 28일(개별통지)

개강 및 강의시간
· 3월 5일(총 15주) · 매주 월·화요일

등록금(학기당)
· 주·야간반 : 47만원, 통신반: 55만원(분납가능)
· 과목별 수강: 과목당 20만원(통신 23만원)

개설 강좌

과 목 명	강 사	요일 및 시간
선어록 강독	홍선스님(승가대 포교사회학과)	주간 / 14:40~16:10 (화)
		야간 / 18:50~20:20 (화)
선과 서양철학	심재룡(서울대 철학과)	주간 / 14:40~16:10 (월)
		야간 / 20:30~22:00 (화)
한국선사상사	최병헌(서울대 사학과)	주간 / 13:00~14:30 (화)
		야간 / 18:50~20:20 (월)

※ 학과목 및 강사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입 학 식
· 2001년 3월 3일 토요일
· 오후 2시 본원 법당

원서교부 및 접수처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7-5 삼윤빌딩 8층(135-010)
전화: 541-0002~3
팩스: 541-0004
Homepage : http://www.moobool.com
E-mail : moobool@netsgo.com

덕숭총림 수덕사 부설
무불선원·한국불교선학연구원
무 불 선 학 대 학 원

직장직능단체 대표가 말하는 새해살림

경진년 한해가 지나가고 신사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한해 동일직종 연합불자회가 창립되는 등 직장법회가 왕성한 활동을 보여 직장이 새로운 신행공간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주요 직장불교단체들이 올 한해 펼칠 활동을 알아본다.



교계·종단 현안 현대적 해법 제시

이준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

한국 최고 지성인 불자단체인 만큼 올 한해도 교계 중요 현안과 종단운영에 대해 현대적 해법을 제시하는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조계종이 올해 신도교육 강화를 선언한 만큼 기존의 교육방법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학술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불교미술전'을 준비중이다. 예술을 전공한 회원들이 작품을 기증해 전시 · 판매하고 그 수익금은 자체 선원 건립 서원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예정이다. 미술전은 교불련 홍보와 불교미술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교정기관 7곳 불자회 창립 추진

오희창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장

전국에는 모두 48개의 교정기관이 있다. 그 가운데 불자회가 없는 기관은 7개로 올해 교정인연합회는 이곳 기관에 불자회를 창립하는 것을 최대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1만5천명 교정직 공무원 가운데 현재 불심회 소속회원은 2천7백명 정도. 그래서 올해는 3천명의 회원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법회강화 및 회원 연대강화에 온힘을 쏟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소자포교를 위해 지속적으로 펼쳐온 불서보급, 불우재소자 가족돕기, 교리상담 강화 등의 활동도 강화하고 1지회 1사회복지기관 결연사업도 펼친다.



장기기증 등 생명나눔운동 참여

박영조 한국운전불자연합회장

택시기사라는 직업이 일반인들과 접촉이 많아 불교를 알리는 전법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교리공부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사찰예절, 역사, 가람배치 등 불교기초상식을 총체적으로 모은 자체 교리책을 올초 발간한다.

올 3월에는 생명나눔실천회와 재매결연을 맺고 생명나눔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장묘문화개선운동에도 앞장선다. 이를 위해 회원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택시 앞뒤로 스티커를 붙여 생명나눔을 홍보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만들어 무료 세무상담

정구정 한국세무사 불자회

나누는 기쁨을 함께하는 불자회가 되기위해 올해초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에게 세무상담을 실시한다. 200여명의 회원들이 하루 1건 정도의 무료 세무상담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회원들을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친목도모와 정보교류를 활성화 할 방침이다.

기존에 해오던 정기법회와 월 1회의 성지순례는 그대로 실시한다. 성지순례는 그냥 사찰에 가서 참배만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전문 가이드를 대동해 배움의 장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11월에는 인도 8대 불교성지를 순례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오지주민 무료 의료검진 확대

김주효 전국병원불자연합회장

지난해 창립해 아직까지 완전한 조직체계를 갖추지 못해 올해는 지방조직건설 등 조직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 병원 불자회의 법회를 활성화하고 법회시간에 교리강좌를 실시해 회원들의 불교소양을 높일 예정. 또한 올해 처음으로 연합법회와 성지순례를 실시해 불자의료인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회원들의 신심고양에 힘쓸 계획이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오지 무료의료봉사활동도 올해는 2번으로 확대해 정례화시켜나간다는 서원도 세워놓고 있다.



전국 MBC 불자 연합회 창립

장영효 MBC불교연구회장

올해 최대 목표는 지방사와의 교류활성화다. 전국 19개 계열사 가운데 현재 강원도와 전라도 지방의 계열사들은 아직 불자회가 없고 불자파악조차 안된 곳도 있다. 이에 이들 지역 계열사에 불자회 창립을 적극 후원하고 서로간의 교류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연합 성지순례를 분기마다 실시한다. 또한 각 계열사 임원들을 중심으로 자체 법회활성화에 힘쓰고 나아가 전국MBC불자연합회 결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내부 조직이 정비되면 KBS, MBC, SBS등 공중파 3사가 중심이 된 방송불자연합회 창립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지회 창립 · 청소년 포교기금 조성

임완숙 전국교사불자연합회장

지난해로 13개 지방 지부조직을 완료했다. 그래서 올해는 지역별 지회조직을 건설하고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 우선 28일부터 경주 불국사에서 열릴 연합회 수련회를 통해 회원들간의 친목도모는 물론 신심을 키우고 미창립 지회는 지속적인 후원으로 창립을 유도할 방침이다.

더불어 그동안 발행하고 있는 '좋은친구'의 발행부수 확대, 불우학생 돕기, 불교학생회 육성을 위한 연수 개최 및 장학사업 등 청소년포교사업을 강화하기위해 본격적인 기금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퇴직불자연대 · 법당가지기 운동

김윤하 전국금융단불교연합회 운영위원장

은행 구조조정이 끝나면 전체 은행원 가운데 30%가량이 감원되고 이에 따라 불자회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올해는 각행 법회 활성화의 일환으로 이들 퇴직불자들과의 연계를 강화해 애경사를 챙겨주는 등 은행불자들간의 연대감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금년부터는 5~10년 장기계획으로 '금융단 법당 가지기 운동'을 시작할 방침이다. 그동안 개별은행불자회들은 법당이 없어 법회장소 섭외와 법사 초청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모금운동 등을 펼쳐 금융단 불자들의 소망인 자체 법당 건립에 매진할 예정이다.



연합수련행사 · 사이버 포교 강화

박창식 철도청불교신행단체협의회 의장

대전정부청사내에 있는 철도청 본청 불자회 및 미창립 기관의 불자회 창립을 지원하고 철도청연합법우회 창립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에 사이버 법사를 배치해 철도청 전직원들에게 불교를 알려 포교에 나서는 한편, 6월경에 철불협 수련대회를 개최하는 등 연합 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또한 부처님오신날에는 철불협 소속 단체 청사내에 연등을 장엄, 수도권 전철역 열차 안정기원 연등 및 현수막 게시, 연등축제 참석 등 다양한 대외활동도 펼친다.



대선공약 실천 · 불교관련법 개정

김기재 민주당 연등회장

올해는 신행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2월경 청와대불자회와 함께 신례하례법회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연등축제에 적극 동참하고 정기법회 봉행, 불교계 복지시설 위문 등 다양한 활동을 구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칭 공약실천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난 대선 당시 불교계와 약속한 10개 공약사항에 대해 중간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조세관련 특별법, 문화재관리법등 교계 현안법들을 조속히 개정하고 회장이 공석인 국회 정각회 문제도 한나라당불자회와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모임에선

운불련 콜 단일번호 개설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회장 박영조)는 단일 통신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각 지역회에서 운영중인 호출택시 번호를 통합, 1588-8803의 단일번호를 개설했다.

회원가입 지역회는 대구, 대전, 안양, 수원, 광주, 전주, 청주, 경주, 포항, 제주, 원주, 공주, 제천, 의정부등 14개 지역이다.

감사원 천수경 강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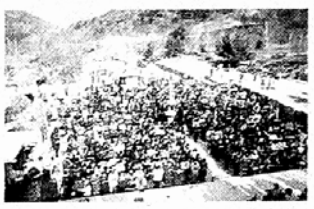
감사원 불자회(회장 노옥섭)는 9일부터 11일까지 천수경 강설 특별법회를 봉행한다. 동국대 김호성 교수가 강의하는 이번 법회는 오후 5시 30분 감사원내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02721-9198 정호순

금강경독송회 국가발전기도

금강경독송회는 1일 충북 청주 미륵사지 세계사에서 국가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는 기도법회를 봉행했다.

전국 12개 도시와 해외에서 모인 천여명의 회원들은 금강경을 독송하며 한해동안 나라 안팎의 재앙이 소멸되고 국운이 안정되며 개인의 업장이 소멸되기를 서원했다.



한편 법회를 봉행한 이후 회원들은 수안보온천에 들러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KBS 불교팸 정종철회장



KBS불교연구회(회장 박영석)는 구랍 23일 송년법회에서 정종철씨<사진>를 제 4대 회장으로 선임했다.

수원연수원 연수1부장인 신임 정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인가를 거쳐 3월 정식 취임하게 된다. 신임 정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젊은 불자 포교에 최선을 다해 불자회의 조직을 젊게 만들고, 회원들을 불교대학에 진학시켜 공부하는 불자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게시판

알림

▲ARS 성금모금 전화 개통=은평시립노인종합복지관은 무의탁어르신 돕기를 위한 ARS성금모금전화 (02)7000-747을 개통했다. 각 가정의 전화와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가능하며 1회 통화시 2000원의 후원금이 적립된다. 후원금은 무의탁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 식사배달, 무료약품지급, 생계보조비 등으로 사용된다. (02)385-1351

▲금강경독송회 메주판매=금강경독송회는 독송회 법당에서 메주판매를 실시한다. 수익금은 북한어린이와 불우청소년돕기에 사용된다. (02)535-7764

강좌

▲금강경=보현불교대학은 12일부터 1년간 큰법당에서 금강경강좌를 실시한다. 강사는 심효언 보현불교대학 지도법사이고 강의는 매주 둘째 · 넷째 금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 (042)624-6555

▲불교 100문 100답=제주 법화사는 불자들의 신앙심 고취를 위해 3개월과정 불교기초교리 강좌를 개설한다. 〈100문 100답(대원정사)〉을 교재로 매주 수 · 금요일 오후 2시 종목스님이 강의한다. (064)738-5225

▲불교교리=조계종 국청회는 3월 30일까지 동국대 최종석 교수를 강사로 불교교리 대강좌를 개최한다. 청 · 장년 및 일반신도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강의는 종로구 수송동 원당빌딩 3층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진행된다. (02)730-1249

모집

▲자원봉사자=대구 동화사가 운영하는 자비의 집은 무의탁 어르신, 노숙자, 실직자들을 위해 무료급식 및 식기세척을 도와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53)982-0101

▲동산불교대학 신입생=동산불교대학은 2001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원서교부 및 접수는 1월 31일까지이며 제출서류는 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반명함판 사진 3매이다. 불교를 알고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지원가능하며 신입생들은 2년간 인도 · 중국 · 한국불교사, 유식 · 법화 · 화엄사상 등을 배우게 된다. (02)732-1206

▲삼화불교대 신입생=삼화불교대는 불교학과, 불교미술과, 중국어과, 포교사과정 등 4개과 2001년 신입생을 모집한다. 고등학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가능하며 원서접수는 31일까지이다. (02)511-2026

▲무의탁어르신 후원자 =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는 관내 무의탁독거어르신과 후원결연을 맺어 물질적, 정신적 도움을 줄 후원자를 모집한다. 또한 어르신들에게 말벗, 생활상담 등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자원봉사자도 모집한다. (02)2203-3677

▲치매단기보호소 입소자=진각치매단기보호소는 서울거주 만 60세 이상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입소자를 모집한다. 보호소에서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인지활동, 미술 · 음악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02)914-8556

현대 훼미리 설악콘도 특별 혜택

1,584만원 (23평형) ☞ 350만원에



▌특별가입 내역

평 형	총분양가	특 별 가	사용일수	객실형태
23평형	1,584만원	350만원	30박	방2 / 거실1

▌충북 청원 초정약수 스파텔 VIP 초대권 증정
- 초정 약수(광천수) 무료 한정 공급 / 숙박권
- 초정 탄산 사우나 무료 이용권 / 할인권

▌온라인 / 카드 결제 안내
- 국민은행 : 805 - 25 - 0012 - 481
- 예 금 주 : 주) 현대훼미리리조트

▌특별가입 혜택
※ 2000년 스키장 리프트 무료 / 할인권 증정
- 초정약수 스파텔 VIP 초대권 증정
- 회원 입회비 / 연회비 평생 면제
- 공동 명의 구입 가능(카드 추가 발급)
- 10년간 정회원 이용
- 10년 만기후 전액 환불 및 연장 가능
- 양도 / 양수 / 매매 / 상속 가능
- 신용카드 장기 분할 가능 (12-18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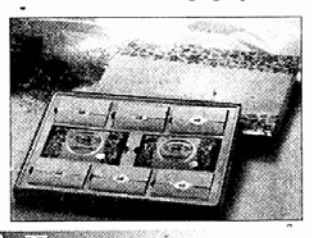
전국 23곳 사용 현황 | 설악권/설악, 평창, 알프스 경기권/양평, 용문산, 가평, 청평, 인천 중부권/천안, 도고, 충주 남부권 / 울산, 남원, 지리산, 구례, 순천, 해남, 경주, 부산 제주권/서귀포 해외권/사이판

(주) 현대 훼미리 리조트
HYUNDAI FAMILY RESORT CO., LTD
문의 안내 02) 545-4955

"향기"로 아름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항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때때가 되면 끊어질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 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략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후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여일이 지난후에는 눈주위의 기미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 전국 대리점 모집중 ※

해당되는 증상에 (O)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부처님 공경하듯 정성껏 비누칠

신행현장

노인 목욕돕는 보살들

"더럽다 깨끗하다는 생각조차 없어요. 목욕이 끝나면 오히려 내가 더 개운해집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2일, 부산 불교복지보건대학(학장 혜도) 5기 졸업생들의 두 번째 목욕봉사가 있던 날, 한 할머니의 몸을 정성껏 씻어주며 유애옥 보살(43)이 하는 말이다. 이날 10명의 보살들은 부산 동인병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중풍이나 치매 노인들을 목욕시키며, 〈반야심경〉에 나오는 '불구부정(不垢不淨 · 더러움도 깨끗함도 없다)'의 깊은 뜻을 체득하고 있다.

몸 구석구석의 때를 씻어내는 봉사자들의 손길은 한평생 맺히고 쌓인 할머니들의 마음 깊은 곳 응어리까지 말끔히 씻어낸다. 물소리에 어울려 "좋다! 좋아"하는 할머니들의 칭찬이 터져 나오고 봉사자들도 덩달아 신이 난다.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몸을 받치느라 힘이 들텐데도 지친 기색 없는 이들은 몸을 맡기고 쑥스러워 할 노인들을 위해 "할머니, 예쁘게 씻어 드릴께요"하는 말도 해가며 얼심히 몸을 문지른다.

자신의 몸을 가누기조차 어려운 중증 노인, 힘들게 겨우 몸을 움직이는 노인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혼자서 하는 목욕은 엄두도 못내는 형편. 늘 병상에 누워 대소변을 받아 내거나 기저귀에 의존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불교복지보건대학 목욕봉사자들의 손길은 그야말로 '효자손'이다.

운동이 부족한 노인들에게 흔히 보이는 배변장애가 많아 목욕을 시키다 보면 대변을 손으로 씻어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냄새나고 더럽다고 얼굴을 찡그릴만도 한데 이들 보살들의 자비손길과 몇 바가지의 맑은 물

부산 불교복지대 졸업생 5기까지 릴레이 봉사

땀방울 맺힌 얼굴 어느새 약사보살 미소

에 의해 깨끗한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어진다.

처음 목욕봉사를 하고 사흘 간 몸져누워야 했던 봉사자들은 두 번째 봉사를 하며 제법 익숙해졌다. 5기가 들어오면서 2, 3, 4기 선배들은 부산 지역 동인병원, 효도병원, 보훈병원 등 병고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는 새로운 병원에서 간병 호스피스 봉사자로 활동하며 불교계 자원봉사의 새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미 지난해, 선배들의 목욕봉사는



◇부산 불교복지보건대학 5기 졸업생 목욕봉사팀이 2일 동인병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목욕시켜주는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다.

병원에서 주는 자원봉사자 상을 받았을 정도로 불교복지보건대학의 봉사활동은 질 높고 정성스럽기로 소문나 있다.

선배의 뒤를 이어 봉사활동에 나선 10명의 졸업생들은 최고령 강선자(57세)보살을 비롯 대부분 50세를 바라보는 나이. 집에서 편히 쉴 만도 한데 봉사현장으로 나올 수 밖에 없었던 데는 이유가 있다. 부처님 법대로 사는 길을 찾던 이들에게 봉사는 이름이 다른 수행방편이었고 실천의 바른 길이었다. 제대로 배워 알고 실천하겠다는 발심으로 내친 걸음에 불교복지보건대학 간병호스피스 3개월 과정까지 마쳤다.

"선배들이 워낙 잘해서 더욱 분발하게 된다"는 이두숙(48세) 봉사팀 조장은 "몸을 맡겨 온 한 분 한 분을 부처님 공양하는 지극한 정성으로 씻겨 드리고 보살펴 드리려 노력하고 있다"고 봉사의 마음가짐을 전했으며 유애옥 보살은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불이법(不二法)을 비누칠 하고 머리를 감겨 드리는 김 서린 목욕탕에서 더욱 절실히 느낀다"고 덧붙인다.

"잘해서 하는 봉사는 아닙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마음 다해 할 뿐이죠. 일주일 동안 목욕하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생각하면 빠질 수가 없어요" 땀방울이 맺힌 얼굴로 목욕시키기에 여념이 없는 이영숙 5기 회장의 말이다.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수많은 세상 속 부처님들 곁으로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10명의 도반들. 어느새 약사보살의 미소와 원력을 닮아 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생활속의 불교

피안에 이르는 길

불법의 생활화를 논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불법의 세속화다. 불법을 자신의 살림 수준으로 끌어 내리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제 편한 대로 단정지어서도 안 된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불자가 아니라 외도다.

그런데 스스로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로 발원한 사람 중에도 더러 그런 사람이 있다. 끊임없는 정진으로 피안의 저 언덕에 이르려 하지 않고, 언덕을 제 쪽으로 끌어 당기고자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정진을 포기하고 마치 피안에 도달한 양 자신을 속이고 타인을 기만하기도 한다. 하지만 피안은 항상 거기에 그렇게 있을 뿐이다.

스스로 불자라면서 믿음의 대가를 바라는 경우도 많다. 일이 잘 되게 해 달라, 돈을 많이 벌게 해 달라, 빨리 진급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빌고 호소한다. 장단이라도 맞추듯 한쪽에선 그래야만 복을 받는다고 부추기고 강요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불법과는 무관하다. 비록 불법의 이름으로 했다 해도 그건 허사다. 공염불인 것이다.

모름지기 불자라면 스스로 피안의 뗏목을 만들고 제 힘으로 노를 저어야 한다. 보시 · 지계 · 인욕 · 정진의 배를 타고 선정 · 반야의 다리를 건너 영원한 자유의 그곳으로 가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곳에 이르는 바른 길일까. 먼저 자의식의 죽음이라는 통행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피안으로 가는 방법은 오직 그것뿐이다.

자의식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관념의 죽음이다. 관념의 죽음은 좀처럼 수용키 어려운 자아 부정의 처절한 작업을 요구한다. 더 이상 '나', '나의 것'이라는 의식이 사라질 때까지 나를 부정해야 한다.

그것이 아무리 반대로 자의식을 확장하라. '나'라는 울타리를 타인까지 확장하고, 나아가 일체의 유정물 · 무정물까지로 넓혀 가라. 일체 만물이 모두 다 그 울타리 속으로 들어 오도록 '나'란 존재를 확대 해석하라. 그래서 마침내 전체와 하나가 되라. 그것 또한 나의 죽음과 다르지 않다. 자아 부정과 자아 확장은 그렇게 '죽음'에서 만난다.

'나'란 의식이 죽어야 비로소 건널 수 있다.

龍眼

주제가 있는 법문

반성하는 삶의 태도로 알찬 새해 설계하세요



삼공스님
서울 능여선원주지

또 한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역사의 한 점에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설렘,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목표를 가슴마다 한 아름씩 안고 있기에 요즘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가 싱싱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풍겨주는 그 싱싱한 기운이 오래도록 유지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지난 시절들을 되돌아 보건대, 그 싱싱함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신년벽두의 가슴 설렘은 어느새 일장춘몽으로 잊혀져 버리고 쉽게 일상에 지쳐 버립니다. 스스로 쉽게 목표를 포기해 버리고 희망을 절망으로 들러버립니다. 또 세월을 탓하고 정치인을 욕하고 경제를 한탄하고 세상 인심을 원망하는 일로 한 해를 채워 나가기 바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해를 보내고 또 한해를 설렘으로 맞기를 되풀

인과법 가벼이 말고 스스로 속이지 말자

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아침부터 어째서 이렇게 비관적인 소리를 하느냐고 따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이 말이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세 가지로 그 원인을 분석하여, 새해를 보다 알차게 시작하는 비법으로 처방해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반성 할 줄 모르는 삶의 태도입니다. 살아 온 날들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고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만을 분주히 챙기는 사람은 곧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든든한 반석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지어야 하듯이 자신이 살아 온 날들을 돌이켜 반성하고 그 반성으로부터 다져지는 깨달음을 바탕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 계획은 순조롭게 조금씩 실천이 될 것이고 반드시 보람으로 자신을 도울 것입니다. 모래를 쪄서 밥을 하겠다고 덤벼드는 어리석음으로 새해를 설계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마음을 고쳐 먹고 지난 날들을 찬찬히 되돌아보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과를 믿지 않거나 인과법을 가벼이 여기는 버릇이 자신의 삶을 망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흔히들 인과법이 대단히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을 잘 아실 겁니다. 바로 그게 인과입니다. 콩을 심은 자리에 팥이 나거나 팥을 심은 자리에 콩이 날 수 없는 이치가 바로 인과법입니다. 그리고 인과법은 어김이 없습니다. 오늘 한마디의 거짓말로 남을 속였으면 그 과보는 반드시 자신이 받게 됩니다. 이승에서 받지 않았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어느 생에서인가 반드시 받게 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자신의 마음속에 '인과법을 믿자'는 이정표를 달아 두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도 양심을 버리고 남을 해치고 스스로를 속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해를 살고 나면 새해가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세 번째로 죽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이 그 걸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바로 그 착각이 인간을 오만하게 만듭니다. 오만의 종자를 마음으로부터 잘라 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봅니다. 우리의 이 몸은 인과에 따라 참된 자기의 자리를 찾아 윤회하는 한 과정에서 만난 하나의 집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될 중요한 집입니다. 이 몸으로 살아 나가는 한 생을 바탕으로 다음의 몸과 생이 결정지어진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죽음을 보다 의미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은 바로 교만하지 않고 겸허하고 순일한 마음으로 살자는 뜻입니다.

신행캘린더

1월 10일 (수)

■동화사 단기출가 수련회=대구 동화사는 13일까지 3박4일 동안 '참회와 발원을 위한 수행'을 주제로 단기출가 수련회를 개최한다.(053)982-0101

■저소득가정위안법회=마산창원불교연합회는 오후 3시 창원 경남여성회관 강당에서 제 11회 저소득가정위안 및 성금 2000만원 전달법회를 봉행한다.(055)222-1393

■대길상도 전시회=서울 소림정사 주지 지형스님은 21일까지 경인미술관에서 대길상도 작품전시회를 가진다.(02)733-4448

■대한불교진흥원 불교사상강좌=대한불교진흥원은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공개홀에서 동국대 최봉수교수를 초청해 '업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불교사상강좌를 연다.(02)703-0108

1월 11일 (목)

■심원사 지장재일 철야정진=철원 심원사는 저녁 6시30부터 새벽 5시까지 지장전에서 철야정진기도를 봉행하고, 12일 아침 9시 30분에는 영도스님을 법사로 지장재일 법회를 개최한다.(033)455-3468

1월12일 (금)

■디지털 어린이 동계 캠프=디지털 불교청소년 열린 상담실은 13일까지 상담실내 법당과 야외 눈썰매장에서 동계어린이캠프를 실시한다.(016)401-6254

■보현불교대학 금강경대법회=대전 보현불교대학은 오후 7시 심효언 지도법사를 모시고 금강경대법회를 봉행한다.(042)624-6555

1월13일 (토)

■조계종 포교원 신년하례법회=조계종 포교원은 14일까지 계룡산 갑사유스호스텔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한다.(02)720-7060

■법륜불자교수회 동계수련대회=대구 법륜불자교수회는 14일까지 영주 부석사에서 동계수련대회를 개최한다.(016)513-0268

1월14일 (일)

■수륙 천도재=옴누리선원은 오전 10시 30분 제 1회 새해맞이 수륙 천도재를 봉행한다. 이번 수륙 천도재는 매주 2월 25일까지 매주 일요일 열린다.(032)542-8300

1월16일 (화)

■선원사지복원 천도재=선원사는 오전 10시 대웅전에서 선원사지 복원 4천일 지장기도 및 300일 천도재를 봉행한다.(032)933-8234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동산불교대학 2001년도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18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

1년 교과목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반야사상 · 법화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정병조(동국대교수) · 계환스님(동국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장휘옥(동국대교수) ·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 김성철(동국대교수) · 권탄준(동국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2년 교과목	· 불교학개론 · 선종사상 · 불교미술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권기종(동국대교수) · 최종석(동국대교수) ·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한정섭(금강선원이사장) · 김호귀(동국대교수) · 유진스님(동국대교수) · 최봉수(동국대대교수) · 주명철(동국대교수) · 오국근(동국대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정규반 (100명) 주간반 (50명) 통신반 (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자	· 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2000년 12월 15일~ 2001년 1월 31일 입학금 1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 동산교육회관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지원가능

4. 입학일시 2001년 2월 3일(토) 오후 5시 (동산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 본대학 사무국(☎ 732-1206~8, FAX 732-1207)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 서울 : 보련각(조계사앞) ☎ 02)733-0333 ⊙ 부산 : 불 서 보 급 사 ☎ 051)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 ☎ 053)425-4097 ⊙ 대전 : 보 문 서 점 ☎ 042)257-0161
⊙ 광주 : 불 일 서 점 ☎ 062)232-7542 ⊙ 제주 : 한라불교신문사 ☎ 064)55-2203

※ 특전사항 : ⊙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고시를 거쳐 조계종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대한불교조계종 동 산 불 교 대 학

天然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藥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용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0047



박태원 교수의 20

불교로 보는 인생

생각하는 힘

결핍과 불완전 벗어나 생명진화의 희망찾기

200억 년 전에 우주가 빅뱅으로 생성되고, 45억 년 전에는 지구가 생겨난다. 다시 40억 년 전의 지구 위에 생명체가 등장하고, 이어 단세포 생물-다세포 생물-어류-파충류-포유류-영장류의 순으로 생명계는 진화한다. 500만년 전, 마침내 인간의 직계 조상이라 할 생명체가 지상에 모습을 드러낸다. 지구위 인간 역사의 막이 올랐다. - 현재 수준의 자연과학적 언어가 구성해 보는 생명 탄생과 진화의 그림이다.

그렇게 출발한 인간은 다른 생명체들과는 현저히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고도의 사유 능력이 돋보인다. 어느 시점부턴가, 그 어떤 인연을 계기로 인간이라는 생명체는 복잡하고도 수준 높은 의식활동을 전개시킬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든다. 인간 뇌의 구조나 기능의 진화 과정은 아마도 이 의식 발달의 과정을 반영하고 있을 것이다. 이 획기적 단계에 돌입한 이후, 인간은 그 유별난 '생각하는 힘'을 다양한 형태로 발전시키고 또 표현한다. 문화와 문명의 역사가 그것이다.

다른 생명체들과 판이하게 구별되는 '인간의 특성과 그 표현'은 외관상 매우 화려하다. 그러나 그 내면은 어두운 그늘이 두텁게 드리워져 있다. 인간 특유의 자기 전개와 표현을 보면서, 우리는 가급적 희망의 얼굴을 마주하려고 한다. 두텁게 쌓인 인간 역사의 지층에는 절망과 회의와 혐오의 근거들이 더덕더덕 굳은살을 이루고 있지만, 긍지와 희망의 밝고 힘찬 지맥 또한 선명한 자취를 남기고 있다. 독특한 면모를 보이는 인간 생명의 희망은 과연 무엇인가.

절망의 근저에는 '자아'가 도사리고 있다. 인간은 그 고도의 '생각하는 힘'으로 강하고 질긴 '자아 의식'을 형성해 왔다. 부당하고 불필요하게 키우고 기른 에고(ego)는 그 '생각하는 힘'이 만들어 낸 이런 저런 분리의 벽에 갇혀 괴물로 변해 간다. 무지(無知)와 오해는 그 유별난 사유 능력의 한 얼굴이기도 하다. 와 잘못된 편견과 부당한 선입견을 교묘하게 발전시키고 질기게 붙들면서, 탐욕의 불과 타자 부정의 칼날로 세상을 태우고 자신과 남을 벤다. 모든 생명이 본능적으로 회구하는 평안을 모질게 짓밟는다. 위험하고 해악적인 '에고의 문화'요, 생명 배반의 인간 역사이다.

이렇게 보면 인간 생명은 출발부터 '결핍되어 있다'. 그 고도의 사유 능력은 불완전하게 출발하였다. '비롯함이 없는 때부터 밝지 못한 생명(無始以來의 無明衆生)'이라는 말을 '애초부터 결핍되어 출발한 생명' 쯤으로 번역해 봄직도 하다. 무명(無明)의 출발시점을 설정하면 그 시점 이전의 "완전한 상태"를 설정하게 되니, 차라리 '출발점이 없는 무명'이라 말해야 한다('본래 부처', '항상 진리 그대로일 뿐'이라는 말은 시간 계열의 언어가 아니다. 無始無明 역시 그러하나 굳이 시간의 맥락에서 보자면 그렇다는 말이다).

그런데 비록 결핍으로 출발하였지만, 동시에 인간은 그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자질과 능력(佛性) 또한 발전시켜 왔다. '자아 관념'의 허구와 허물을 통찰하고 극복하는 힘 또한 길러왔다. '생각하는 괴물'을 '지혜의 빛'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틔우고 키웠다. 에고가 세운 겹겹의 분리 옹벽을 허물자, 막혔던 생명의 교류가 다시 트였다. 자기 주장과 타자 공격의 힘으로 변질되었던 생명 본래의 따뜻한 정감이 비로소 제 모습을 찾았다. 오해와 편견과 선입견에 막혀 '막고 밀치는 힘'으로 변질되던 사랑이, 이해가 바로 서자 생명을 보듬는 교감과 소통의 힘이 되었다. 분별이성이 지혜로, 애착이 자비로 성숙한 것이다. 온전한 이해와 온전한 사랑은 동전의 앞 뒤.

두 다리로 서신 존귀한 분(兩足尊)! 부처님을 일컫는 말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인간 존재(兩足)'가 지닌 희망의 가능성(지혜와 자비)을 완전하게 구현하신 분'으로 보고 싶다. 결핍과 불완전으로 출발한 인간 생명, 그러나 동시에 안게 된 희망의 씨앗을 틔우고 길러 그 분은 지혜와 자비의 두 다리로 완전하게 섰다. 인생(兩足)의 의미와 가치는 그 존귀함(尊)의 실현 정도에 달렸을 터.

▩ 울산대 철학과 교수

Q:참선의 공덕

A:지혜의 안목 열린다

참물자의 길 참선① -문답으로 푸는 참선수행

불교의 수행법 하면 대부분이 참선을 떠올릴 만큼 참선은 불자들에게 익숙하다. 하지만 왠지 방법적인 면에서는 어렵게 느껴져 고승대덕들이나 하는 수행법으로 어렵게 생각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러면 참선 수행이란 무엇일까. 수행에 들기 전에 먼저 불자들이 궁금해 하는 몇가지 질문에 대해 법산 스님(동국대 정각원장)이 대답해 주었다.

▣참선 수행이란 무엇인지요.

▲참선(參禪)이란 말에서 '참'은 생각함을 뜻하고 '선'은 산스크리트어 디야나(dhyana)에서 나온 말인데 역시 '사유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옛 불교문헌에서는 '사유수(思惟修)'라고 번역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즉 참선이란 한마디로 말해 깊이 사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화두를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을 말하지요.

▣참선 수행을 할때는 우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하는지요.

▲우선 참선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참자아를 발견하고 자기 발전을 하기 위한 열의와 흥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일시적인 기분이나 감정에 치우쳐 수행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본래심을 체득하는 수행이니 만큼 오로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삿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건 시간의 길고 짧음에 구애 없이 신심을 가지고 생활화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Q:참선 수행이란

A:깊이 사유하는 것

▣참선 수행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태국, 스리랑카,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의 남방불교권에서는 위빠사나 수행법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등 북방 불교권에서는 선종의 화두(話頭)나 공안(公案)의 의미를 추구하는 간화선(看話禪)과 조용히 자신의 본성을 비추어보는 묵조선(默照禪) 등의 수행법이 있지요.

▣참선을 할때 '결가부좌(結跏趺坐)'와 '반가부좌(半跏趺坐)' 자세를 취하는데 이 것들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먼저 결가부좌는 오른발을 왼쪽 넓적다리 위에 올려놓고 왼발을 오른쪽 넓적 다리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때 손은 오른손 바닥위에 왼 손바닥을 올려놓고 두 손의 엄지를 맞댑니다. 또 반가부좌는 오른발을 왼쪽 넓적다리 위에 올려놓거나 왼발을 오른쪽 넓적다리 위에 올려놓는 자세를 말합니다.

▣좌선을 할때 호흡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호흡은 어떻게 합니까.

▲주로 단전 호흡을 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코로 들여 마신 숨을 횡격막을 통과시켜 배꼽밑 5㎝에 있는 단전까지 끌어 내렸다가 다시 내쉬는 호흡을 말합니다. 숨을 들여 마실때는 자연스럽게 힘을 지그시 주면서 아랫배가 나오도록 하고 숨을 내쉴 때에는 아랫배가 들어가도록 하여 숨이 단전이나 가슴에 남김없이 내쉬도록 해야 합니다.

▣참선을 하면 어떤 공덕이 생기나요?

▲자기 자신의 참된 존재를 깨달아 분별망상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바로 볼 수 있는 지혜의 안목이 열리게 됩니다. 참 자아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생활 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불만족 스러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자아를 깨닫고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어 진실된 생활을 한다면 불만족이나 미혹, 초조와 불안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참선 수행의 공덕이지요.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무불선원 시민선방에서 재가불자들이 좌선삼매에 들고 있다.

禪과 21세기

선어는 해설이 아닌 투과하는 것

41 선과 언어 (5)



김태완 부산대 강사 · 철학

선에서 언어를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을 나타내고 있는 설명이 백장회해(百丈懷海)의 어록에 보인다. 불교 경전 언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설명은 동시에 선에서의 언어 이해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석가모니가 자신이 체험한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려 했을 때 부딪쳤던 문제와, 선적 체험을 설명하려는 선사가 부딪치는 문제가 동일한 문제기 때문이다. 경전의 언어와 선의 언어를 바라보는 관점은 방편설(方便說)의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같다. 백장의 설명을 빌어 방편설로서의 언어를 살펴보자.

중생은 분별의식을 극복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이든 듣기만 하면 그 말에 집착한다. 그러므로 분별의식을 극복하고 집착이 사라지는 해탈 체험을 중생에게 말을 통해 납득시키기란 대단히 어렵다. 진실로 이해한다는 것은 중생이 부처의 설명을 듣고 부처와 동일한 체험을 경험한 때에야 비로소 가능하다. 그러므로 부처의 말은 중생이 자신과 동일한 체험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말에 집착하여 말을 극복하지 못하는 중생에게 말로써 하는 설명이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컨대 '중생에게 본래 불성이 있다'고 말하면 '불성'이란 물건을 따로 찾게 만들 수 있고, '불성이 없다'고 말하면 공적함에 빠지게 만들 수 있으며, '불성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말하면 앞뒤가 안 맞는 말로서 혼란을 불러올 수 있고, '불성은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고 말하면 말장난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불성의 유무에 관하여 표현할 수 있는 말은 모두 이 네 가지[四句] 뿐이지만, 말에 집착한 중생에게는 넷 모두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는 것이다. 부처가 설법에 앞서 부딪혔던 문제는 이와 같이, 말을 하지 않으면 진리를 전하여 중생을 구제할 길이 없고, 말을 해도 잘못된 길로 빠질 위험이 크다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부처가 개발한 설법의 방식이 바로 방편설이다. 즉 방편설은 모든 경전에 기술된 불설(佛說)의 기본 성격이다. 백장은 방편설이 삼구(三句)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삼구는 초선(初善) 중선(中善) 후선(後善)이라고 부른다. 먼저 초선에서는 명칭과 견해를 세워서 삿된 길로 빠진 중생들을 올바른 길로 끌어들인다. 다음 중선에서는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른 공부의 길로 들어선 수행자에게는 이제 모든 명칭과 견해가 임시로 거짓 가설된 방편임을 납득시켜서 명칭과 견해를 모두 버리게 한다. 마지막으로 후선에서는 방편을 세웠다가 무너뜨린다는 생각조차도 버려서 방편이라는 격식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한다. 방편을 쓸 때에는 이 삼구를 모두 통과하여야, 방편을 통하여 노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언어에 오염되어 헤어나지 못하는 중생에게 처음부터 바로 언어가 극복된 해탈의 세계를 말해주어야 아무 소용이 없다. 어차피 중생은 언어의 테두리 내에서만 그 말을 이해할 것이기 때문에 언어를 관념적으로 받아들여 기억할 뿐, 언어를 넘어서 그 언어로써 가리키고자 하는 뜻을 바로 파악해내지는 못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임시로 방편상의 견해를 말하여 중생에게 불설을 긍정하고 따르는 신심을 갖추게 만들고, 일단 믿음을 갖추게 되면 불설로써 기존의 여러 가지 사견(邪見)을 하나 하나 파괴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사견을 버리고 불설만을 굳건하게 믿게 되었을 때, 이제는 불설이 사견을 파괴하기 위하여 임시로 가설된 방편임을 알려주어서 불설마저 버려서 언어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편설로 사견을 파괴하고 방편설도 버린다 라고 하는 생각마저 놓아버려서 일체의 언어 관념으로부터 완전히 풀려나야 한다. 여기서 비로소 불설이 의도하는 바, 또 선이 목적하는 바의 불가사의(不可思議)한 해탈은 달성된다.

이렇게 해탈이 완성됨을 백장은 '삼구의 투과(透過)'라고 말한다. 이처럼 삼구의 투과란 불설의 기본 구조이며, 그것은 바로 파사현정의 구조임을 알 수가 있다. 따문에 백장은 삼구를 해설하면서 항상 강조하기를, 삼구를 투과할 뿐 결코 해설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2001학년도 삼화불교대 학생 모집

1.모집학과 및 안내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불교학과	2년	■주간30명 ■야간30명 ■통신80명	· 고등학교및 수학능력이 있는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1통 · 본교 소정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 조계종 승려 · 포교사 (타종단 승려, 포교사도 가능) · 30세이상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대신 이력서 전형 가능
	4년	■통신80명		
불교미술 (문화재)과	2년	■주간30명 ■야간30명		
	4년	■주간30명 ■야간30명		
중국어과 (한의대입학과정)	6개월	■주간30명		
포교사과정	2년	■야간30명		

2.학교연혁

1989.7. 학원설립공고
1990. 삼화불교대 불교학부, 유아교육부 개설
조계종 포교사 137명 자격 취득
1991.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조계종 포교사 148명 자격 취득
1992. 제1회 졸업생배출(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 취득)
1993. 불교미술과 ·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조계종 포교사 142명 자격 취득
1994.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132명
조계사 포교사 183명 자격 취득
1995.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분교 체결 — 중국어과 개설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6.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7.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8.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9.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2000. 2. 제9회 졸업생 배출
2000.1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2001. 2. 제10회 졸업생 배출(예정)

3.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과정 입학가능
※중국남경중의약대학 본과 입학가능

4.원서교부및접수기간
· 원서교부및접수기간: 2001년 1월 30일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우편당일 소인 유효)

5.원서교부및문의처
· 본교 교학과 : TEL. 02)511-2026~8
FAX. 02)511-1080
· 일본동경분교 : TEL. 055-233-184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
◑인터넷홈페이지 : WWW.Buddhapia.COM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조계종 삼화학원 삼 화 불 교 대

◆ 교육부 학력인정 ◆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 연령 관계 없음

■각 학년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고등학교 과정 각학년 편입가능	3년	주간 · 야간
중학교 과정	3년	주간 · 야간

■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 특전 : 성적우수자 조기졸업 가능

■ 문의처
135 — 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 02) 511-2026~8
FAX : 02) 511-1080

대한불교조계종 삼화학원 삼화불교대

◆ 중국최고국립한학대학 ◆
남경중의약대학 학생모집

1 모집학과
■석사 · 박사 약간명 모집

학 과	학제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 년	◇고등학교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여부와 관계없음 ◇전문대, 대학 졸업자(전공불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외국인 유학생 신청서 1통 ◇여권용사진 3매
중의외과	5 년	
중약학과	5 년	

2 학교 소개
▶ 중국 최고 국립한의과대학
▶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타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외국인 기숙사 및 중국어 어학원
▶ 군입대 연기가능
주소: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전 화:25-6798171 팩스 : 25-6798168
▶ 인터넷홈페이지 : www.NUUTCM.EDU.CN

3 한국 상담 안내처
TEL.(02)511-2026~8
FAX.(02)511-1080

대한불교조계종 삼화학원 삼화불교대

이렇게 들었다

바른정치

국민의 뜻 겸허히 받들라

밧지국 사람들이 자주 모임을 갖고 바른 일을 서로 의논하여 몸소 지킨다는 말을 들은 일이 있느냐. 밧지국의 임금과 신하가 화목하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공경한다고 들은 일이 있느냐. 밧지국 사람들이 법을 받들어, 삼가야 할 것을 알고 도리를 어기지 않는다고 들은 일이 있느냐. 그 나라 사람들이 수행자를 공경하고 계행이 청정한 이를 존경하여 공양하기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고 들은 일이 있느냐. 이렇게 서로 화목하고 도리를 지킨다면 그 나라는 언제나 안온하여 갈수록 더 흥성할 것이다. 〈장아함 유행경〉

부처님이 아난에게 한 말이다. 바른 정치란 일상생활의 도리, 즉 상식을 지키며 서로 공경하는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 지극히 평범하고도 당연한 이치다. 하지만 우리 정치는 늘 이와는 반대로 간다.

지난해 말 벌어진 민주당 의원 3인의 '자민련 입양'이 연초부터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 자민련을 원내교섭단체로 만들어 여소야대 구도를 뒤집어보겠다는 속셈에서 비롯된 것이다. 비아냥거리는 말로 자민련 살림살이를 걱정해 민주당이 크게 부조한 것이라고도 한다. 원내교섭단체가 되면 연간 보조금이 23억원에서 60억원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한술 더떠 민주당은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삼척동자도 웃을 일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예기〉에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는 말이 있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뜻이다. 그래서 공자는 "정(政)은 정(正)이다"고 했다. 백성을 편안케 할 방법은 오직 '정(正)' 뿐이기 때문이다.

정(正)이라는 것은 곧 '바른 길, 바른 도리'다. 부처님이 늘 강조했던 것도 바로 '정법(正法)'이다. "바른 정치에는 칼과 몽둥이도 없고 원망도 없다"고 한 것은 정법이 정치의 최우선 가치임을 역설한 것이다.

부처님은 교단의 발전을 위해 일곱 가지 법을 설했다. 그중 으뜸이 서로 자주 모여 정의를 강론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법을 받들고 금할 것을 금하여 제도를 어기지 말아야 하며, 권세와 이익을 탐내지 않아야 한다고도 했다. 도리에 어긋나지 않고 원칙을 지키라는 가르침이다.

정치의 속성이라는 것이 자신이 속한 집단, 즉 정당의 이익에 부합되는 측면을 우선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 이익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탐욕에 지나지 않는다. 탐욕에 찌든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일리 만무하다. 하지만 모범은 못 보이더라도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는 지켜야 한다. 민주당 의원 3명의 당적변경은 양당체제라는 총선민의를 거스르는 행위이자, 지역유권자들을 기만한 행위다.

사회에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정해놓은 일정한 원칙이 있다. 그 원칙을 일부의 편의에 따라 바꿀 수 없음은 물론이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는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지켜져야만 한다. 그것이 국민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다. 올해는 제발 밧지국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 한명우 기자

불자세상보기

한국경제 비탈길 올라가려면…

생산 둔화-실업 증가
구조조정 아직 먼길
건전 소비풍토 조성
"나부터 먼저 바꾸자"



노부호
서강대 교수
경영학

지금 경제는 무너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위기에 처해있다. 생산, 소비, 투자가 꾸준히 둔화되고 실업이 증가하고 있다. 아직 경상수지는 흑자기조를 지속하고 있지만 반도체, 정보통신기기등의 수출단가 하락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있어 미래는 불투명하다. 공적자금은 모두 150조가 투입될 계획이지만 기업 및 금융의 구조조정은 미진한 구석이 너무 많아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가게 될지 불확실하다. 주가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작년 한해 폭락장세를 보여주었고 이 와중에 서민들의 돈 수십조원이 날아가버려 소비심리를 위축시켰다. 한마디로 경제는 위기국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경제가 무너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기업 및 금융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아직도 부실이 많이 남아있고 엄청난 액수의 공적자금이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정공법을 써야 한다. 기업과 금융을 세가지 등급으로 나누어 회생가능성이 없으면 퇴출시키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있어야 회생가능하다면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표관리를 하고, 경쟁력이 있고 회생가능한 경우는 자율에 맡겨두는 것이다. 목표관리는 도전적이고 달성가능한 목표를 주고 계속 그 목표를 상향조정해 나가는 것이다. 은행에 대해서는 BIS비율 · 담보대출비중 · 수익성 등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는 상호지급보증 · 상호출자 · 부채비율에 대해서 목표를 주고 향상시켜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목표관리를 하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 또는 사업부를 매각하기도하고 타기업이나 은행과 합병도 하고 외자유치도 할 것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중요한 것은 기업과 금융의 경쟁력이다. 경쟁력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경영혁신 즉 내부에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변화에는 위기의식이 요구된다. 즉 경쟁력이 없는 기업이나 금융은 망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하는 데 그동안 정부는 이것을 소홀히 하였다고 생각된다. 한국경제가 살아나고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정부는 구조조정을 착실하게 진행시키고 규제완화, 노동의 유연성, 개방경제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고난은 애써 비탈길을 오르는 것과 같다고 불교에서는 말한다. 그리고 그 비탈길은 미망의 세계를 벗어나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불성을 찾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도 했다.

경제가 아무리 어렵다지만, 그래서 한층 살기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어떤 형태로든 경제활동은 이뤄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경제 주체로서의 '나'와, 한 인간으로서의 '나', 불자로서의 '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삶의 형태를 찾지 않으면 안된다. 욕망을 절제함으로써 현명한 소비를 최우선 요건으로 삼고, 아무리 '내 것'이라도 낭비하거나 무가치하게 쓰지 않음으로써 절약하는 정신을 생활습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필요이상 욕심을 내는 어리석음도 없어야 하겠다.

세상은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그 모습을 결정지어 간다. 나부터 바뀌자. 지금이 바로 그 때다.

불자들의 2001년 새해소망

새해는 늘 새 소망으로 부푼다. 거기엔 희망과 기대가 자리한다. 불자들은 새해 어떤 발원을 하고 있을까. 이들의 새해 설계를 통해 불자들이, 그리고 불교가 어떤 모습으로 한 해를 채워야 할지를 생각해 본다.

올핸 꼭 자원봉사 동참



늘 언제 어디서나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2년도 안된 직장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왔지만 아쉬운 점이 너무나도 많다. 욕심이 앞섰던 탓도 있지만 주변의 여건이 좋지 못한 탓도 있다. 사실 여건 탓만 하다보니 처음의 열의가 식어버리기도 했다.

올해는 직장생활의 초심으로 돌아가나 먼저 변하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그런 다음에 힘이 닿는데까지 주변 여건 개선을 위해 팔을 걷어 부칠 작정이다. 절 가까이 살고 있으니 틈나는대로 법당에 가서 마음을 닦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또 여력이 된다면 자원봉사활동도 해 볼 계획이다.

친구들로부터 가끔 인터넷 상에서 불교에 대한 자료가 풍부하지 않다는 불만을 듣는다. 사실 나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해왔다. 청소년들에 대한 사이버 포교에 대해 많은 불교인들이 관심을 기울여 주었으면 한다.

청소년들을 위한 댄스 경연대회나 가요제 같은 다양한 문화행사도 아쉽다. 올해에는 동생들과 함께 불교계에서 여는 청소년 행사에 참석해 함께 뛰놀고 싶다.

박경숙
(26 · 서울 종로구 견지동/직장인)

절에 자주 찾아가 참선



3년전 아내에 이끌려 처음으로 절에 갔었다. 내키지 않았지만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였다. 그 이후 부처님 오신날이나 연말에 두세 차례 절을 찾았다. 처음에는 별다른 느낌이 없었지만 요즘 들어서는 혼자라도 절에 가고 싶어질 때가 있다.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하는 일이 잘 안될 때면 나도 모르게 부처님께 기대고 싶어진다.

올해에는 자주 절에 나가 기도도 하고 참선도 해 볼 생각이다. 기대는 것이 올바른 종교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안다. 그런 마음도 고쳐볼 작정이다. 아마도 아내와 아이들이 무척 좋아할 것이다.

가까운 사람들과 우연히 종교 얘기를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불교 얘기를 많이 하게 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아는 스님도 없고, 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스님도 별로 없는 것 같다. 이것이 늘 마음에 걸리고 안타깝기도 하다.

많은 스님들을 친견하고 지혜를 배우고 싶다. 욕심이긴 하지만 우리 사회의 사표가 될만한 스님이 많이 나와 국민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본다.

이동현
(38 · 서울 관악구 신림동/자영업)

애정으로 학생들 교육



배움의 한해, 가르침의 한해가 덧없이 가고 또 시작됐다. 갈수록 거칠어져가는 아이들과 삭막해져만 가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참다운 스승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새삼 느끼면서 부처님 법이 정말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도 했다.

늘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학교에 대해 더욱 애정을 가질 것이다. 항상 그랬듯이 포기와 좌절이 두렵기는 하지만 올해는 내 자신부터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신행활동을 할 것이다. 그리고 매를 들기보다는 부처님 말씀 한 마디를 해주며 자비와 정성으로 아이들을 대할 생각이다.

교사불자연합회의 활동이 더욱 왕성해졌으면 하는 기대도 갖는다. 학교 현장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우리 불자 선생님들은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부처님 가르침의 도량 일구는 지혜를 모으길 서원한다.

아이들에게는 자랑스러 아빠가, 아내에게는 부끄럽지 않은 남편이, 학생들에게는 존경받는 스승이 되는 것이야말로 내 위치에서 가장 불자답게 사는 것이라 믿는다.

이호영
(53 · 경기 부천시 소사구/교사)

한가지라도 실천신행



새해에는 단 한가지라도 부처님 가르침을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할 것이다.

포교사단 군포교특별위원회 부회장을 맡고 있고 매주 호국 백일사, 삼승사, 통해사 법당과 수원교도소에서 포교활동을 하고 있지만 늘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실천에 기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자들을 실천신행으로 제대로 이끌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든다. 그래서 올해에는 불자들 스스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실천행에 앞장서도록 하자고 발원했다.

또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참된 신행이 어떤 것인지 아직도 잘 모르는 불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삼보에 귀의하는 불자라면 부처님과 불법의 가르침 그리고 청정한 승단을 모델로 실천하겠다는 서약을 한 것이다. 우리 신도교육은 아직도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제대로 깨우쳐 주지 못하고 있다. 불교교리를 알면 저절로 행(行)이 나오는 만큼 기복위주의 불교흐름을 바꾸기 위한 신도교육이 올해에 정착되길 바란다.

임희웅
(69 · 서울 동작구 노량진2동/포교사)

평화통일 간절히 기원



새해에도 50년 동안 해 온 새벽 기도를 통해 남북 통일과 불교 발전, 부모님의 극락왕생을 위해 발원할 것이다.

이북 황해도 수안군 대성면에 계신 형제들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평생 소원인 남북의 평화통일을 더욱 간절히 기원할 것이다. 통일은 국민 모두가 동포애로써 한마음이 될 때 가능하기에 불자들부터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 한다.

해방이후 계속된 불교계의 정화와 개혁 노력이 결실을 맺는 모습을 꼭 보고 싶다. 지금처럼 승가의 계율이 계속 흐트러진다면 불교는 엄청난 퇴보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승가의 청정성이 바탕이 되어야만 국민의 존경을 받는 민족의 종교로서 발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스님들도 대오각성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찰의 재정공개를 통한 삼보정재의 투명한 운영이 필수적이다. 사찰 재정의 공공성을 법제화하고, 종회에 재가자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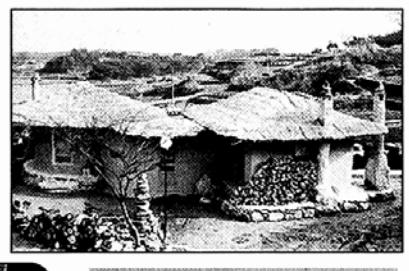
개인적으로는 부모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동시에, 지장경 기도를 통해 고통받는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서원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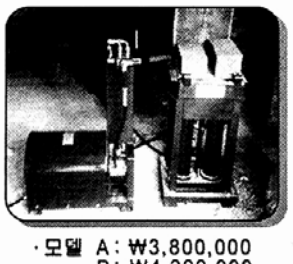
양진교
(77 · 서울 강남구 서초동/법사)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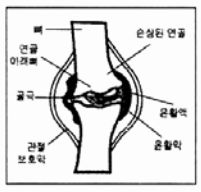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2-021769 봉송황토마을

광토환경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3)634-0223
팩스 : 063)34-1237

골다공증 관절염 류마티스
'물렀거라, 상어연골정제로 완전해방'
퇴행성 류마티스성 통풍성 관절염 자연추출미생물 이온화 '코랄샤크골드' 복용 1개월만에 확연한 화제만발



계단을 오르거나 약간의 활동만으로도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관절염) 관절이 뻣뻣해지면서 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퇴행성 관절염), 여기저기 곳곳이 붓고 아프고 힘들며 물이 고이는 경우(류마티스성 관절염), 엄지발가락이나 팔꿈치가 붓고 움직이기 힘든 경우(통풍성 관절염). 이 모든 증상으로부터 완전해방될 수 있는 건강식품이 수입돼 화제다.

최근 뉴질랜드에서 수십년간에 걸친 연구결과 끝에 개발된 '상어연골정제' 상어에서 추출된 특수갈슘과 마그네슘, 세레늄 등 기타 자연에서 추출된 미생물을 복합 이온화하여 인체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원리로 이루어진 '상어연골정'은 닭아 없어지는 물렁뼈가 생성되고 골이 빈 곳에 인이 채워져 골다공증을 잡아주며 몸에 나쁜 물이나 균을 잡아 정상인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탁월해 세계적으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코랄샤크골드는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던 관절염, 류마티스, 통풍, 퇴행성 환자들에게 희소식으로 여겨지는 '상어연골정'은 국내 삼일양행(02-790-8200)에서 독점 시판하고 있으며 부작용 없이 1개월 복용부터 확실한 효과가 검증되고 있어 연일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코랄샤크골드〉

한달분 22만원,
두달분 40만원

IMF다이어트 인기급등

만인들의 희소식. 최근 삼일양행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가격을 공장도 가격으로 인하하였고 또한 효과를 최대한 증대시킨 것이 바로 IMF 다이어트이다.

이 다이어트의 특징은 한방에서 추출된 특수성분이 함유되어 부작용없이 자연스럽게 몸에 흡수된다는 것. 현대인들의 운동부족과 영양섭취로 인하여 누적되는 지방분과 기존의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식전복용이 더욱 효과적이며 단기간 감소요법 보다는 꾸준히 몸에 무리가 가지않는 효과를 가지며 3-4개월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남성과 여성, 출가를 원하는 여성 출산후 오는 비만 등 많은 분들로부터 희망을 주는 다이어트로 거듭태어났다고 한다. 비만인들의 희소식은 틀림없으며 한방성분의 10여가지 조화가 균형을 잡는 비법이라고 한다. 삼일양행측은 IMF 졸업할 때까지 현재가격을 고수하겠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IMF다이어트
1개월분 88,000원
■문의 : 삼일양행
서울(02)790-8200

"불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 가 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뵙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밑 불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한 약재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약재를 탕재로 하여(한박스 60포) 한달분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이며 풍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하여 피로를 제거한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과 당뇨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숙취를 해소한다.

상담문의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정배리 463번지
중미산 불심정사 전화번호 : (031) 771-1571

보시금은 불심정사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정강 대 진 법장

사·부·대·중

스님들의 열린생각



홍승 스님
대구 부도암

얼마 전 대구에서 '미래 사회 한국불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간담회가 열렸다.

전체적인 결론은 이렇다.

"한국불교가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되려면 승가와 재가의 의식개혁이 시급하다. 의식개혁을 통해서 천편일률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법회의 활성화와 현대에 맞는 법회 방식을 연구해야 한다. 또 사이버 시대에 대비한 프로그램과 인재양성이 시급하다. 특히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에 대한 종단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과연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내고 대안을 제시할 주체는 누구인가.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그 주체는 승가라는 것이었다. 승가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데 불교가 과연 종교집단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자괴감이 드는 것은 잘못된 생각일까.

한 번 현실을 살펴보자. 아직도 대부분의 사찰에서는 기복을 위한 법회만이 진행되고 있다. 무슨 무슨 기도니 하면서 동참금을 정하고, 축원을 통해 신도들의 복을 스님들이 대신 빌어주고 있다. 그러니 신도들은 절에 20년, 30년을 다녀도 부처님이 깨달으신 법이 무엇인지,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모른다. 그저 스님들의 기도 힘을 빌어 내 남편 내 자식들이 잘 되기만을 기원할 뿐이다.

왜 자각각타의 종교인 불교가 기복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복을 비는 행위가 사찰의 수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방편이라는 변명을 해보아도 결국은 스님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다.

왜냐하면 열심히 수행정진하는 스님들이 있는 반면, 일부 스님들은 소위 '토굴'이라는 개인공간을 마련해 종단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배부르고 등 따습게 살고 있다. 그러니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신도들에게 기복을 장려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사회의 지도자여야 할 스님들이 불교를 퇴보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불교의 현실이다.

승가가 개혁하지 않으면 불교의 미래는 없다. 초발심으로 돌아가 순수성을 되찾는 길, 자기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 그것뿐이다.

목탁소리

선암사와 불교화해

이 경 숙 (취재1부 부장)

'가장 인상에 남는 절' 하면 많은 불자들이 '순천 선암사'를 주저없이 꼽는다. 대부분의 전통사찰이 '전통'이라는 이름이 붙었음에도 대대적인 확장보수공사로 전통미를 잃어버린 곳이 많지만 선암사는 소박한 당우들과 아름다운 자연이 잘 어울려 아련한 정취를 간직하고 있어 고향같은 푸근함을 주는 고찰이다.

그러나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게 된 것은 조계-태고 분규 때문이다'라는 아이러니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절이 또한 선암사다. 현재 법적인 주인은 조계종이고 실질적 소유자는 태고종이며, 재산관리인은 순천시장으로 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재산관리인이 순천시장이 된 것은 소유권 문제로 조계 태고종이 계속 싸움을 해왔기 때문이다. 때문에 연간 2억원 가량 되는 문화재관람료 수입은 전액이 고스란히 순천시로 들어가고 있다. 그렇기에 연달아 탱화를 도난당했을때도 세콤 하나 서둘러 달 수 없을 정도로 사찰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분규가 해결될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아왔다.

그런데 최근 선암사나 한국불교를 위해서 좋은 전망이 보이고 있다.

지난 연말 태고종 새 총무원장 종연스님이 인사차 찾아간 자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선암사 주지를 (따로)발령 안하겠다"고 약속하고 "선암사의 소유권을 태고종에 완전히 넘겨 분규를 종식시키자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사실, 선암사 정도는 태고종에 양보해야 한다는 소리가 조계종 일부 스님들간에 있어왔다. 수년전에도 젊은 승가단체인 실천불교승가회에서도 이러한 의견이 나왔다. 선암사는 태고종이 가져야 태고종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돼야 분규가 해결 실마리를 찾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은 공공연히 논의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조계종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만큼 교계는 이를 계기로 두 종단이 그동안의 소모적인 분규관계를 하루빨리 청산하길 바라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다음과 같은 정대스님의 말은 새겨 들어야 할 의미가 있다.

"이제는 스님들이 싸우면 모두 공멸하는 시대이기에 원래 같은 뿌리를 가진 두 종단이 화합해 한국불교를 발전시키자."

NGO운동 · 안티문화 등 인터넷으로

'제5의 권력' 부상…전자 민주주의 태동

네티즌이 세상을 바꾼다

네티즌이 여론을 주도하는 파워집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입법, 사법, 행정, 언론에 이어 '제5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최근 인터넷기업협회는 '네티즌의 영향력 강화'를 올해 인터넷 업계 '10대 뉴스'의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다. 문화에서 정치, 사회, 종교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위세를 떨친 네티즌의 힘을 짚어본다.



◇불교정보센터(대표 신희권)은 최근 홈페이지(budgate.net)의 '게시판' 기능을 강화해 교계 단체들이 온라인 활동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사진은 불교정보센터의 작업 현장.

'인터넷 등급제' 도입 백지화 유도

달라이라마 방한 지지 여론형성

▲안티(Anti)사이트 봇물

안티사이트의 주 표적은 기성의 권위. 과대광고로 고객을 끌어모은 초고속 인터넷 업체, 소비자를 우롱한 기업, 정책을 잘못 편 정부기관 등이 줄줄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시민의신문(kngo.net)', '참여연대(peoplepower21.org), '환경운동연합(kfem.or.kr)의 경우. 일부 부작용도 있지만 침묵하는 익명성을 버리고 비판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건전한 토론문화 형성에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네티즌의 힘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에도 네티즌의 영향력이 미쳤다. '인터넷 등급제' 도입 무산이 대표적인 예다. 정부가 음란 · 폭력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도입하려 한 이 제도를 네티즌은 인터넷 검열로 규정, 줄기차게 온라인 시위를 벌였다. 국회의원들도 이에 호응, 정보통신이용촉진법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네티즌의 위력에 주목한 정치권의 '사이버 정치' 실험도 이어졌다. 지난달 국정감사 때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국감 현장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해 관심을 끌었다. 아직은 성과가 미미하지만 홈페이지를 여론 수렴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는 의원도 늘고 있다.

▲울고 웃는 문화계

인터넷은 일부 전문가들 손에 맡겨졌던 문화 평론의 벽을 허물었다. 특히 대중문화계에 미치는 네티즌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개봉 영화의 성패도 네티즌 평가에서 판가름난다. 크랭크인 전부터 화제가 됐던 대작 영화 가운데 '공동경비구역 JSA'는 네티즌의 호평 속에 각종 흥행 기록을 연이어 갱신한 반면, 안티 사이트가 생길 정도로 혹평받은 '단적비연수'의 흥행 성적은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인터넷 우먼파워

지난해 말 문을 연 여자와닷컴(yeozawa.com)은 한국의 대표적 여성 운동가들이 만드는 여성 포털 사이트다. 홈페이지 첫 화면은 다른 여성 포털과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러나 '여자와 세상 읽기' 코너를 클릭하면 최근의 정치 · 사회 이슈를 가벼운 문체로 풀어내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전설적 여인들의 삶을 소개하는 글이 쏟아진다. 가정 폭력, 환경 문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여성들은 정치 · 사회 문제에 무관심하다는 편견이 이 홈페이지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불자 네티즌

불교계도 디지털 여론의 힘을 다지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 97년 군위댐 건설로 인각사(사적 제374호)가 수몰 위기에 처했을 때, 송형근(불교정보센터 기술부) 씨가 하이텔에 글을 올린 것을 계기로, 통신망에서의 '여론 형성'이 화두로 떠올랐다. 당시 행정당국은 디지털 여론에 밀려, 계획과는 달리 사지로부터 3㎞ 떨어진 곳에 댐을 건설했다. 이후 가상 공간에서 여론이 형성된 경우는 드물었지만, 99년도 '조계종 사태'를 시작으로 지난해 '지리산 살리기 운동', '달라이 라마 방한' 등을 계기로 불교계에서 '디지털 여론'에 대한 관심이 다시 일어났다. 특히 불교계의 디지털 여론 형성에 적잖게 공헌하고 있는 불교정보센터(budgate.net)가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불교계 30여 개 단체의 목소리를 담는 '코너'를 신설해, 가까운 미래에 '불교계의 디지털 여론 시대'를 열 전망이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인터뷰

부다피아 조원희실장



"불교 포털사이트 만들어야죠"

"인터넷은 여론을 형성하는 최적의 공간이지만, 먼저 정보의 양이 많아야 하고, 정보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선결돼야 합니다."

부다피아 정보센터(buddhapia.com) 조원희 실장은 불교계 역시 온라인 상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할 시대를 맞는다는 데 동의하지만, 그 과정에 생기는 역기능도 적잖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 실장에 따르면 '디지털 여론'에 힘입어 피어날 전자민주주의에는 몇 가지 선결 조건이 있는데, 가장 먼저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것은 자신의 의견을 내기 위해 우선 각종 정보를 섭렵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불교계에서 '포털' 사이트에 깊은 관심을 갖는 것 역시 이러한 이유에서다. '포털' 사이트란 불자 네티즌이 편리하게 인터넷 사이트를 오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문이다.

그런데 조 실장은 "현재까지 불교계는 가상공간에서의 정보의 양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이를 정리해 알려주는 포털 개념의 사이트 역시 없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영향력 있는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교계에서는 〈종교편향백서〉라는 책이 나왔지만, 이에 대한 자료를 인터넷에서 찾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종교편향 사건이 발생할 때 간접적이고 단기적인 반응은 있지만, 그 이상을 기대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조 실장은 "주장에만 몰두하지 않고 자신의 정보를 타인에게 줄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경전이나 사찰, 문화재만을 불교정보라고 생각하는 구태에서도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종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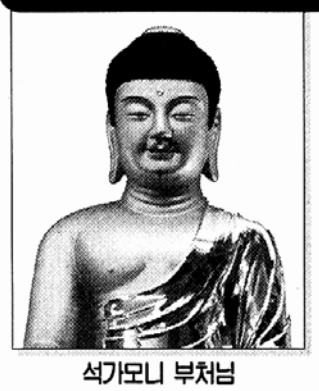
국내 인터넷 이용자 1700만명 넘었다

국내 인터넷 이용자가 1700만 명을 넘었다. 한국갤럽과 (주)베스트사이트가 2000년 12월 6일간 전국의 13~49세 1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터넷을 월 1회 이상 이용하는 사람은 176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9년보다 200만명 가량 증가한 수치로 13~49세 전체 인구의 59.9%에 해당한다.

그 동안 인터넷 이용률이 낮았던 30대 이상의 연령층, 특히 30대 남성 직장인과 30, 40대 주부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여, 전체 이용자 증가세를 주도했다. 인터넷 이용 장소로는 가정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 인터넷 이용자 5명 가운데 3명이 주로 가정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PC방 이용률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인터넷폰 사용자는 이동전화 사용자의 13%에 불과했다.

청동불상 제작 전문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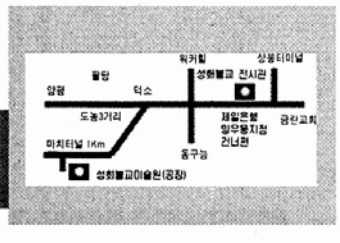

관음 보살님

청동 불상, 천불, 삼천불, 만불, 개금, 탱화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다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주 · 야 상담합니다

※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1층)
성화불교전시관 · 성화불교미술원
전시관 : 02)2209-0080, 0081
공장 : 031)591-1022 핸드폰 : 011)302-1022

2001학년도 제10기 법사 양성 교육을 위한 ——— 한국불교법사대학
출강 통신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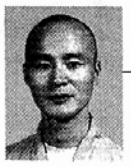
법사(法師)의 정의와 역할

법사의 칭호는 대승경전에 의거하여
정의와 역할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하연의 정법을 섭수정법하고
수순법지하는 대승보살로서
여법히 불교의례에 따라
법사법위를 품수받은
불교의 진자(眞子)임을 말합니다.

특전
- 각 과정 수료시 소정의 법사법위품수와 법사증을 수여함
-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적극 지원함
- 본 법사교단에 포교원 및 사찰을 등록할 수 있음
- 법사불교신문 상임법사위원으로 위촉 및 추대함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상임법사로 활동할 수 있음
- 사찰법회 및 불교행사에 초청법사로 추천함

모집안내
1.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2. 교육방법 : ①출강반 ②통신반
3. 입학자격 :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4. 제출서류 : • 입학원서 (본 대학 양식)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주민등록등본 1통
5.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 (불교기본의식 포함)
대법사과정 = 2년 (불교상용의식 포함)
6. 원서교부 및 접수 : 2001년 1월 2일 ~ 2월 26일까지
7.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
※ 전화 주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부설
한국불교법사대학
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번지 (견지빌딩 3층)
☎ (02) 720-1836 · 733-1959
Fax. (02) 737-5305
인터넷 http://pubsa.buddhism.org



승오스님의

경전읽기

승만경 ③

〈승만경〉의 원래 제목은 〈승만사자후일승대방편방광경(勝鬘師子吼一乘大方便方廣經)〉이다. 승만이 사자와 같이 우렁차게 소리치니 모든 동물이 굴복하는 듯한 설법 모양을 '사자후(獅子吼)'라고 하였으며, 일승(一乘)이란, 하나인 부처님(一佛乘)을 말하는데, 대승적인 가르침을 일컫는 것이다. 본래는 삼승(三乘)에 대한 일승인데, 삼승이란 성문(聲聞)·연각(緣覺)·보살(菩薩)승을 가리키지만, 성문과 연각의 이승(二乘) 모두 우리 몸과 정신을 극복한 경지를 이상으로 한다. 즉 살아있는 삶을 부정하는 죽음의 세계가 궁극적인 깨달음(覺)의 경지인 듯 생각하고, 자신만을 위해 수행하기 때문에 흔히 소승(小乘)이라고 표현된다. 그러나 보살승은 나와 다른 사람을 함께 위함을 덕을 찬탄하는데, 이와 같이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은 곧 불법의 거룩함을 확실하게 알고 또 이 거룩한 불법을 스스로 실행하겠다는 결심이 선 증거이므로 부처님께서 승만부인에게 수기(授記)를 하게 된다. 수기란, 지금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계속하면 나중에 반드시 부처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십대수장(十大受章)

수기를 받고 크게 기뻐한 승만부인은 공손하게 부처님께 십대수(十大受)를 사뢰어 올린다. 십대수란, 이제부터 대승의 수행을 해나가는 동안에 반드시 실행하려고 생각하는 열 가지를 말하여 그 실행을 맹세하는 것이다. 이것을 열 가지 서원이라고도 하는데 그 열가지 서원은 ①계(戒)를 깨뜨릴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②사장(師長)에 대하여 업신여기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③생물에 대하여 노여운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④남의 용모나 장신구 등에 대하여 샘을 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⑤티끌만큼도 아까워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⑥자기를 위해서 재산을 모으지 않는다. 받은 물건이 있을 때에는 모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쓴다. ⑦보시 등 네 가지의 이타행(利他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헌신하며 자기를 위해서는 하지 않는다. 애착하지 않는 마음, 싫증내지 않는 마음, 얽매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한다. ⑧의지할 데 없는 사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언제든지 구제에 나선다. ⑨생물을 포획하거나 하는 사람, 계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보고는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⑩진실된 가르침을 지키며 그것을 잊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러한 서원을 세움에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면서 "그대로이다. 그대가 서원을 세운 그대로 될 것이다"라는 하늘의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 내용이다.

삼승 아닌 일승 가르침 설법

이타행 등 10가지 맹세 부처님도 찬탄

이상으로 하는데, 이 셋을 모두 합하여 삼승(三乘)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삼승이 모두 하나의 일불승의 법으로 환원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이 일승의 본래 가르침이다. 이렇게 될 때에는 삼승은 방편(方便)이 되며, 일승은 진실이 된다. 일승의 진실을 여러 방법으로 중생의 근기에 따라 설명한 것을 방광(方廣)이라고 한다.

이제 〈승만경〉의 전체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어떤 경전이나 그것을 크게 나누면 서분(序分)과 정종분(正宗分)과 유통분(流通分)의 셋으로 나누게 된다.

〈승만경〉의 서분에서는 사위국(舍衛國)의 파사익왕(波斯匿王)과 그 왕비 말리부인(末利夫人)이 딸 승만부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승만부인이 불자가 되어 청정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정종분은 옛날부터 14장(章)으로 나누고 있다.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탄불진실의공덕장(歎佛眞實義功德章)

먼저 승만부인이 부처님의 공

▨해인사 승가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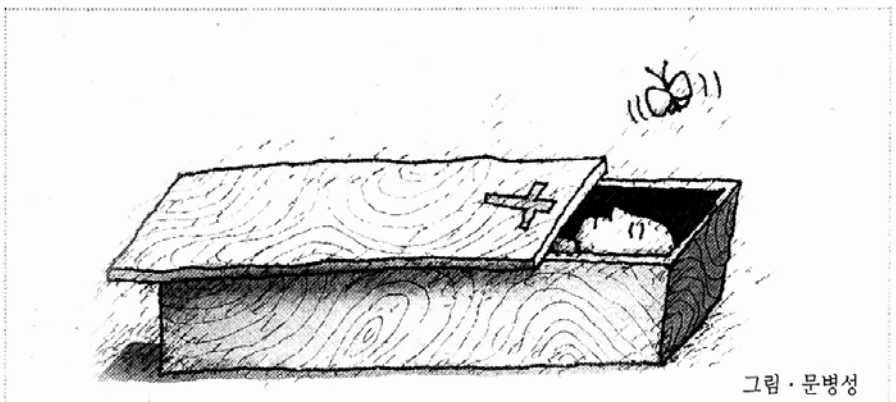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자연현상에 숨은 '인과' 보라

불교와 과학 〈13〉

나비 한마리

카오스 나비 날개짓이 유럽에 태풍 불러

연기설 '이것'이 있음으로 '그것'이 있고…

아프리카 밀림 한 가운데 높은 야자수 한 그루 옆에 나비 한 마리가 날고 있었다. 그 나비는 날개짓을 할 수 있어서 날 수 있었고, 그 날개짓에 나오는 '날개바람은 사람에게는 미미하기 짝이 없는 바람이지만 그 바로 옆에 있었던 작은 벌레 한 마리에게는 큰 힘이었다. 그 바람 때문에 나뭇잎에 붙어 있었던 벌레가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그 나무 가지에 붙어 놀고 있었던 원숭이 등에 떨어지게 되었다. 그 원숭이는 등에 떨어진 벌레 때문에 등이 가려워 등을 긁다가 옆에 있던 작은 나무 가지 하나를 건드려 그 나무 가지는 밑으로 떨어졌다. 떨어진 장소는 마침 실개울이 흐르는 곳인데 썩은 나무 가지들이 흐르지 못하고 뭉쳐있었던 작은 여울이었다. 떨어지는 힘 때문에 여울에 뭉쳐 있었던 나무 가지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바람에 실개울 작은 둔치에 있었던 자갈들이 사태가 일어나 실개울의 물의 흐름을 막아 놓고 말았다.

그래도 물은 흐를 데를 찾다가 물꼬를 틀어 실개울 옆에 있었던 습지 지역으로 물의 흐름이 바뀌었다. 그 습지 지역에는 간헐천 지역인데 작은 마그마 활동으로 뜨거운 증기가 간헐적으로 용솟음치는 바로 그런 곳이었다. 그런데 물꼬가 바뀐 개울물이 그 간헐공 위를 막아버려 뜨거운 마그마 증기압과 찬 실개울 물이 뒤섞여 땅 밑의 화산맥을 건드리는 바람에 그 화산맥에 이어진 근처의 작은 휴화산의 화산맥을 터트리게 되었다. 그런데 그 작은 화산맥은 아프리카 최고봉의 거대한 화산맥을 건드리는 바람에 근래에 보기 드문 화산 대폭발을 일어나게 하였다.

화산 대폭발로 인하여 엄청난 양의 마그마와 더불어 화산재가 인근 지역을 뒤덮게 되었다. 그 화산재의 범위는 대기 상에서 지름이 800 킬로미터에 이르렀고 그런 화산재는 아프리카 중서부를 관통하여 북서부로 진행하는 고온성 난류대기의 흐름을 유럽 북서부 한랭성 대기와 충돌을 유도하였고, 다시 지중해 다습한 대기와 만나 유럽 전역에 근세기 최대의 태풍과 비를 뿌리는 재앙을 불러와 서유럽 전체에 200백만 호의 침수와 400백만 명의 이재민 등의 어마어마한 재난을 일으켰다.

이 이야기는 물론 가상의 재난 이야기이지만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 이런 사태를 발생시킨 최초의 원인을 아프리카 밀림 속의 작은 나비 한 마리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 황당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 나비 한 마리와 유럽 전지역에 일어난 기후 재앙 사이에 아무런 인과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사태에 대한 이런 질문을 두고 우리는 과학적 인과율이라는 것이 얼마나 작은 범위 안에서만 다루어져 왔는가를 느낄 수 있다. 서구의 고전 뉴턴과학은 인과율의 범위를 현시적인 두 사건 혹은 두 사태 사이에서 벌어지는 원인과 결과만을 다루었다. 그래서 그런 기존의 과학적 인과율로써는 작은 나비 한 마리와 유럽의 재앙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성이 없었다. 그러나 이런 인과율로는 자연의 현상을 설명하기에 부족하였다.

그래서 60년대부터 나온 카오스 이론은 모든 자연현상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인과율의 존재를 인정하고, 인과의 끈이 1)길고 2)복잡하며 3)우회적이며 4)숨겨져 드러나 있지 않은 그런 인과성을 기술하려 했다. 그런 카오스 이론을 일반인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로렌츠라는 60년대 기상학자가 만든 예가 바로 위의 나비 한 마리의 이야기이며, 그런 복잡한 인과율을 우리는 보통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라고 부른다.

카오스 이론에서 말하는 나비효과는 결국 자연의 현상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나비효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설의 숨은 뜻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윤회가 왜 인과적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 윤회의 인과론은 분명히 고전 과학적인 인과율의 범위를 벗어나 있다. 그러나 현상계에 구속된 눈이 아니라 자유로운 눈으로 세계를 본다면 윤회의 그 복잡한 인과성을 한 번에 볼 수도 있다. 이 세계의 시간과 공간을 너머서 저 세계의 시간과 공간을 볼 수 있는 니르바나의 눈이 아니라도, 이 세계 안에서 나만이 아닌 너의 세계까지도 배려하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하는 삶의 의미를 실천에 옮기고, 나의 존재가 우주보다 넓은 관계망 속의 한 연결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다면 나비의 작은 날개짓 속에 숨겨져 있는 윤회의 거울 뒷면이라도 조금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최종덕/상지대 교수
(jdchoi@chiak.sangji.ac.kr)

문화·복지 등 4대 서원 절을 주민 삶의 무대로

지구촌 불교 / 대만 불광산사

지난해 12월 25일 대만의 천수이볜(陳水扁) 총통이 고웅시(市)에 있는 불광산사를 방문했다. 그가 이 곳을 방문한 것은 이날 열리는 제4차 전국신도대회에 축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였다. 한 나라의 수장인 총통이 일개 사찰의 신도대회에 참석한 것이다.

이 뿐만 아니다. 대만의 경제·문화계 인사들이 굵직한 일을 앞두고 이 곳을 방문하는 것에서부터 명문대에 적을 둔 교수와 학생들이 찾아와 집단 출가하는 것까지, 불광산사에서는 우리(한국불교계)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곧잘 일어난다.

대체 불광산사의 무엇이 이들을 오게 만들었을까? 신도 수가 1백만여 명을 넘는 교세 때문일까, 아니면 임제종이나 화엄종, 법화종, 열반종 등 8개 종파의 스님들이 교리의 벽을 허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유롭게 펼 수 없는 사풍(寺風) 탓인가.

불광산사는 중국공산당과의 내전에서 패한 공화국 정부와 함께 본토에서 건너온 성운 대사에 의해 창건된 사찰이다. 당시 성운 대사는 '교육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문화로써 불법을 펼치며, 자선으로 사회복지를 이루고, 수행으로 인심을 정화한다'는 4가지 서원으로 산사를 세웠는데, 대만의 종교학자들은 오늘의 불광산사의 진면목을 바로 여기에서 찾고 있다. 일찍부터 복지와 불학 분야에 주력했던 것이 이유라는 것이다.



◇불광산사의 '겨울맞이 자선 바자회' 모습.

성운스님 창건 … 신도 1백만여명 넘어

대학·방송국서 고아·양로원까지 운영

불광산사는 설립 때부터 염불회 청년회, 아동주말학교, 홍법단 등을 조직하고, 수계와 승가 교육에 관심을 놓지 않았다. 이러한 노력은 지금까지 2천여 명의 스님이 구족계를 수계한 것은 물론, 세계 각지에 150개의 분원을 세우고 미술관과 도서관, 출판사, 서점, 운수(雲水)의원, 2개의 중학교와 불광대·남화대·서래대 등 3개의 대학, 불학원(대학원 과정) 등을 창설하는데 결정적인 힘이 됐다.

불광산사는 라디오와 TV를 이용한 전파 포교 역시 대만에서 가장 먼저 시도했는데, 1998년 1월 불광위성TV를 개국했을 정도다. 이외에도 불광산사는 고아원과 양로원 그리고 무료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빈민들에게 의류와 음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불광산사는 불교학 연구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공헌을 하고 있다. '남북전(南北傳)의 불교를 구분없이 부처님 당시의 불교로 돌아가자', '현교와 밀교의 종파를 융합하자' 등을 이념으로 세운 불학원의 경우, 불교학의 학제간 교류 풍토를 장려하는 데 큰 몫을 하고 있다. '세계 현·밀 불학회의'며 '선학학술대회' 등과 같이 불교학자들에게 효과적이고 국제적인 연구 정보를 제공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아가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현대적 문장부호를 사용한 〈불광대장경〉, 세계 불교학계의 우수 도서로 추천받은 〈불광대사전〉, 30여 년 간의 중국·대만의 선학 연구 논문 목록을 정리한 〈선학 논저 목록〉 등 다양한 성과를 내놓고, 대만을 불교학의 중심지로 만들고 있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새해, 신심있는 기도로 불보살님의 가피를 !

신간

월간 『법공양』에 절찬리 연재되었던
불교신행연구원 김 현 준 원장의

참회·참회기도법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곧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맺힌 것을 풀고 푼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묘법이 참회인 것입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때, 이기적인 '나'를 비우고 무조건 참회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고 기꺼이 받고자 할 때 모든 것은 풀립니다.

부디 정성스런 참회를 통하여 불보살님의 자비광명 속으로 들어가는 물꼬를 틔어 보십시오. 기쁘기 끊임없이 이어지고 행복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합니다.



4×6판 /값 3,500원

〈구성〉
Ⅰ 업장과 참회 Ⅱ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Ⅲ 절을 통한 참회 Ⅳ 참회영불
Ⅴ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Ⅵ 이참법과 대승육정참회

올바른 관음기도를 위한 길잡이

행복한 삶을 이루게하는
관음신앙·관음기도법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중생의 모든 고통을 없애 행복을 안겨주는 관세음보살. 때문에 불자들은 관세음보살을 가장 많이 신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과 자비의 참뜻, 관음관법과 관음기도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관세음보살의 자비광명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관세음보살의 근본 원력과 구원능력, 관음관법과 관음기도법이 상세히 실려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행하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가져다 주는 법! 부디 이 책을 참고로 관음의 자비 속에서 소원을 성취하고 행복의 문을 열기 바랍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타큰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4×6판 /값 3,500원



불교계 최대의 베스트셀러!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소원성취를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생활 속의 기도법》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52가지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불교출판계의 스테디셀러,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큰스님 지음 / 신국판 /값 5,000원

일타큰스님께서는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성취 영험담들을 모아 이 책을 간행하였습니다.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이야기 끝에 붙인 큰스님의 해설을 통하여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남국선원장 혜국스님이
알기쉽고 재미있게 엮은

천수경
천수신앙

신국판 /값 5,000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독송하는 천수경!
심오한 뜻을 알고 기도하면
성취가 빠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와 관세음보살님께서 깨친 진리를 문자로 표현한 천수경! 그 가르침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위신력이 언제나 함께하고, 능히 심중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587-6612 · 팩스 : (02)586-9078



◇길산복지(吉山福地)

불교의 시각

점 "수상 · 관상은 심상만 못하다"
풍수 비보사탑 등 긍정적 인식

불교에서 보는 점과 풍수에 대한 관점은 대체로 부정과 긍정으로 엇갈린다.

먼저 점에 대해서 경전은 한마디로 '행해서도 안되고 봐서도 안된다'고 적고 있다. 〈잡아함 점복녀경(占卜女經)〉에서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이 대표적이다.

"쇠맷돌로 정수리가 갈리고, 온몸에는 불이 붙은 모습을 한 그 중생은 과거세에 라자가하에 살던 남자 점쟁이와 여자 점쟁이다. 그들은 점치는 것으로써 사람을 속여 재물을 모았다. 남을 속인 죄로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 한량없는 고통을 받았으나, 아직도 죄가 남아 과보를 받고 있는 것이다."

"수상(手相이 관상(觀相만 못하고 관상이 심상(心相만 못하다."는 역학계의 격언도 불교사상의 영향을 받은 말이다.

손금이 아무리 좋아도, 얼굴이 아무리 잘 생겼어도 남에게 호감을 주거나 마음을 잘 쓰는 것만 못하다는 이 말은 결국, '세상 만사란 마음먹기에 달렸다'(一切唯心造)는 뜻이다.

간혹 일부 스님과 재가불자 중에는 점복을 도교를 위한 '방편'이라고 말하지만, 이럴 경우에도 당사자의 의지와 노력이 절대적임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불교의 인과응보 사상은 세상 만사가 이미 정해진 대로 움직일 뿐이라고 믿는 '운명론'이 아니라, 수행과 깨달음을 통해 고통을 극복하고 해탈을 추구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반면 풍수에 대한 불교의 입장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한국 풍수의 비조(鼻祖)로 알려지는 도선국사(827~898)가 동리산문의 하나인 옥룡산문을 개창한 선승인데다, 비보사탑설(裨補寺塔說) 역시 좋은 집자리나 묏자리 잡기 위주의 잡술 풍수가 아닌 '병든 산천과 인심을 치료한다'는 중생구제의 원력이 담긴 방편이란 시각이다.

국토산천에 대한 깨달음을 기반으로 한 도선국사의 비보사상은 땅을 살아있는 사람의 몸처럼 본다. 침뜸에서 기가 과한 곳은 사해 주고, 허한 곳은 보해 주듯, 그 원리를 땅에 적용한 것이 비보사탑설이다.

"인심과 산천지세는 서로 닮지 않음이 없다. 인심이 불합(不合)하니 지역마다 나뉘어 구한(九韓)을 만들기도 하고 삼한(三韓)을 만들기도 한다. 부처님의 도력(道力)를 약쑥으로 삼아 병든 산천을 치료하도록 한다."

자연에 기생하는 인간이 아닌 아픈 땅을 돌보고 치유해서 끝어 안으려는 적극적인 자연미학이자 생태사상인 비보사상은 최근, 과학적인 합리성을 인정받으며 과학자들과 환경운동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운명의 선(線)'



◇'내님이 그리자와 우니다니'



◇미래가 두려운 현대인들의 귀의처는 어디인가. 갤러리 사비나의 '점전'은 현대사회에까지 지속되고 있는 점과 주술을 통한 인간의 기복행위를 긍 · 부정의 시각에서 조명하고 있다. 무속과 전통의 재해석을 시도한 '화위길상' 작품앞에서 큐레이터(왼쪽)로부터 부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관람객들.

점은 왜 보나…호기심 뿐인가

占展

서울 관훈동
갤러리 사비나
31일까지 전시



◇'풍수, 장풍득수'



◇화위길상(化爲吉祥)

점(占)과 풍수(風水)는 종교를 떠나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터를 잡는 일에서부터 인생상담과 진로문제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은 다양하다. 특히나 장기 불황이라는 집은 그림자는 오늘의 한국 민중들이 더욱 더 점집과 지관(地官)을 찾게 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어떻게든 극복하고픈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 때문에 점과 풍수는 비과학적인 미신이란 비판에 부딪치면서도 더욱 더 질긴 생명력을 발하고 있다. 심지어 사이버 공간에서도 젊은층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한국사회의 점 문화. 이를 순수 미술작품으로 조명해 보는 이색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3일부터 31일까지 서울 관훈동 갤러리 사비나에서 열리는 '점(占)전'. 14명의 중견작가가 평면 9점, 입체 4점, 비디오 1점을 출품했다. 아직도 점과 풍수에 기대는 오늘의 세태에 대한 저마다의 생각을 형상화한 작품들이다.

큐레이터 이희정씨는 "우리 사회에서 점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인간들의 본능적이고 끊임없는 호기심을 파헤치고자 했다"며 기획의도를 설명했다.

김용헌씨의 '적석(積石)-경천애인(敬天愛人)'은 강원도 오대산 아래 성황당의 돌무더기를 통해 민간신앙의 원형을 그리고 있다.

"돌무더기는 우리가 과거에 소망을 빌던 기원의 장소다. 오늘날에는 교회나 사찰에서도 이런 행위가 이루어진다". 하늘 무서운 줄 알고 인간을 사랑하라는 옛 가르침은 이러한 돌무더기를 통해서 소박한 종교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특정한 종교적 형식을 갖지 않고 일반민중의 생활 속에 전승되고 있는 전(前)종교적 또는 주술적(呪術的)인 형태의 민간신앙은 기성 종교의 기층부에 잠복하면서 재앙을 쫓고, 삶의 풍요를 기원하는 역할을 해 왔다.

홍지연씨의 '화위길상(化爲吉祥)'은 무당집의 기물들과 인도 · 중국의 종교화를 전시장에 가져다 놓은 설치작품. 작가는 현대사회에까지 지속되고 있는 기복의식과 무의식적인 '신성(神性)을 향한 의지'는 인간 본성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으로 '무속과 전통의 재해석'을 시도한다.

김성래씨의 '길산복지(吉山福地)'는 풍수를 상징하는 옛 지도를 새긴 조각들로 이뤄져있다. 우리가 살고있는 한반도가 길(吉)하고 복이 충만한 곳이라고 말하는 작품이다.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포근하고 정감있는 우리나라 산봉우리 형태를 느티나무 재료의 모형과 화강석으로 형상화했다.

노순석씨의 '학도회선(學道喜仙-200'은 두 여인 가운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남자를 풍속화풍으로 그리고 있다. 작가는 "이것은 방향을 잃은 현대인의 모습이며 점과 부적(符籍)은 그의 유일한 희망이 된다"고 설명한다.

수북한 쌀밥을 산이 둘러싸고 있는 홍성담의 '풍수-장풍득수'는 풍수에 기대는 민중의 소박한 기원을 담았다. 반면 이근범씨의 '지관의 초상'은 풍수지리를 관할하는 지관의 모습을 유령 형상으로 그렸다. 현대 사회에서 풍수지리의 의미에 대한 작가의 부정적 생각을 굳이 숨기지 않은 것 같다.

이 밖에 부적, 화투패, 궁합, 손금 등의 소재로 점 문화를 풍자한 작품들도 선보였다.

신경철씨는 사진 합성작품 '돈벼락 맞을 부적'에서 일확천금의 꿈을 꾸는 현대인의 심리를 표현했고, 유비호씨는 비디오 영상작품 '단가(短歌)'를 통해 온갖 일에 희망을 걸고 잘되기를 바라는 현대인은 마치 주술사나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조습씨의 '조 교주 전성시대'는 천국행과 영생을 파는 신흥종교 교주를 코믹하게 형상화한 합성사진이다. 점을 신앙처럼 따르는 일부 사람들의 행태가 사이비 교주와 다를 게 없다고 꼬집는다. 이민주씨의 '공명(共鳴)-궁합이란'은 궁합을 추상화로 표현했다.

정수진씨의 '무제'는 서양의 주술문화와 신앙적 요소를 포함시킨 상징적인 유화작품이다.

김윤경씨는 장갑 위에 손금을 돌출시킨 가죽작품 '운명의 선'을 내놨다. 갈홍화복을 손금으로 알 수 있겠느냐는 의아심을 담았다.

석영기씨는 화투패를 그린 '내 님이 그리자와'를 통해 화투점을 떠올리게 한다.

우창훈씨의 '신어미'는 무당과 신딸의 초상화를 장식화같은 배경 위에 배치함으로써 옛 유물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있다.

갤러리측은 매일 두차례 담당 큐레이터들과 관객간의 작품설명과 질의응답 자리도 마련한다. 관람객이 죽봉으로 운세를 점치고 운세풀이 종이를 가져가게 하기도 하고, 부적을 아주 싼 값에 파는 등의 이벤트도 있다. 02)736-4371-2.

글 ·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사진 · 고영배 기자(ybgo@buddhapia.com)

정세채와 떠나는

선 · 식 · 기 · 행

백합뿌리꿀찜





김시습이 스님이 되어 수락산 자락에서 목각(木刻)을 새기며 은둔의 세월을 보낼 때였다. 그가 만든 목각은 대부분 일하는 농부와 아낙네였지만 그 중에는 수양대군에 의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형상도 있었다. 그가 새긴 목각들은 친구이자, 도반이었다. 그는 목각들에게 술을 권하며 곧잘 취하였는데, 제자들이 밖에서 들을 때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흥겹게 술자리가 벌어진 듯한 소리가 나곤 했다.

정월 초하루가 되면 김시습은 일년 내내 새긴 나무 인형을 모두 태웠다. 그리고 그 재를 수락산에 뿌렸다. 하루는 신숙주가 찾아와 가슴 속에 묻어둔 이야기를 꺼내려 했다. 그러나 김시습이 자신의 말을 들어줄 것 같지 않자 술집 주인을 시켜 김시습을 대취하게 했다. 밤에 갑증으로 눈을 뜬 김시습은 자기 옆의 신숙주가 붙잡는 손길을 뿌리친 채, 방문을 박차고 달려가다가 지금의 가회동과 안국동 사이의 깊은 샘에 빠지고 말았다. 다섯 길도 더 되는 샘에 빠졌으니 김시습이 틀림없이 죽었을 거라고 신숙주는 생각했다. 종들을 시켜 김시습을 끌어올리려 우물에 사람이 내려가자 목각인형 수만 개가 승복 한 벌을 떠받치고 있는 게 아닌가! 김시습은 이미 사라져버린 뒤였다. 허탈해진 신숙주는 건져 올린 승복을 깨끗이 빨고 새로 승복을 지어서 수락산에 보냈으나 바로 그 날로 새로 보낸 승복은 물론이고 김시습이 뿌리칠 때 신숙주가 잡았던 옷 조각마저 함께 돌아오고 말았다.

그 후 김시습은 옷자락이 찢겨진 옷을 입고 다녔다. 봄에는 매화를 꽂고 여름에는 백합꽃을 꽂았다. 그래서 세인들은 그를 백합도사라고 불렀다. 그 후 사람들은 백합을 재배하여 떡도 해먹고 차도 끓여 먹었는데 신경이 예민한 신경증 환자와 공부하는 유생과 선비들이 즐겨 먹었다. 마른기침과 기관지에도 좋아 세조도 말년에는 백합차를 즐겼다고 한다.

■약선식 연구가. <산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저자

호흡기 장애-변비 치료 효과

만드는 법(1~2인분)

재료 백합(뿌리) 60g, 꿀 30g

요리법 ① 백합뿌리는 깨끗이 씻어놓는다.

② 그릇에 ①의 재료를 넣고 꿀을 끼얹어 잘 섞는다.

③ 찜통에 ②를 넣고 1시간쯤 찌서 예쁜 접시에 담아낸다.

효능 ① 폐결핵 등으로 가래에 피가 나오거나 공기가 건조할 때 호흡기 장애에 좋다

② 변비에 자주 걸리는 사람에게 효과 있다.

다시 푸는 경서

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 ⑮

以無念無作故 無有時劫地位
이무념무작고 무유시겁지위
漸次之行 亦無法義差別之相
점차지행 역무법의차별지상
以具修故 塵數法門 諸地功德
이구수고 진수법문 제지공덕
妙心體具 如如意珠 此中惺惺寂寂之義
묘심체구 여여의주 차중성성적적지의
或直約離念心體 或約
혹직약리념심체 혹약
用功門說之 故修性俱圓 理行兼暢
용공문설지 고수성구원 이행겸창
修行徑路 莫斯爲最
수행경로 막사위최

무념, 무작이기에 시간과 지위 등 점차로 닦는 수행이 없고, 또 법이니 뜻이니 하는 차별상이 없는 가운데 수행하기에 많은 법문과 모든 지위의 공덕이 묘심(妙心)에 갖추어져 있음이 여의주와 같다. 이 안에 '깨어 있고, 고요하다'는 이치를

又云 若有衆生 能觀無念者
우운 약유중생 능관무념자
卽爲向佛智故 四祖 謂融禪師曰
즉위향불지고 사조 위융선사왈
夫百千三昧 無量妙門 盡在汝心
부백천삼매 무량묘문 진재여심
故知 若不了自心 圓該諸法 又不知聖教
고지 약불요자심 원해제법 우부지성교
千途異說 隨順機宜
천도이설 수순기의

명분 다툼 지견의 장애 일으키나
마음 깨끗하면 그것이 바로 진리

바로 생각을 떠난 마음에서 말하기도 하고, 혹은 공부를 쌓는 법에서 말하기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수행과 본성이 다 원만하고 이치와 실천이 함께 통달하니 수행의 지름길로 이보다 훌륭한 것이 없다.

但得意修心 脫生死病爲要
단득의수심 탈생사병위요
何用名義諍論 而輿見障乎 而今
하용명의쟁론 이흥견장호 이금
若善得離念心體 卽與佛智相契 何論
약선득이념심체 즉여불지상계 하론
三賢十聖 漸次法門 圓覺修證儀云
삼현십성 점차법문 원각수승의운
頓門無定位 心淨卽名眞 起信論云
돈문무정위 심정즉명진 기신론운
所言覺義者 謂心體離念
소언각의자 위심체이념
離念相者 等虛空界 無所不遍
이념상자 등허공계 무소불변
法界一相 卽是如來平等法身
법계일상 즉시여래평등법신

요는 마음을 닦아 생사의 병을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데, 왜 명분 다툼으로 지견의 장애를 일으키는가. 만약 '생각을 여읜 마음'을 얻으면 곧 부처의 지혜를 얻는데 왜 삼현이나 십성 등 점차로 깨달아가는 법을 논하는가. 〈원각수증의〉에는 '돈문(頓門)에는 일정한 지위란 없고 마음이 깨끗하면 그것이 바로 진리이다.' 했고, 〈기신론〉에는 '깨달음이란 마음 자체가 생각을 여읜 것을 말한다. 생각을 여읜 상태는 허공과 같아서 두루하지 않은 곳이 없어서, 온 법계가 한 몸이다. 이것이 곧 여래의 평등한 법신이다.' 하였다.

無不指歸自心法界 而返執文字差別義門
무불지귀자심법계 이반집문자차별의문
又自生怯弱 望滿於三祇行位者
우자생겁약 망만어삼지행위자
非性宗得意修心者也 如有此病
비성종득의수심자야 여유차병
請從今改
청종금개

또 '만일 어떤 중생이 무념(無念)을 잘 관할 수 있다면 곧 부처의 지혜로 향한다.' 하였다. 그리고 사조 도신(道信)스님은 융 선사에게 '수없는 삼매와 한량없는 법문이 모두 네 마음에 있다.' 하였다. 그러나 제 마음이 모든 법을 포용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또 성인의 가르침이 천 갈래로 다르게 말한 것은 근기에 따라 자기 마음의 법계로 돌아가게 한 것인데도 도리어 글자의 차별에 집착하고, 거기에다 나약한 마음으로 삼아승지(三阿僧祇:보살이 부처되기 위한 수행절차. 또는 그 햇수를 말함)의 수행절차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은 성종(性宗)에 뜻을 두어 마음을 닦는 자가 아니다. 만일 이런 병이 있거든 당장 고치기를 바란다.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가까이서 뵌 큰스님

활안스님

조계산 천자암 조실

"한 생각 또렷하면 천지가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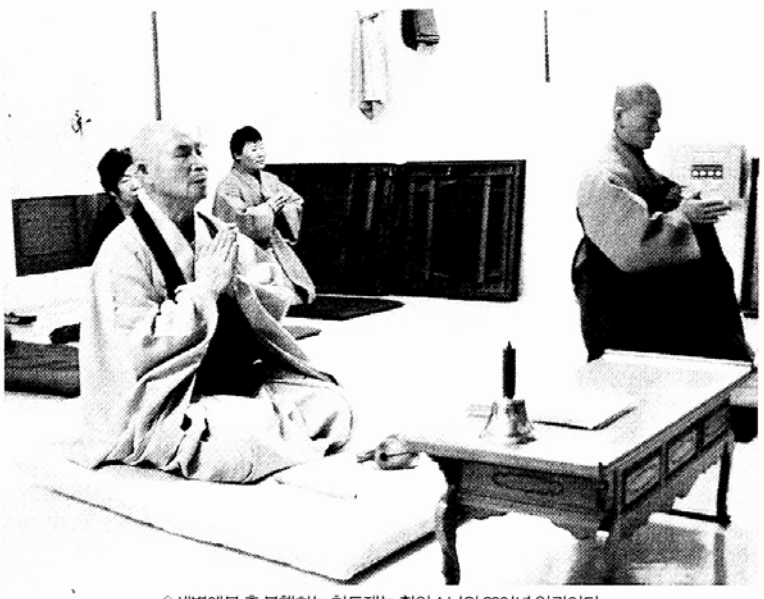
산에 오르며 지극히 당연한 의문 하나를 떨치지 못한다. 왜 산에 오르는 것일까. 지금이야 아스팔트와 시멘트로 평평해진 길이 부처님 모신 대웅전 앞까지 나있지만, 예전이 도량을 열었던 스님들은 속진을 멀리해 첩첩산중에 터를 잡았다. 그런데 속진에 물든 중생이 오롯한 암자를 찾는 연유는 무엇일까.

조계산 천자암. 고려말의 타락한 불교를 개혁하기 위해 수선결사를 열었던 보조국사 지눌스님의 자취가 서려 있는 암자이다. 천자암의 명듣인 쌍향수(雙香樹)는 보조스님과 당나라 왕자 출신으로 보조스님의 제자인 담당스님이 짚었던 지팡이라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산죽과 겨울바람이 어울어지는 조계산 중턱, 숨이 턱에 차고 다리가 삐걱해질 지경에 이르러서야 암자의 초입에 닿는다. 범종각과 법왕루 아래로 펼쳐진 첩첩한 산등성이가 아득하다. 다치 도반처럼 나란히 서 있는 800년 묵은 쌍향수는 여전히 푸르른 기상과 기품을 내뿜고 있다. 거기에 활안스님이 계시다.

활안스님은 새벽 2시면 어김없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 도량석에 나선다. 도량석부터 조석예불과 천도재를 주도하신다. 기자가 천자암을 찾았던 다음 날 새벽예불. 목탁을 치던 스님이 장갑을 벗지 않고 있었다. 바로 불호령이 날아갔다. "이놈, 법당에서 장갑을 끼고 목탁치는 놈이 어딨어. 이래 내놔라." 깜짝 놀란 젊은 스님이 허리를 굽혀 잘못을 빌고서야 잠깐의 소란이 가셨지만, 법도에 어긋남을 봤을 땐 그 자리에서 호통을 쳐서 바로 잡는다. 칠순 중반의 노구임에도 "젊은 날의 스님 사진을 보면 퍼렇게 날 선 도끼와 같다"고 말하는 후학들의 평이 전혀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서릿발같은 엄함이 있는 것만은 아니다. 저녁 공양 후 한 수행자가 질문을 드렸다. "스님, 유학(儒學)을 불교에서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새벽예불 후 봉행하는 천도재는 활안스님의 20여년 일과이다.



◇천자암 뒷산 감자밭을 일구고 있는 활안스님(99년 봄).

"행하지 않으면서 예까지 와서 길을 묻는가"

스님의 답변이 이어진다. 어린아이의 질문에 답하는 자상한 아버지의 음성이다. "유학에서도 인천(人天)의 도리를 설하고 있으니 공부해도 탓할 일은 아니지. 그러나 유학에는 가장 중요한 본성이 빠져 있어. 나라고 하는 놈이 빠져 있으니 조선 500년의 폐불이 있었고, 폐불은 어쩔 수 없는 유학의 흠이지."

천도재를 올리는 것도 스님의 새벽 일과다. 6.25 한국전쟁, 80년 광주의 5.18, 2차대전 때 학살당한 유태인 등 재앙으로 목숨을 버린 원혼들을 위로한다. 오전에는 방문을 걸어잠그고 참선에 든다. 2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과이다. 요즘은 간간이 붓을 들기도 한다.

"지금까지 참선과 기도로 살아왔고 수행자의 할 일이 참선과 기도 말고 무엇이 더 있겠어요. 깨달으면 부처이고, 미혹하면 중생인데 수행해야지요. 나이 먹었다고 수행자의 일을 놓아버리면 안 되지요. 특별하게 볼 일이 아닙니다."

다른 데서야 어찌 살았건 이곳에 와서는 객스님이나 기도하러 온 재가자의 일과도 이와 같다. 노스님이 직접 나서니 안 나설 수 없어 처음에는 어정쩡한 마음으로 따라하지만, 며칠 지나면 활안스님의 변치 않는 초심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다. 겨울 한철 활안스님을 모시고 살겠다며 천자암에 들어온 대범스님은 "요즘은 어느 절에 가던지 몸 편하게 날 수 있지만, 그러면 사람이 게을러지기 마련"이라며 "노스님 회상에 오니 환희심이 난다"고 말한다.

사립 몸을 굴려야 하니 게으름이 붙어다니게 마련이다. 활안스님은 백운산에서의 일화 하나를 꺼낸다. 하루는 나무하러 갔다가 낫에 손을 베였다. 피가 흥건했고, 신세한탄이 절로 나왔다. 이렇게 해야만 성불할 수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다. 저녁을 해먹고 참선에 들었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그런데 꿈에 큰 부처님이 스님을 팔베개로 안는 것이 아닌가. "너만 외로운 것이 아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제불성현도 타고난 기틀을 쓰지 못하면 다 녹슬어버린단다." 벌떡 일어나 부처님께 삼배하고 기필코 성불하겠다고 다짐했다.

"부처님께서는 나를 버리라고 했는데, 아상을 떨치기가 어렵습니다." 스님께 여쭈었다. "타고난 성품을 개발하면 대우주의 무한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없어요. 방법이 없으므로 생명의 결정권을 갖는 것이지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 아닌 듯하다.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과 역대 조사님들이 설해 놓은 방편이 수백 수천의 경전이고 어록인데, 행하지 않고서 예까지 와서 길을 묻는냐는 호통이었다.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물건의 본질을 온전히 설명하기도 불가능한데, 마음의 움직임과 깨달음의 경지를 다른 사람에게 말과 글로써 가르친다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되물음이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장가를 들었는데, 첫날밤에 색시가 지필묵을 내밀며 시 한수를 달라고 했어. 무식쟁이 신랑이 배운 게 없어 써줄 수 없었지. 그 길로 산 속에 들어가 10년 공부를 했어. 그렇게 하는 것이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면 누구든 밝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뼈에 사무치고 오장육부를 찌르는 대의심으로 화두를 챙기면 자신도 모르게 모든 잡념이 사라지고 한 생각만 또렷이 드러나게 되는 법이지."

이어 스님은 "운명을 바꿔쳐야 해. 법칙을 범하지 않되 자기의 뜻이 표준이 되어야 한

氣(마음)와 영혼의 신비한 세계
※ 본인들의 의식수준에 한해 개별적인 영가천도 능력 전수가 가능함

모습없는 모습으로 다가온 사람들

원장 윤정주 저서

진여(眞如) 氣 수련원

우리 인간만이 가질 수있는 초월된 정신세계에 관한 아름다운 체험 이야기로 그에 뒤따른 아름다운 마음의 묘법을 누구든지 소유할 수 있다는 이치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밝혀놓은 도깨비방망이 같은 책입니다.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도서출판 유림
전화 : 02-736-7148, 723-3856
팩스 : 02-736-7148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약사여래원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단 檀화 花'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지극정성 93일 인간의 건강이 금괘처럼 차곡차곡 쌓여 꽃처럼 만개하라는 범주스님의 소망이 담겨 지어진 검정콩의 이름이다. 선식콩 금단화를 만드는 방법은 스님의 비방으로 만든 액즙에 검정콩을 깨끗이 씻어 말린뒤 액즙에 20여일간 담그어 두었다가 꺼내어 10여일을 말린다. 이 과정을 거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달. 이렇게 3번 반복해 검정콩 금단화가 완성되기까지 무려 93일이나 소요된다. 콩은 '속퍼랭이콩'이라 부르기도 하는 서리태콩을 사용한다. 이 모든 과정들이 정성을 다해야만 하는 고달픈 작업이지만 그 과정자체가 죽어가는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한다는 신념때문에 힘든 줄 몰랐다고 범주 스님은 말했다.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상담문의 ☎ (02)3437-8282

레이키(Reiki)법이 왜 화제인가?

드디어 『박희준식』 레이키(Reiki)법을 확립해 국내외에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 누구나 그날부터 氣치료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레이키(Reiki)는 우주 창조와 만물의 조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근원적인 사랑의 생명 에너지이며, 이것을 질병의 치료와 생활의 다방면에 이용하는 법이 레이키법입니다.

이법을 처음으로 발견하고 개발한 사람은 일본의 우스이 미카오(1865-1926년)씨인데 현재는 미국을 거쳐 세계로 보급이 확대되어 전세계에서 1억명 이상의 인류가 이미 이것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세계 1백개국에 보급되고 있는 21세기 「氣의 과학」이기도 합니다.

레이키법에는 어튜먼트라는 비법이 있기때문에 누구나 그날부터 氣치료 능력자(레이키 요법가)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박희준)는 동양의 天人相應의 원리를 이용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마음 수련에 힘쓴 결과 이 능력을 더욱 높여 세계 굴지의 어튜먼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슨 병이나 잘 나을 정도로 힐링 파워(치료 능력)도 높아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공수련을 했어도 氣치료 능력자가 되지 못했던 분이나 더욱 치료능력을 보강하고 싶은 분은 주저말고 오십시오.

교육대상 : 의료 건강 분야 종사자, 호스피스 봉사자, 환자나 그 가족, 일반 국민
교육단계 : 제1-제3단계, 3일정도 소요.
교 육 비 : 전수요금 70만원

현대생활 레이키연구회
전화 : 02)720-5682/725-2311 팩스 : 725-2312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Reiki.co.kr

현대불교신문사 구독문의
0二-七三七-八八八一

활안 스님은

오로지 참선수행

천자암서 후학 이끌어



1926년 전남 담양에서 태어났다. 열세 살 되던 해 부모를 여의었으며, 몸이 퉁퉁 붓는 병을 얻어 3년여 동안 병치레를 했다. 이때 "아무런 죄도 없는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지, 천지성현께 따지겠다"는 생각을 했다.

출가 전에는 함경도 성진의 한 군수공장의 공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그러다 인생을 크게 바꿔야 한다는 생각으로 월정사에 들어갔다. 스무 살 때였다. 2년 후 월산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58년에는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오대산 상원사 청량선원, 지리산 칠불암, 범어사, 용화사 등 제방의 선원에서 40안거를 성만했다.

75년부터 조계산 송광사 산내암자인 천자암에 주석하며 후학들을 이끌고 계신다. 법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맞아들인다. 99년에는 조계종 원로의원으로 선출되어 종단의 한 구심점을 이루고 있다.

전쟁원혼 천도재

20여년 계속된

스님의 새벽일과

다"고 툭 한마디를 던졌다. 이 말씀에 문득 경허스님의 일화가 떠올랐다.

젊은 스님이 노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경허스님이 답했다. "그대 마음 속에 일어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게. 착함이건 악함이건 하고 싶은 일이면 무엇이든지 다 하게. 그러나 털끝만큼이라도 머뭇거린다든가 후회 같은 것이 있어서는 안 되네. 망설임과 후회만 따르지 않는다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하게. 바로 이것이 산다는 것일세."

요즘 며칠 동안 감기를 앓아 몸이 편치 않았는데, 치아까지 심술을 부려 오랜만에 광주에 다녀왔다고 말씀을 이어갔다.

"내가 세상을 거튼히 이겼는데 치통은 이기지 못하겠더라구. 그래서 병원에 다녀왔지. 치과원장한테 '내 입의 주인은 당신 아닌가' 고 말했다"며 크게 웃음을 지었다.

활안스님은 스무 살 되던 해인 1946년 월정사로 발심 출가했다. 외숙모에 이끌려 석 달 동안 스님의 법문을 들고는 바로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는 환희심이 들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큰 병까지 앓은 터여서 삶에 대한 의문이 컸던 시기였다. 2년 후 월산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고 서른세 살 때 자운스님을 은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이후 상원사 청량선원과 지리산 칠불암, 범어사, 용화사 등 제방선원의 선지식을 찾아 40안거를 성만했다.

'생멸미생전 시심마' (生滅未生前 是甚麼, 나고 죽는 이전의 나는 이뭣고)를 화두로 삼아 일념으로 정진했다.

워낙 철저한 수행이어서 오히려 대중들의 화합을 깰까 걱정이 들 정도였다. 한번 좌복에 앉으면 방선은 물론 공양시간을 넘기기 일쑤였다. 독살이를 저어했지만 광양 백운산에 움막을 짓고 생사를 걸었다. 백운산에서의 수행 4년만에 오도송을 읊었다.

通玄一喝萬機伏
言前大機傳法輪
法界長月一掌明
萬古光明長不滅

(스님께 뜻을 물었으나, "알도록 공부해라"는 한마디를 주신다. 우리말 풀이는 기자의 소행이다.)

통현의 할에 은갖 근기 굴복하니
한 생각 이전의 큰지혜로 법륜을 전함이로다.

법계를 비추는 달 손바닥을 비추니
만고의 빛은 다함이 없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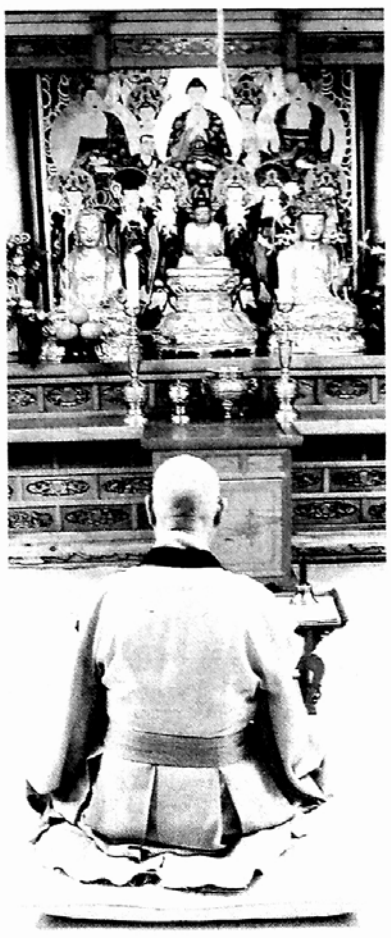
이즈음 송광사 구산스님에게서 전갈이 왔다. "천자암을 지킬 이는 스님뿐이니 천자암에 계세요."

매일 새벽 예불 때마다 날이 밝으면 백운산으로 돌아가야지 했는데 어느덧 스물다섯 해가 훌쩍 지나갔다. 당시 뼈대만 남았던 천자암을 누가 와서 살아도 큰 불편은 없도록 그럴듯한 도량으로 가꿔놨으니 이제는 언제든 떠나도 홀가분하다는 생각이다.

후학들과 신도들을 위해 흔한 법어집 한권 내는 것도 가당찮은 일로 여긴다. 어록은 가르침이 될만한 말씀을 모아 후학들이 펴내는 일이니 당연하다. 언어로 표현되기 이전 또는 언어 너머의 경지를 문자라는 틀로는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 스스로 체득할 수밖에 없는 경지를 어찌 말과 글로써 전하려 하겠는가. 개구즉착(開口卽錯), 입을 열어 혀를 놀리는 순간 뜻을 그르친다고 옛 어른들이 경계하지 않았던가. 그래도 거듭 여쭙자 부득이 했던지 말씀은 하시지 않고 또다시 게송으로 대신했다.

打破柱杖一塵山
三世佛祖失鼻孔
若人頓見有轉身
百草頭上無邊春

주장자 내리치니 티끌 산이 무너지고
삼세의 부처 조사 콧구멍을 잃었네.
누구라도 단박 깨쳐 부처 이루면
온갖 생명 피어나 천지가 봄일러니.



◇언제나 새벽예불로 하루를 시작한다.

"봉우리 선 모습만 머리에 차 있지 고개 넘고 내 건널 생각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대뜸 종문제일서(宗門第一書)로 꼽히는 〈벽암록〉의 저본격인 〈설두백칙송고(雪竇百則頌古)〉를 편찬한 설두스님의 일화를 꺼낸다.

"〈송고〉는 선문답과 설화, 일화 100가지를 모아 이에 대해 설두스님이 자신의 견해를 운문의 형식(頌古)으로 서술한 책인데, 설두스님은 이 〈송고〉를 쓰며 한 줄 쓰고 한 번 절을 했어요. 조사님네의 뜻을 그르칠까, 후학들에게 길이 될 수 있을까 했던 노심초사의 발로이지요. 요즘 글쓰는 사람이나 학자나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순서없이 마구 튀 줄만 알았지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방향이 없어요. 먼저 할 일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할 일을 먼저 해놓고 남을 원망합니다. 산봉우리에 선 모습만 머리에 꽉 차 있지 고개를 넘고 내를 건너는 다리품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종교를 믿는 사람들마저도 다르지 않아요."

무릇 일거수일투족이 철두철미해야 한다는 일갈이다. 우리 몸이 우주를 품고 있듯,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정성을 다 하면 우주가 감응하는 이치를 밝혀준 말씀에 다름 아니다.

아무래도 범부중생인 기자에게는 어려운 가르침이다. 글자풀이에만 매달리니 "한 호흡 내쉴 때 천지를 살려내고, 한 호흡 들이쉴 때 천지의 생명을 거둬들여 마무리한다"는 노스님의 깊은 뜻을 종잡을 수 없다.

해우소 문짝 십육절지에 '활안 합장' 하며 붙여놓은 '보왕삼매론'의 가르침이 더욱 간절한 게 솔직한 심정이다.

"복은 검소함에서 생기고, 덕은 겸양에서 생기며, 대도(大道)는 안정에서 생기고, 근심은 애욕에서 생기며, 허물은 경망에서 생기고, 죄는 참지 못하는 데서 생기느니라. 눈을 조심하여 그릇됨을 보지 말며, 입을 조심하여 이 되지 않는 일에 부질없이 시비하지 말고, 항시 참되고 너그러운 말을 할 것이며, 몸을 조심하여 그릇된 자를 멀리 하고, 어질고 착한 사람을 가까이 하라. …."

글 · 정성운/사진 · 고명배 기자
(swjung@buddhapia.com)

정운스님의 스님이야기 — 혜원스님



동국대 교수 혜원 스님은 아주 아주 어릴 때 출가한 동진출가인이다

5살때 은사스님이 어머니인줄 알았고 법당에 계신 부처님이 아버지인줄 그렇게 알았단다. 남부럽지 않은 은사스님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어린 시절을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 못지 않게 밝게 자랐다. 그래서 혜원스님은 재능과 특성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도와주신 은사스님의 은덕을 늘 잊지않고 지금도 고인이 되신 은사스님을 위해 기도한다. 우리 나라의 50년대는 어떠했는가. 아니, 절집의 50년대는 어떠했는가. 공부보다는 먹고 살기 위해 동냥을 다녀야했던 시기였고, 또 염불이나 익히고 절집 공부가 전부였던 시대였는데 스님의 은사스님은 혜원스님에게 학교공부까지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절 집에서는, 절집 공부 외 다른 공부를 하는 것은 세속으로 가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당시 어른스님들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동진출가 스님들 대부분은 단계적인 학교공부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허다했다. 혜원스님의 은사스님은 그래도 생각이 열린 분이 아니셨는가 생각이 든다. 또 혜원스님의 재능이 탁월했고, 남다른 영특함이 보였기 때문에 유학도 보내고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하신 것 같다.

언제나 책상앞에 앉은 모습

겸손하고 인정많은 스님

내가 강원을 다닐 때 혜원 스님은 이미 모든 이력을 마치고, 명성여고 윤리학 선생으로 아이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내가 강원을 졸업하고 내원사 선원에 있을 때는 대학에 출강을 하고 있었다. 나와는 다른 길을 가는 그런 도반이었다. 그러나 길은 다르게 가지만 우리는 자주 편지로 서로의 생각과 안부를 전하고 서로 시간이 맞으면 가까운 곳으로 여행도 하는 지기(知己)였다. 가끔 보내온 편지에서 스님은, 자신의 공부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보시행을 하기 위한 포교를 강조했고, 서울로 올라온 나에게 학교 공부를 할수 있게끔 많은 배려를 해 주었다. 사실 그때만 하여도 혜원스님에 대해서는 겉으로 나타난 외형적인 모습과 가끔 만나 나는 정담이 전부였지, 알 것 모를 것 다 아는 그런 도반의 관계는 아니였는데도 스스럼 없이, 먹고 지낼수 있는 것 외에 교통비, 때론 용돈까지 주셨다. 그때 혜원스님이 기거했던 세검정 소림사에는 나뿐만 아니라 학원이나 학교 다니는 스님들이 함께 기거했는데 혜원스님의 적지 않는 배려를 입고 있었다.

서울인심이 시골인심보다 매서운 곳임에는 절집의 서울 인심도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혜원스님은 공부하겠다는 스님들에게 이 정도도 해주지 못한다면 절집밥을 먹을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성의껏 베풀어 주었다. 혜원스님은 외모에서 풍기는 여성스러움과는 달리 의욕이 아주 강하고 추진력도 있으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다. 스님은 교수라는, 사회적으로 직책높은 명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직책을 과시하거나 남용하지 않는다. 배운 만큼 고개숙이고 겸손할 줄 아는 스님, 인연이 되면 어떤 사람이건 꼼꼼히 챙기고 자기 것 인양 마음 아파할 줄 아는 스님이다

나는 혜원스님의 학문의 깊이는 잘 모른다. 또 어떤 모습으로 교단에 서서 강의를 하는지는 잘 모른다. 헌데 몇 해전 일이었다. 청소년지도자 교육이 있어 한달 가량 스님의 토굴에서 신세를 졌던 일이 있다. 잠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 그때는 그것이 왜 그리도 부끄러웠는지 모른다.

스님이 강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이 일정치는 않았지만 대부분 밥 먹는 시간외에는 책상 앞에서 다음날의 강의 준비와 번역에 몰두하고 있었다. 또 내가 아침에 일어 나 보면 어느새 일어났는지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있다. 도반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아침준비까지 완료해 놓고 기다리고 있으며 혹 내가 불편해 할까봐 공부하는 틈틈이 나를 챙겨



주었다. 도대체 잠을 몇 시간 잘까 궁금해 하루는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을 몰래 체크 해보니 겨우 4시간정도 자는 듯 싶었다. 나도 부지런한 사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했는데 혜원 스님의 하루 일과를 보고는 부지런하다고 자부하던 내가 부끄러웠다.

스님은 잡문을 잘 못 쓴다고 누누히 말하고 또 글을 여기저기 잘 게재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가끔 보내오는 스님의 편지를 읽노라면 누가 시인인지 수필가인지도 모를 만큼 가슴에 와 닿는 내용이 많아 무디어져 가는 내 시심의 밭에 큰 자양분 역할을 하기도 한다. 꿋꿋하게 자기자리에서 최선의 모습으로 오늘의 불교, 아니 내일의 불교를 다듬어 가고 있는 그 모습, 후학들을 위해 무언가 힘이 되겠다는 그의 서원은 오늘도 한치의 게으름을 용납하지 않는다.

오랫동안 달려온 시간이 무겁다고 때론 아우성칠 줄 알고, 세월만큼 무르익지 않는 학문에 대해 회의도 느낄 줄 알고, 불교 안팎의 문제에 분노를 표현할 줄도 아는 스님이 혜원 스님이다. 그러한 스님이 굳세게 버티고 있는 한 우리 불교의 앞날은 밝을 것임에 틀림없다. 圖 세원사 주지

四柱推命學情解書
韓國人의 新 사주팔자
누가 운명(運命)을 논(論)하고 숙명(宿命)을 운운(云云) 하는가!
독학으로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21C 역학 지침서!
인간(人間)은 누구나 다 행복을 追求한다.
인생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자신의 운명(運命)을 알고 그 運命에 대하여 대처(對處) 한다면 흉화(兇禍)의 액(厄)을 면(免)하고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로 바뀌지 않겠는가 .

청산 김성진 지음
신국판/양장본
값30,000원
전국 서점 판매중!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저자는 생기론(땅기운)을 한국최초로 발견하였다.
국내 제일의 풍수지리서이다!
새 천년 새 풍수를 잡아라.
◆ 땅의 비밀(秘密)을 소개(紹介)한다.
1. 땅은 길지(吉地)와 흉지(凶地)로 나누어져 있다.
2. 집터(陽宅)와 묘터(陰宅)는 좋은(吉地)터와 나쁜터(凶地) 땅기운이 흩어진다.
4. 나쁜 집(凶宅)터에서 살면 각종 질병(各種疾病)이 발생한다.
5. 그러므로 땅에는 명가(名家)와 흉가(凶家)가 있다.
6. 우리는 땅에서 나온 식물(植物)의 열매를 먹고 산다.
7. 그러므로 땅은 만물(萬物)의 어머니이다.


대도 김응식 지음
신국판 양장본 값 30,000원

신비의 꿈해몽 꿈풀이 삶풀이 대백과
새천년 새꿈
『신비의 꿈해몽 그 베일을 벗긴다』
화제의 신간
꿈이란 무엇인가?
이 책은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꿈해몽 비법과 21세기 최첨단을 달리는 현대 과학에 이르기까지 꿈에 관한한 모든 내용을 총망라하여 누구나 다 알기 쉽게 이해되고 찾아볼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 책의 구성 〈꿈이란 무엇인가(길몽 흉몽)〉〈태몽, 그 출생의 비밀〉〈꿈풀이 삶풀이〉
■ 부록 〈결혼 부부궁합〉
장현우 박사 지음/신국판 /값 17,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

지금 절실이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어쨌든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A5신/양장본 값 40,000원

관음역서 시리즈
1. 체서 명리진평 신국판/체서 조영수 편저/정가 30,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체서 조영수 편저/정가15,000원(大) 신국판/체서 조영수 편저/정가 10,000원(小)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12,000원(大)
4.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 김응식 저/정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40,000원
6. 그림 당사주 대전 신국판/이선완 전호일 공저/정가 25,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설심부 신국판/양장본/申坪 /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법룡博士 /정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법룡博士 /정가 15,000원
11. 신토정비결 신국판/백광 지음 /정가 8,000원
12. 사주임상록 신국판/양장본 이상욱 지음 /정가 25,000원
13. 전통풍수지리 월계관 신국판/양장본 진상백 저 /정가 30,000원
14.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신국판/김윤중 편저/정가 15,000원
15.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 양장본 김성진 저 /정가 30,000원
16. 신비의 꿈해몽 꿈풀이 삶풀이 대백과 신국판/ 정현우 저 /정가 17,000원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5광성B/D 3층T.921-8434 F.929-3470

금강불교대학 2545년(2001) 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
본 대학은 국내최고의 교수진으로 3년간 22과목을 가르치는 국내 최고의 불교교양대학으로써 한국 불교중흥에 이바지 할 천태종 종립교육기관입니다. 입학의 문은 불교신도가 아닌 누구에게도 열려 있으며, 수업료는 종단에서 지원합니다.
1. 모집학과 및 전형

학과과정	지역(기수)	교육년한	교과목	교육일시	지원자격	특전
불교학과	서울(19기) 부산(14기)	2년	1학년 불교학개론, 불교문화사, 인도불교사, 불교문의 원시불교, 금강경, 중국불교사, 한이사상 2학년 한국불교사, 법화불교, 정토사상, 비교종교론, 대승불교론, 선사상, 천태학개론 불교심전도이해	1학년 매주 월 화 2학년 매주 목 금 1교시 오후 6시30분 - 90분간 2교시 오후 8시 -90분간	고졸이상 학력소지자 및 2000학년도 졸업 예정자 천태종 종무원장 또는 주지의 추천인	수업료 종단지원 교법사과정 진학 자격취득
교법사과정	서울(8기) 부산(8기)	1년	포교방법론, 천태종학, 불교학특강, 포교실습, 유식사상, 육묘법문, 불교의식, 의식교육	매주 수 목 1교시 오후 6시30분 - 90분간 2교시 오후 8시 - 90분간	1 본대학 2년 수료자 또는 2 불교전문 교학과정 2년 과정의 수료자	수업료 종단지원 포교사 자격증 수여

학과	모집정원	원서교부 및 접수	제출서류	원서료 및 전형료	전형방법	면접일시
불교학과	서울 부산 각 120명	가 기간 2000년 11월 13일부터 2001년 2월 5일 오후 4시까지 나 접수처 서울 부산 금강불교대학 교무과	가 입학원서1부(본교 소정양식) 나 주민등록등본1통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라 반명함판사진 5매(원서봉표함)	가. 원서료 5,000원 나. 전형료 10,000원	가 1차 서류심사 나 2차면접	서울 2001년 2월 21일 (오후4시) 부산 2001년 2월 13일 (오후6시)
교법사과정	서울 부산 각 50명		불교학과 구비서류 + 본대학2년 수료증명서 또는 불교전문교육과정 2년 수료증명서1통	가. 원서료 5,000원 나. 전형료 20,000원		서울 2001년 2월 21일 (오후4시) 부산 2001년 2월 22일 (오후6시)

2. 교수진 소개 (불교계 국내 최고의 정상급 교수진)
이재창 원의범 정태혁 김영태 리영자 권기종 서윤길 장충식 김상현 조용길 이봉춘 강동균 곽만연 권탄준 김용표 이은윤 최봉수 김사업 장휘옥 최종석 허경구 지창규
3. 대학위치
서울 : 서울 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56번지 관문사내
- 양재역 성남방면 7번출구 마을버스 5, 6번 버스
- 강남역 6번출구 414번 버스
부산 : 부산광역시 진구 초읍동 131번지 삼광사내
- 어린이대공원 인접지역에 위치함
4. 원서 교부 및 문의처
서울 금강불교대학 교무과 (서초구 우면동 관문사 2층)
전화 : 02-576-6401-2 팩스 : 02-574-1541
부산 금강불교대학 교무과 (부산진구 초읍동 삼광사 지관전 1층)
전화 : 051-808-0730 팩스 : 051-819-7654
대한불교 천태종 금강불교대학장



◇대표적 지역 문화행사로 자리잡은 충북 진천 보탑사 산사음악회 모습(지난해 7월5일).

2001 지역문화의 해
THE YEAR OF REGIONAL & CIVIC CULTURE

불교가 중심이 되자

사찰 특성 맞게 문화 행사 개발

문화관광부가 올해를 '지역 문화의 해'로 선포한 것은 지역간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 지역의 문화적 전통을 새롭게 조명해 재창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다.

지금까지 지역 문화는 우리 사회의 정치 · 경제 · 문화 전반에 걸친 중앙집중에 의해 '촌스런 문화' 쯤으로 치부된 게 사실이다. 거기에 더하여 급격한 산업화와 교통 · 통신의 발달로 지역 나름의 문화적 독창성을 제대로 유지하지도 못했다.

4일 문화관광부와 '2001 지역 문화의 해' 추진위원회는 10대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를 갖고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바탕 그림을 제시했다. 18일부터 이틀간 대전에서 열릴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지역 문화 컨설팅 지원 사업, 지역 문화현장 탐방, 지역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 향토문화강좌 상설 운영, 종합 웹사이트 운영 등을 올해 중점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다.

추진위원회가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은 문화 컨설팅이다. 추진위는 3월까지 지역문화 컨설팅팀을 구성해 각 지역 문화 행사 기획과 운영, 홍보는 물론 문화공간 운영, 시설, 디자인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자문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시 · 군 단위 이하 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 특성화 프로그램을 발굴, 전국적으로 100여 개의 사업을 선정해 지속적인 지역 문화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방침이다.

그러나 지역 문화에 대한 개념조차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제대로 지역 문화 육성이 이루어지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추진위는 18일 전국의 지역 문화 전문가와 활동가 100여 명을 초청해 지역 문화 발전방향에 대한 '백가쟁명'식 토론회를 열어 이후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짧은 기간에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또 지역 문화 현장탐방이나 소규모 특성화 프로그램 발굴 ·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원칙 천명 수준에서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하고 있다. 사업 시행도 빨라야 3월부터 이루어져 출발부터 느슨하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조계종의 경우 올해 봉축행사를 '지역 문화의 해' 사업과 연계해 추진 중이나 추진위로부터 "아직 구체적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답변만 듣고 있다.

때문에 오히려 교계에서 먼저 지역 문화의 알맹이를 채워주는 일을 해 보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문화에서 사찰을 중심으로 한 불교 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 보면 더욱 필요성이 커진다. 각 지역 사찰의 특성에 맞는 문화행사의 개발은 문화포교의 활성화도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조계종 포교원과 24개 교구본사가 올해부터 지역사회와 사찰이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지역 불교 활성화 사업을 펼치기로 해 이러한 전망을 밝게 한다. 전국의 사암연합회와 사찰들도 '지역 문화의 해'에 발맞춰 지자체와 지역 전통축제를 공동주최하는 등 지역불교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단순히 축제 하나를 더 만드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타 지역과 차별성을 가지면서도 지역민이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역 문화'로 뿌리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될 때 불교는 생활 속에 녹아들어 21세기에도 여전히 시대를 이끄는 종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권형진 기자(jinny@buddhapia.com)

수묵화 애니메이션 비디오

'피리부는 목동' 나왔다

목동이 소를 타고 강을 건넌다. 고집 센 소는 장난꾸러기 소년의 피리소리에 금세 친구가 된다. 나뭇가지에 기대어 잠든 소년은 꿈 속에서 그만 소를 잃어버린다. 소년은 산 넘고 골짜기 건너 소를 찾아 헤맨다. 마침내 소년은 대나무 피리를 불고, 그 소리를 들은 소는 소년에게 돌아온다.

각종 영화제 등을 통해 국내에도 잘 알려진 '피리부는 목동'이 비디오로 출시됐다. 수묵화 애니메이션이란 독특한 기법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중국 상하이 미술영화제작소의 테 웨이 감독 작품이다.

피리소리에 실린 소년과 소의 우정을 다룬 이 작품은 여백의 넉넉함 속에 담아낸 섬세하고 풍성한 감동과 정갈한 영상미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처음 선을 닦게 된 동자가 '본성'이라는 소를 찾기 위해 산중을 헤매다가 마침내 그것을 깨닫게 되는, 심우도의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작품을 보다 보면 움직임을 구성하는 그림 하나하나가 모두 수묵화라는 점에 탄성이 절로 나온다. 화선지 위에 붓으로 그린 뒤 다중촬영을 하는 기법으로 제작됐다. 화선지에 먹이 번져나간 자국이 그대로 살아 움직이고, 먹의 농담으로 표현한 세세한 움직임까지 잡아낸다.



◇비디오로 출시된 '피리부는 목동'

대사 한마디 없는 19분 21초 짜리 단편이지만 새소리, 물소리, 목동의 피리소리와 수묵화가 어우러져 만들어낸 수묵화 특유의 서정적 영상미는 정서적 공명을 최고조로 끌어 올린다.

63년에 제작된 이 작품은 81년 도쿄 중국만화영화전에 출품되면서 '동양의 정서와 미술전통을 되살린 작품'으로 극찬받았고, 덴마크 국제 아동영화제 금상, 인데르센상 등을 받았다. 배급 판매원 씨네비디오. 02)747-8383

권형진 기자

"전통음악 바탕 불교음악 현대화"



대구 국악단 예술감독 **박상진 교수**

"서양음악을 바탕으로 한 불교음악은 결국 서양음악의 변주일 뿐입니다. 불교음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통음악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창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박상진 교수가 대구 시립국악단의 새 상임지휘자 겸 예술감독으로 임명됐다. 서울대 국악과를 졸업한 김 교수는 서울 중앙 국악관현악단과 전북도립국악관현악단 지휘자를 지냈으며 95년부터 동국대 불교문화대학 국악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지역 토속민요 연구를 통해 국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려는 그간의 노력이,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시립국악단의 분위기와 맞아떨어진 것 같다"고 밝힐 만큼 김 교수는 일찍부터 국악의 대중화와 현대화에 매달려 왔다. 그런 만큼 김 교수의 노력은 철저하게 '우리 것'을 바탕으로 한다.

김 교수와 불교음악의 인연은 20년이 넘는다. 작곡가 고 서창업 선생과의 인연으로 79년 바라밀다합창단 지휘를 맡았고, 불광마하보리 어머니 합창단과 현태종 금강합창단을 창립했다. 지금은 부산 삼공사 합창단 지휘를 맡고 있다.

직접 작곡한 성악곡이 10여 곡, 국악관현악곡도 여러 곡 만들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스케일이 큰 곡보다 소곡에 관심이 더 많다. "보여주는 음악은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부르고 연주할 수 있는 찬불가, 앞으로 그런 곡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권형진 기자

銅鏡 다양하구나

가나아트센터 22일까지 '고려동경전'



◇소문경



◇쌍봉여월 단난팔능경



◇십이지 이십팔수경

화장용구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게 거울이다. 지금이야 유리로 만든 거울이 보편화됐지만, 근세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 조상들은 동판의 표면을 다듬고 문질러 얼굴을 비춰봤다.

그러나 동경은 단순히 얼굴을 비춰보는 도구가 아니라 '마음의 거울'이었다. 무덤이나 탑의 사리장엄구 속에 동경을 넣기도 하고 뒷면에 갖가지 문양과 길상어, 교훈적인 글귀를 새긴 것도 이 때문이다. 때로는 불보살을 새겨 넣어 호신불로 삼기도 했다.

22일까지 서울 평창동 가나아트센터 공예관에서 열리는 '고려 동경전'은 동경 뒷면에 새긴 문양을 통해 당시의 생활상과 고려인들의 사상, 감정을 느껴볼 수 있는 전시회다. 연화파문경, 쌍용보화문경, 범어연화문음각경, 종형경 등 고려시대의 동경 300여 점이 전시된다.

동경은 원형만 있는 게 아니라 꽃모양, 탑모양, 종모양 등 그 형태도 다양하다. 뒷면에는 인간, 꽃, 풀, 나무, 새, 십이지신 등을 새겼으며 때로는 신화나 전설을 상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거울 하나에도 나름의 뜻을 담아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옛 사람들의 지혜가 절로 묻어난다. 02)720-1020

권형진 기자



◇지난해 5월 공연됐던 '그림으로 못다한 동승의 노래-풍경'의 한 장면.

심장병 어린이돕기 '풍경음악회'

15일 진주 경남문예회관

음악과 시, 이야기가 함께 하는 독특한 형식으로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던 '그림으로 못다한 동승의 노래-풍경'이 새해 다시 무대에 오른다. 15일 오후 6시 진주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원성스님 초청 작은 음악회', 이번엔 심장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자비의 마음을 담았다.

심장병이나 그 밖의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설립한 감로심장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지난해 부처님오신날 공연을 그대로 옮겼다. 수원포교당 가릉빈가 소년소녀합창단과 원성스님이 함께 하고 진주아버지합창단, 노영심, 진주시립관현악단 현악5중주팀이 힘을 보탠다.

'풍경'은 원성 스님의 시에 유익상, 이종만, 정유택 씨 등 탄탄한 역량을 갖춘 젊은 작곡가들이 곡을 붙여 만든 무대. 정례화된 형식을 벗어나 음악과 영상, 시와 그림이 만나는 실험적 무대로 호평을 받았다. '깨달음의 네가지' '출가' '열린 마음으로의 삶' 등 2막 4장으로 구성돼 있다. 055)747-0106

권형진 기자

미 수 타
반도체 안전 전구
반도체 안전 인등

그엣날 미수타 여인의 마음과 같이, 정성으로 제품생산 및 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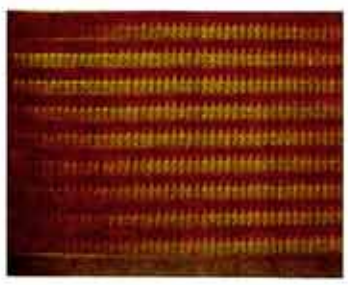
◎ 주문
전화 : (031) 791-8871
011-9996-8872
주소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74-20

◎ 주문시 전구간격
기존은 2주전 주문(33cm, 30cm, 25cm)
특수 규격은 3주전 주문하여 주십시오.

◎ 제품특징
○ 기존 전기적인 방법을 전자화 시켰습니다. 법당 천정에 220볼트가 아닌 저전압 5볼트로 공급됩니다. (발열이 없으므로 화재예방)
○ 0.4w 절전형 (기존 10w의 25분의1 전력소모)
○ 설치후 전구를 교환하는 번거로움이 없음.
○ 인등은 수량에 관계없이 밝기가 일정 합니다.

전 구
인 등





◈ 현재 같은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저희 TG반도체 문은 항상 개방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방문하여 주십시오.
◈ 지역대리점에 뜻이 있는 분은 전화 주십시오.
충남1, 전북1, 전남1, 경남2, 경북2 서울 경기 2
◈ 본 미수타 반도체 전구와 미수타 반도체 인등은 상표, 실용, 의장, 유사방지의 각각 법에 의하여 지적 재산권에 보호을 받는 제품입니다. (상표 외에 총 10건)

강원, 충북대리점
원주 (033) 764-9396

TG 반도체

氣『로박요법』효과가 뛰어납니다!!


氣로박파스 (1)
종류 : 허리용
수량 : 10개
가격 : 20,000원


氣로박파스 (2)
종류 : 무릎, 기타용
수량 : 10개
가격 : 20,000원


氣메달 (1)
종류 : 건강
수량 : 1개
가격 : 87,000원


氣메달 (2)
종류 : 건강
수량 : 1개
가격 : 130,000원


부착용
종류 : OMC
수량 : 1개
가격 : 24,000원


매트
종류 : 특수매트
수량 : 1개
가격 : 800,000원

반도체 칩을 이용한 새로운 氣 요법
■ 현직의사가 개발하였습니다.
■ 부작용이 없고 단기간 효능 확인
■ 전국병원 한방병원 납품 중


종합 세트 가격 : 210,000원

氣는 인체 세포가 전기적 균형을 잃으면 비정상세포가 통증을 유발하는데 음(-)의 氣를 체내에 침투시켜 生氣를 발생,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히 해주고 세포내 응혈을 방출시켜 몸에 氣力과 活力을 넣어 줍니다.

韓國氣研究院 02)455-6944 02)453-5851

■ 몸이 불편하신 스님은 방문하시면 무료로 봉사해드립니다.
- 특약점 영업하신 분 (기공수련자, 수지침, 뜸법, 간병치료자)모집
■ 책자 : 전화를 주시면 「우리집 주치의 로박요법」과 Tape을 보내드립니다.



뼈에 좋은
토종 홍화씨
갱년기 골다공증, 연골이 약한 분, 퇴행성 노인분, 기타 뼈가 약하신 분
1달:150g 45,000원
* 최신 개발된 과립분은 위장장애가 없고 흡수가 잘 됩니다

30년 포교 노하우로 미래불교 씨 뿌려요



'포교의 대모(?)'로 불리는 성일(화성 신흥사청소년수련원장) 스님이 최근 〈청소년 포교지침서〉(불광)를 끝으로 '포교지침서 시리즈'를 완간했다. 이 시리즈는 성일 스님의 포교 결정체라 할 정도로 30여 년의 포교활동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청소년 수련원을 개원, 27년 동안 새싹불자들을 위해 법회, 수련회 등을 개최해왔지만 스님의 포교 영역은 어린이에서부터 청소년 성인까지 폭넓다. 스님이 펴낸 포교지침서 시리즈는 94년 내놓은 〈어린이 불교학교 지침서〉(불광)를 비롯 〈신도 포교지침서〉(상·하, 불광), 〈청소년 포교지침서〉(불광) 등 모두 3종이다.

-포교지침서 시리즈를 내게 된 이유는.

"포교는 불교의 밝은 내일을 위한 씨앗을 심는 일이다. 지금 포교를 하지 않으면 불교의 내일은 보장받을 수 없다. 이 포교지침서 시리즈는 책을 내겠다고 해서 나온 것은 아니다. 포교를 하면서 얻은 좋은 프로그램을 나 혼자 갖고 있기는 아까워 시작했다. 책이라기보다는 포교현장에서 건져올린 자료 모음집이다.

-이번 〈청소년 포교지침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지난 27년 동안 청소년 포교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불법을 잘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포교현장에 쏟아 부었던 결과물들이다. 청소년 법회를 이끄는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설법, 놀이문화 등 수련법회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정리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 포교에 대한 올바른 체계가 확립되고, 청소년들이 부처님 곁으로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다.

-포교에 뛰어든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

수원교도소에 수감중인 한 재소자가 보낸 "좀 더 일찍 부처님 법을 만났더라면 살인죄를 짓지 않았을텐데…."라는 내용의 참회 편지를 받고부터다. 그때 부처님께 서원했다. 내 성불 한 생을 늦추더라도 이 생은 포교에 전념하겠다고.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불교는 다방편의 종교다. 교리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고 전하는 사람의 방편이 잘못되면 그 본래 의미가 퇴색된다. 근기에 맞게 잘 적용해야 한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련회를 실시하면서 절실히 느꼈다. 새싹불자들에게 부처님 법을 가장 쉽게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극이다. 이번 겨울 수련회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인기있었던 것이 연극이다. 조만간 불교설화를 바탕으로 한 연극 및 촌극 대본을 책으로 묶어낼 생각이다. 청소년들이 싫증내지 않고 부처님 품안에서 즐겁게 놀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청소년 포교라고 생각한다.

김중근 기자

책과 삶

포교지침서 시리즈 완간

성 일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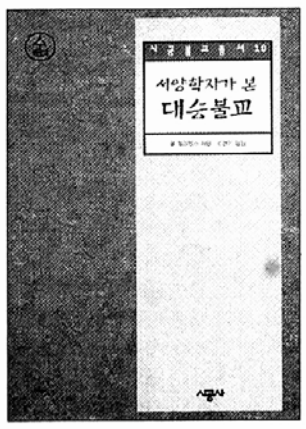
"부처님 품서 놀게" 새싹불자 포교 비결

"대승불교 생명은 끝없는 혁신"

'서양학자가 본 대승불교' 윌리엄스 지음

대승불교의 여러 측면에 대한 우리 학자들의 연구와 저술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학문적 깊이는 아직 걸음마 단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힘들다고 한다. 그렇다고 유아기적 단계에 있지도 않다.

그렇다면 서양불교학자의 대승불교에 대한 학문적 깊이는 어느 정도일까. 최근 출간된 <서양학자가 본 대승불교>(시공사, 조환기 옮김)가 그 의구심을 풀어준다.



교리-수행 접목 개론서 깊고 예리한 분석 눈길 "대승불교 뿌리는 승가"

이 책은 서양의 불교학자가 쓴 대승불교 개론서다. 글쓴이는 영국 브리스틀대학 종교학과 인도-티베트 철학교수인 폴 윌리엄스. 그는 인도 대승불교의 '일체 중생을 구제한다'는 목표에 이르기 위해 인도와 동아시아 불교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는가를 탐구한다. 그는 연구 초점을 대승불교의 탄생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중국 티베트 일본의 사상과 역사에 맞추고 있다.

글쓴이는 대승불교 형성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면서 기원에 대한 기존의 학설은 뒤엎는 새로운 주장을 편다. 대승이 재가 중심의 사상이 아니라 승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는 라모트, 쇼펜, 히라카와 등 동서양 학자들이 논문들을 일일이 분석하면서, 초기의 여러 대승 경전들이 재가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을 대승의 '재가 기원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즉 스님들에 대한 비판을 구체화하기 위해 경전에서 재가자를 등장인물로 채택했지만, 대승경전들은 분명히 출가 스님들의 작품이라는 것이다.

그의 또 다른 주장은 교리적 혁신도 스님들이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가자들의 대승운동을 스님과 같은 지위를 얻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불탑 숭배 등 신앙적 차원에서의 재가자들의 큰 영향력은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크게 지혜와 자비 두 측면으로 나누어 살핀다. 지혜의 부분은 반야부와 중관, 유식, 여래장 사상이고, 자비의 부분은 〈화엄경〉, 〈법화경〉 등 정토 계통의 경전과 불·보살을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각 주제들은 한 권의 책에 담아내기가 무모할 정도로 방대한 내용이다. 하지만 대승 경전과 논서를 보기 전에 큰 흐름을 잡아주는 튼실한 다리 역할은 충분히 해낸다.

이처럼 이 책은 대승불교의 개념들과 최근 이 분야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토대로 대승불교의 세계로 독자들을 이끈다.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불교의 가르침이란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져봤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 불교는 삶에 대해 진지하게 묻고, 얻은 바를 현실에서 실천하게 하는 종교다. 불교는 본질적으로 수행의 종교이기 때문이다. 이전의 대승불교 관련 책들은 교리와 수행을 별개로 취급해 왔다. 하지만 이 책은 불교의 이론과 수행을 접목시켜 설명한다.

글쓴이의 수행론은 티베트 불교의 수행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물론 최근에는 태국이나 미얀마 등 남방불교의 수행 센터에서 수행한 사람들이 불교의 구체적인 수행이론들을 정리하여 낸 책들이 있다. 그러나 이 책은 남방불교와 다른 티베트 문화권에서 자란 대승불교의 이론과 수행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티베트 수행론은 우리가 왜 일체 중생을 구제하고 서로 돕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밝히고 있다. 그것은 바로 나와 남이 둘이 아닌 관계에 있음을 자각하고, 남을 돕는다는 것이 나를 이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체득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책의 강점은 서양불교학자의 깊이 있는 시각과 예리한 분석력으로 독자들을 압도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단순한 분석에 그치지 않는다. 시대와 상황의 변화 속에서 궁극적인 목적을 잊지 않으려고 여러 변화를 수용하고 변화를 이끌어 가는 끊임없는 대승불교의 자기 혁신의 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값 9천5백원.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대기업 일으켜 돈 번 스님의 성공담

'비즈니스의 달인 붓다' 로치 지음



〈비즈니스의 달인 붓다〉(중앙M&B)는 '부처의 지혜로 경영 위기를 타개하자'는 책이다. 하지만 부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모아 놓고 깨우침만 요구하는 책은 아니다. 글쓴이는 이 책의 주인공이자 티베트 불교에 귀의한 미국인 스님 게세 마이클 로치.

스님이 '붓다식 경영'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것은 우리 정서상 낯설다. 하지만 그것은 훌륭한 스님은 돈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할 것 같은 우리의 선입견 때문이다. 물론 글쓴이도 처음에는 "속세에 나가 수행생활을 계속하라"는 스승의 권유에 당황했다. 하지만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갖 유혹과 번뇌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라는 스승의 깊은 뜻을 깨닫고 지난 81년 앤디 인터내셔널 다이아몬드라는 회사에 들어간다. 그리고 17년 만에 작은 회사를 설립, 대기업체로 성장시킨다. 치열하게 일해 많은 돈을 번 스님의 성공 비결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고대 티베트 선지식들의 지혜를 조화시켜 '마음을 비우고 부를 나누는' 경영원칙을 실천한 것이다.

티베트 불교에서 강조하는 덕목은 '비움'이다. 이기심과 집착에 사로잡히면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다. 마음을 비워야 비로소 채울 수 있는 것이다. 글쓴이는 마음을 비우고 무리한 욕심을 버려야 올바른 사업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런 점에서 〈비즈니스의 달인 붓다〉는 최악의 순간을 기회로 만드는 지혜를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작은 돈을 굴리는 기술을 가르치는 대신, 멀리 내다보고 큰 부를 창출하는 경영 마인드를 심어 준다. 값 9천원. 김중근 기자

마음 있으면 부처되기 찰나



법성 스님 '첫마음을…'

"초발심을 잊지 말자. 출가자는 고고한 자세를 낮추고 보다 적극적인 자비심으로 중생들을 품어야 하며, 재가자들은 불성을 회복하여 삶의 자유를 얻어야 한다."

법성 스님(87·성라원 이사장)이 〈첫 마음을 잊지 말아야 깨달음을 이룬다〉(지혜의나무)를 내놓은 이유다. 한마디로 이 책은 첫 마음(초발심)을 잊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여 깨달음을 얻기를 바란다는 원로 비구니 스님의 바람이 녹아 있는 '이야기 법문집'이다.

이 책은 크게 '삼계에 법이 있으니', '공(空)을 실은 큰 수레', '회향발원심' 등 3부로 나뉘어 있지만, 그 속에는 옛 선사들의 깨달음과 관련된 이야기와 그리고 옛 스님들의 법문과 법성 스님의 법문 등이 책의 두께 이상 가득 담겨 있다.

스님은 말한다. "마음 한번 돌리면 거기에 극락이 있다. 우리들 생각의 밑자리에 '깨달으려는 마음만 두면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는 찰나에 부처가 될 수 있다." 스님은 이 책을 통해 부처 되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스님이 이 책을 펴낸 진짜 이유다. 값 8천원.

김중근 기자

우리문화 원형찾는 역사산책



'신라인의 마음으로…'

원효 스님의 화쟁사상을 바탕으로 '화쟁 기호학'이라는 새로운 인문학 이론을 내놓아 화제를 모았던 문화비평가 이도흠(한양대 강사) 씨가 〈신라인의 마음으로 삼국유사를 읽는다〉(푸른역사)를 내놓았다.

이 책 역시 화쟁기호학 이론을 〈삼국유사〉에 적용, 우리 문화 원형 찾기를 시도한다.

그렇다면 글쓴이는 어떻게 〈삼국유사〉를 분석했을까. 우선 〈삼국유사〉를 하나의 텍스트로 놓고 '반영상'과 '굴절상'으로 나눈다. 반영상은 당대의 역사적 현실을 거울처럼 반영한 부분으로 역사적 자료와 유물 등을 바탕으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당시의 현실을 재구성한다. 이러한 논리를 〈삼국유사〉에 대비하면서 역사적 의미를 풀어간다. 값 1만원. 김중근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선방일기	지 허	여시아문
2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 견	붓다의 마을
3	산사에서 부치는 편지	명 정	좋 은 날
4	선재스님의 사찰음식	선 재	디자인하우스
5	그들은 마음을 보고 있었다	세 등	문학동네
6	선, 선비주의인가 철학인가	변 상 섭	컬처라인
7	불교 신행의 주춧돌	우 용	효 림
8	마음하나에 펼쳐진 우주	정 화	법 공 양
9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현 각	열 림 원
10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성우 지현	민 족 사

도서 안내 : (02)737-0695

불가인생론



공명을 구하면 공명을 얻고, 부귀를 구하면 부귀를 얻으며 아들이나 딸을 구하면 아들이나 딸을 얻고, 장수를 구하면 장수를 얻는다. 이제 부처가 되어 삼계에 독보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다 마음의 뜻이다.

지장기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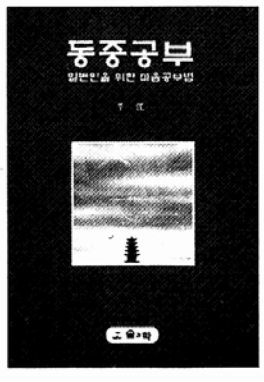
내가 전생에 살생을 많이 했거나 혹시 집안에 원한을 품고 죽은 영가가 있으면 하루 빨리 원한을 풀고 죄를 참회해야 업장이 녹습니다. 영가의 장애로 병명도 없이 몸이 아프고, 하는 일이 잘 안될 때는 영가의 장애가 걸려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관세음기도법



진실로 기도한 사람이라면 기도가 성취 될 것이고, 거짓으로 기도한 사람이면 아까운 시간만 보내고 고생만 하게 됩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삼매에 빠지는데 삼매가 깊어지면 경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삼매에 빠지는데 삼매가 깊어지면 경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경계가 바로 죽을 고비입니다. 죽을 고비를 넘길 때 한 생각하는 것이 바로 현실로 나타나 기도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동중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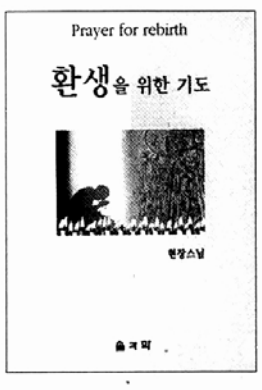
서두르지 안고 느긋하게 그러나 날카롭게 관찰하여야 합니다. 수승한 사람은 한 달이면 족합니다. 조금 떨어지는 사람이라도 석 달이면 충분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습관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자신이 하는 행동을 그때마다 관찰한다면 최소한의 행위로 줄어들 것입니다.

아미타불수행법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극락세계란 욕계, 색계, 무색계 등 중생이 생사윤회하는 삼계의 차원을 넘어선 영원히 안락한 복지(福地)로서 시간 공간과 인과율을 초월한 경계이며, 우리 중생이 필경 돌아가야 할 마음의 고향입니다..... 우리들의 올바른 수행으로 업장이 소멸 할 때 우리 스스로 보고 느끼고(感見)누리는(受用) 상주불변(常住不變)한 법락(法樂)의 경계입니다

환생을 위한 기도



"태어난 인간은 늙지 않을 수 없고, 늙고 인간은 죽지 않을 수 없고, 죽은 인간은 다시 태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경전은 말씀하신다.

행복한 전쟁



나의 모든 육신과 영혼으로 하여금 당신과 하나됨을 위해 사랑과 믿음을 불사른다면 당신은 나에게 마음을 열어줄 수 있겠는가. 삶의 어두운 적막감을 사정없이 부숴버리고 희망의 언덕을 향해 돌진한다. 지치다 쓰러져도 일어서고, 일어서며 마음과 영혼은 극락을 향해 여행하면서 아름다운 극락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 시를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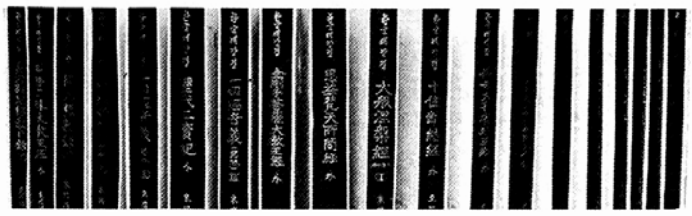
믿음과 소망과 사랑, 기도를 위해서...

도서출판 솔과학

서울시 관악구 봉천4동 869-10 센츄리오피스텔 1110호

전화 : 02-876-4655 팩스 : 02-876-4656

핸드폰 : 011-9075-9787



◇동국대 부설 동국역경원이 36년간 우리말로 옮겨 완역한 한글대장경 모습.

한글대장경 전산화 '희소식'

문화부 올부터 10년간 40억 지원
용어 통일 기대 … 해제 · 색인도 병행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인터넷이나 CD롬으로 동국대 부설 동국역경원(원장 월운 스님)이 36년 간 우리 말로 옮겨 발간해 온 한글대장경 일부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한글대장경 전산화 사업'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예산이 지난해 12월 26일 확정됨에 따라, 동국역경원은 올해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매년 4억원씩 지원받아 '한글대장경 전산화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한글대장경의 전산화는 인터넷이라는 첨단매체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불교의 교리와 정신을 알릴 수 있어, 포교분야는 물론 대장경 연구와 활용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동국역경원은 한글대장경에 대한 개역(改譯) 작업을 시작해, 전산화의 기본 텍스트로 이용할 새로운 편제의 한글대장경을 만들 방침이다.

그 동안 관련 학계는 한글대장경에 대해 오역과 용어의 불일치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해 왔는데, 이 상태에서 전산화를 하면, 검색 기능의 효율성은 물론 학술적 가치 또한 떨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苦)를 번역 할때, 어떤 경전에는 고통이라고 옮겼다가, 또 다른 경전에는 괴로움, 고민, 고뇌, 쓰라림 등으로 번역하는 등 한자 용어를 여럿으로 번역해 왔다.

또한 동국역경원은 개역 과정에서 해제 · 주석 · 색인 작업도 병행해, 디지털 한글대장경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최철환(동국역경원) 부장은 "전산화 첫 해에는 〈아함경〉, 〈대반야경〉 등 중요 경전 30여 권을 선정해, 다시 번역하고 편제의 수정 과정을 거친 후, 동국대 부설 전자불전연구소(소장 보광 스님)에서 전산화하고, 이 성과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최 부장은 "〈불교성전〉, 〈불교사전〉, 〈한국불교전서〉 등 동국역경원의 기존 성과물을 이번 전산화 사업에 포함시키고, 나아가 고려 · 신수 · 남전대장경 등의 한역대장경과 한글대장경을 합께 읽을 수 있는 '통합대장경'을 만드는 데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장에 따르면, 전산본 고려대장경의 판권을 가지고 있는 고려대장경 연구소(소장 종림 스님)와 수차례 논의를 했고, 이 과정에서 "고려대장경을 한글과 한문으로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통합 전산화 환경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이에 대해 교계는 "이번 기회에 한글대장경과 그 저본인 고려대장경을 함께 볼 수 있는 '통합대장경'은 꼭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두 대장경의 일관된 편제와 용어 및 색인어의 통일, 검색 기능 등 역경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 전산화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나 CD롬과 같은 최첨단 매체에 한글대장경을 담아낼 이 사업은 대장경의 독자층을 넓히고,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찾아 연구할 수 있는 신기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훈민정음 음운체계 산스크리트어와 유사"

김봉태씨 '…창제의 비밀' 펴내



집현전 학사들이 하늘, 땅, 사람을(삼재, 三才) 기본 원리로 삼아 한글을 만들었다지만, 어떤 역사 기록을 통해서도 연구 경위에 대한 정확한 과정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집현전 학사들은 한글의 음운체계와 글자를 어떤 자료들을 참고해 창안했을까?

인도 푸네 대학에서 산스크리트어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김봉태(사진)씨가 〈훈민정음 창제의 비밀〉(대문사 刊)에서 "산스크리트어 글자인 데워나가리의 음운체계가 훈민정음의 음운체계와 같다"는 이색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훈민정음 초성(닿소리) 24자와 홀소리 11자, 데워나가리 자음 35자와 모음 13자를 비교 분석한 김 씨에 따르면, 자음의 경우 훈민정음에 나오는 어금닛소리, 잇소리, 혓소리', 입술소리, 반혓소리, 반잇소리 등이 데워나가리 자음의 음운체계와 같다는 것이다.

또한 김 씨는 "국어의 자음음소 19자와 데워나가리의 자음 음소 19자의 조음방식(발성기관이 소리를 내는 꼴)과 조음 위치(소리내는 혀와 목 입술의 위치)도 거의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김 씨는 "ㅎ탈락 현상이나 ㄷ구개음화, 전설모음 등 유사 음운현상이 많고 어순도 같아 산스크리트어가 훈민정음 창제 때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데워나가리는 삼국시대 불교 전래 때 함께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며, 한글 창제에 이어 산스크리트어 〈진언집〉이 한역되어 나올 정도로 산스크리트어 연구가 활발했다.

허웅 한글학회 이사장은 "한글의 인공적인 자모체제를 만들기 위해 산스크리트어를 비롯한 많은 외국어의 음운체계를 참고했을 것"이라며 "산스크리트 글자와의 연관성은 계속 규명해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동국대 불교학과 교과목 개발 필요"

이혜숙 박사 주장



"불교계는 교리 연구자뿐만 아니라 지금의 사회 현실과 불교를 소통시킬 수 있는 현장 실천가도 필요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교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동국대 불교학부에서부터 석사, 박사과정의 교과목을 중심으로 불교학의 교육 환경을 분석한 이혜숙(동국대 강사 · 사진) 박사가 이 같은 주장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불교평론〉(통권 5호)에 '한국 불교학 그 반성과 전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이 박사에 따르면, 연세대 학부 및 대학원 신학과 교과목은 160여 개인 반면 동국대의 경우 80여 개 정도로 수적인 열세에 있으며, 내용면에서도 동국대 불교 관련 교과목은 신학과 사회, 문화를 연계시키는 연세대의 교과목과 크게 비교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동국대 불교 관련 교과목 중에서 '한국불교의 현실인식과 대응' 나아가 '불교의 현대적 고찰'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현실을 담는 교과목이 극히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이 박사는 "어떤 주제와 방법을 선택할지 객관적인 근거가 되는 '연구 방법론'에 관한 교과목은 물론, 불교 윤리의 사회적 실천에 대한 교과목 역시 없다"고 지적했다. 연세대의 경우, '기독교 윤리학 방법론', '기독교 윤리 체계' 등이 개설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 박사는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적극 반영해 불교학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교과목을 개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종욱 기자

중국 산동성 교주시 의천스님 비석 섰다



◇지난해 12월 25일 중국 산동성 교주시에 건립된 '대각국사 상륙지 기념비' 모습.

6세기부터 13세기까지 한국과 중국의 교류 창구였던 산동성 교주시에 의천(1055~1101) 스님의 비석이 세워졌다.

지난해 12월 25일 산동성 교주시에 '동아시아연구회 중국불적답사단'(단장 조영록, 동국대 교수) 19명과 교주시 주재 금병목 총영사관, 교주시 이호 시장, 청도대학 한국연구소 박영희 소장, 현지 한인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천 스님의 비석이 제막됐다.

산동성 교주시의 옛 이름은 '판교진(板橋鎭)'으로, 당(唐) · 송(宋) 시대에 신라 · 백제인들과 고려인들이 많이 방문했던 곳이다. 1085년 중국에서 불교를 배우고자 몰래 상선을 탔던 의천 스님 역시 이곳에 첫발을 내딛었다. 이후 스님은 북송의 수도인 변경(지금의 개봉)으로 가서 불법을 공부하며, 경전을 모으는 등 한 · 중 불교사상 교류에 큰 몫을 담당했다.

산동성에는 교주시 외에도 의상 스님이 첫발을 내딛은 등주시와 해상왕 장보고의 적산(赤山) 법화원이 있는 문등시 등이 있을 만큼, 한 · 중 불교 교류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조영록 교수는 "의천 스님의 비석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단절됐던 한 · 중의 관계를 다시 잇고, 새로운 문화 교류를 약속하는 상징적 의미도 크다"고 설명했다.

의천 스님의 비석은 대우재단 부설 사회과학원 김준엽 이사장에 의해 처음 제안됐고, 교주시가 이를 수용해 제막됐다.

한편 이번 제막식에 초청 받은 조 교수를 비롯해 보광 · 해주 · 도업(동국대 교수)스님, 동림(부산 해림사 주지) 지연(서울 기원사 주지) 스님 등 동아시아연구회 중국불적 답사단 19명은 행사에 앞서 '한 · 중 경제 · 문화 교류'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가졌다.

오종욱 기자

문화재 소식

직지사 '묘법연화경' 보물지정



경북 김천 직지사에 소장된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사진) 완질 7권 2책이 보물 제1306호 지정됐다. 이 경전은 1405년에 대선 · 신희 스님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편리하도록 중간 크기 글자로 간행한 것이다. 서문에는 고려 우왕의 극락왕생을 위해 발간했다는 내용이 담긴 변상도가 있다. 이어 송나라 급남(及南) 스님이 쓴 〈묘법연화경요해서(妙法蓮華經要解書)〉가 나온다. 이 경전은 비록 뒤늦게 인쇄한 후쇄본(後刷本)이지만 상태가 비교적 좋고 변상도 등이 완전해, 당대 법화 신앙의 깊이를 알게 해주는 중요한 사료로 평가된다.

오종욱 기자

무형문화재 기록도서 10권 발간

문화재청이 '중요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기획하고 있는 무형문화재 기록도서 10권이 발간됐다.

기록도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을 비롯해 제7호 '고성오광대', 제3호 '남사당놀이', 제18호 '동래야류', 제58호 '줄타기',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 제109호 '화각장', 제67호 '탕건장', 제39호 '처용무', 제11호 '이리농악' 등을 다룬 것으로, 화산문화 출판사에서 발간했다.

이중 〈목조각장〉은 사찰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목불(木佛)이나, 이를 봉안한 수미단과 닫집, 목어 등의 제작 과정이 상세히 조명됐다.

중요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은 인간문화재들이 고령으로 매년 평균 10여명씩 타계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지닌 기예를 기록으로 남겨 보존하자는 목적에서 지난 1995년부터 시작됐다. 문화재청은 지금까지 기록영화 44편과 기록도서 38책, 기록음반 17장 등을 제작했다.

오종욱 기자

학술소식

'선어록' 온라인 강좌

한국선학회(회장 현각 스님)는 온라인(on-line) '선어록 강좌'를 개설한다.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송인성 연구교수의 강의로 진행되는 온라인 강좌는 〈조당집〉, 〈육조단경〉, 〈신회어록〉, 〈전등록〉 등 중국의 당 · 송시대 선종어록의 문장을 분석하고 우리말로 옮기는 것으로 진행된다. 이 강좌는 한국선학회 홈페이지(http://www.seonstudy.org)에서 수강할 수 있다.

논문 14만편 DB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서상영)은 국내우수 학회지 131종, 대학부설 연구소 논문집 548종, 대학 연구논총 135종 등 학술지 814종과 이 학술지들에 수록된 논문 14만 편의 목록 및 원문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 일반인에게 제공한다. 목록이나 원문은 학술정보원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www.riss4u.net) 사이트를 이용해 열람할 수 있다.

제 1기 禪友募集

마음 길들이는 집.
마음 다스리는 곳.
위빠싸나 (如來禪) 전문 수행처.

근본불교 진흥원 여래선원
Buddhapia Meditation
서울 · 강남구 신사동 511-5 02)512-4422 Fax : 02)512-4406
대구 · 수성구 범어동 292-15 053)744-9009
미얀마 · Seikantha New - Dagon Yangon

▷ 참고 저서 -
위빠싸나 33일 (우리출판사)
그대들도 나처럼 이 길로 오라(민족사)
빈손도 내려 놔라 (출판예정)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위를 맞춰야 할 제 3자는 없느니라 법과 자신만을 의지하여 쉼 없이 정진하라!
(부처님의 마지막 유훈)

■ 수행일정표

서울	예비기초반	매주 火, 木 - 오전 11:00~12:30
	일반수행반	매주 月, 水, 金 - 오전 10:30~12:30, 저녁 7:30~9:30
	토요정진반	매주 土 - 오후 5:00~9:00(경전 강설 1시간)
대구	일반수행반	매주 火, 木 - 저녁 7:00~9:30
	철야정진반	매월 셋째 토요일 - 저녁 8:00~익일 03:30

土曜日 오전반에는 阿含經(원시경전의 계승집)과 金剛經을 강설 1시간에 이어 정진

■ 선원 오는 길
서울 센터 : 신사역 6번 출구 전방 120M에서 우측 40M 귀
대구 센터 : 수성구청에서 남부 정류장 쪽으로 80M에서 우측 250M 귀
미얀마 센터 : 양곤의 신도시의 뉴-다곤에 위치 (직접 문의)

오직 마음을 길들이고 다스리는 선우들만을 위한 시민선방입니다.
우선 성내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을 다스려 보십시오!
종교나 사상을 뛰어넘어 마음을 길들이는 노력은 거룩한 작업입니다.
제달음을 위해 정진하려는 선우들만 1월 말까지 모집합니다.
≪ 교재, 회비무료, 단, 천도제, 일반제사 사절 ≫

法山 붓다피야 合掌

法華三部經講院

▶ 男 · 女 통신반 募集 ◀

1. 募集期間 ■ 전기 : 1월 5일 ~ 2월 15일 (기간엄수)
2. 募集課程 ■ 佛經漢字 한문 교육과
3. 入學資格 ■ 불교 최고의 경전을 연구 하고자 하는 자
■ 불교 교육자로 새로운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
4. 教育科目 ■ 무량의경 (漢文本)
■ 묘법연화경 (漢文本)
■ 관. 보현보살 행법경 (漢文本)
■ 특강을 통해 모든 경전 비교연구
5. 教育期間 ■ 3년(6학기) 통신반.출강반 동일
6. 教育方法 ■ 매주교재와 강의테이프 우송
■ 월1회 대구 강의실에서 특강
7. 卒業惠擇 ■ 수학증서 수여
■ 교직자 자격증 수여(심사후)
■ 법화수행교육원 개원시 적극 지원(심사후)
■ 평생연구과정 입학자격부여(심사후)



崔 光 永 책임교수

자세한 입학 안내서는 엽서로 청구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동대구 우체국 사서함 41호 (우편번호:701-600)

法華三部經講院
053-952-8711 / 017-501-8711

달마스님상 족자 (병풍)
심우도 · 반야심경
조사서래의 진리, 지혜의 상징인 달마도
선물용



8폭 병풍(비단표구 원제품 360×180cm) 40% DC (뒷면 : 반야심경) 가격 59만원



고급비단족자표구원제품(77×44cm) 가격 28,000원(10점이상 30%할인)

※ 보급 · 동참하실분 구함
※ 선물용 적합 (액자 없이 선물가능)
※ 작품이 마음에 안드실 경우 반품가능

귀 천만불자 가정에 한점씩 걸기 운동

창혜(滄慧)거사, 金盛根 화백이 직접 그린 작품을 재료비 및 홍보비에 지나지 않은 저렴한 가격으로 널리 보급코저 전국 어디든 보내드리니 불자님들과 스님들께서는 좋은 포교방편의 선물용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마도(140×74cm)가격15만원



■ 전국배달
■ 입금처 (온라인 번호)
농 협 : 148-12-032751
예금주 : 김병구
■ 주문연락처
☎ 080-656-3089
HP 011-9043-3089
滄慧, 金盛根 합장

전화주시면 자세한 안내 팜플렛을 보내드립니다

◆ 본원에서는 결식아동돕기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韓國禪畵研究院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현대결혼연구원을 이끌어 주신 불자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1년의 새로운 시대의 문을 활짝열고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건강과 희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11월 5일 강남 오피스텔에서 시흥시로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출퇴근이 밀고 활동범위 시간 관계로 옮기게 된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승용차 운행:전화약속(30분소요)
영등포역→신세계 백화점 정문
역곡 남부역쪽 1호선 하차→
기업은행 정문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 영 숙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결혼연구원
원장 이 영 숙 (법명: 無生子)
직통전화 : 031) 315-5429
대표전화 : 02) 522-5121
핸 드 폰 : 018) 277-5592

헝겊신 신은 시골뜨기처럼 보이는 여인



원로 언론인 **이규행**이 쓰는

달마 이야기



⑮

(14) 막의(莫依)의 출현

보리달마가 천축을 떠날 뜻을 밝히자 그를 막고 나선 승려들은 더욱 기승을 부렸다.

"그대가 지금 도망치려고?"

"당신같은 불문의 반역자가 천축도 모자라 이번엔 동쪽 땅까지 물들이려 하다니."

온갖 힐난이 쏟아졌다. 그러나 달마는 "아미타불!"만 연호했다.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한 무리의 승려들이 대화상의 지시에 따라 달마를 겹겹이 에워쌌다.

"여러분. 그를 법단 위로 다시 끌고 갑시다. 그가 석가모니 부처의 존엄을 해친 것을 스스로 사죄하도록 해야 합니다. 불문을 어지럽히는 사설(邪說)을 거둬들이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그렇지 않고 이대로 놓아 보내서는 안됩니다. 더군다나 멀리 동쪽으로 도망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흥분 상태에 빠진 승려들은 옷소매를 걷어붙이고 보리달마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하려고 했다. 아무리 공력이 높은 달마라고 할지라도 꼼짝 못하고 당할 판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멈추시오!"

귀밑머리가 희끗희끗

어디선가 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대중을 압도했다. 뜻밖에도 그 소리의 주인공은 여자였다. 파란 옷에 헝겊신을 신은, 시골뜨기처럼 보이는 여인이 정사 옆 구석에서 비호같이 달려 나왔다. 마당을 가득 메우고 있던 승려들은 물길이 갈라지듯 순식간에 길을 내어 주었다. 달마에게 위해를 가하던 일단의 무리들은 행동을 멈췄다. 갑작스런 상황에 모두가 놀랐다. 이 여자가 누구고 어떻게 해서 영취산 법단에 이처럼 나타나게 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보리달마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온 여인을 본 순간 달마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다.

"이게 누군가. 막의(莫依)가 아닌가!"

오래 전에 기억에서 사라졌던 사매(師妹)를 이런 곳에서 만나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도 이젠 귀밑머리가 희끗희끗했다. 아무리 수련을 쌓고 도를 닦더라도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음을 보여주는 듯했다.

막의는 그 옛날, 사형(師兄) 달마가 왕궁으로 돌아가자 자신도 시골집으로 되돌아갔다. 농사를 지으면서 평생을 초야에 묻혀 살기로 다짐했다. 비록 여자 혼자의 몸이었지만 탁월한 무술 실력 덕분에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오히려 뭇 사람의 존경을 받으며 편안한 전원 생활을 즐길 수 있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그녀의 가슴 속엔 달마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새롭게 샘솟곤 했다. 그때마다 다시 만날 인연이 없음을 한탄할 따름이었다.

한데 바로 그 달마가 영취산에서 불법을 강설한다는 소문이 들려 왔다. 그런 소문만으로도 막의의 가슴은 고동쳤다. 그러나 그녀는 망설였다. 이제는 한 나라의 왕조차 떠받드는 28대 불조인데 그 앞에 감히 나설 수는 없다고 생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회의 대중 속에 끼어 먼발치에서 옛 사형의 얼굴만이라도 한번 보고 싶었다.

막의가 정사 안으로 막 들어섰을 때 법단 주변은 의외로 소란스러웠다. 그녀는 이상하게 여기면서 법단 쪽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법단 위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 것을 직감했다. 그때, 법단 아래쪽에서 보리달마가 일단의 승려들에게 둘러싸여 곤욕을 치루는 장면이 눈에 들어 온 것이다.

막의의 호통소리와 기세에 놀러 승려들은 일시에 잠잠해졌다. 막의는 보리달마 앞으로 나아가 공손하게 예의를 표했다.

"사형,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대화상과 승려의 무리들은 눈은 휘둥그래졌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에게 또 하나의 빌미가 되기에 충분했다.

"본래 조사의 마음 속에는 부처가 들어있다고 했거늘 이제 보니 그대의 마음 속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구료."

대화상의 비아냥거리는 이 한마디에 승려들은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업보로다! 업보로다!"

달마는 눈을 감고 합장했다.

막의는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다. 목이 터져라 큰소리로 일갈했다.

"너희 중놈들은 할 수 없는 놈들이구나. 어찌 감히 삿된 생각으로 대조사를 모독할 수 있단 말이냐."

막의는 승려들을 밀어젖히면서 달마의 소매를 끌의 하나가 '천강罡.) 공법'인데 바로 그 비법을 지금 막의가 쓰고 있는 것이다. 달마는 막의와 보조를 맞추며 말했다.

"알았소. 그렇게 하리다."

달마와 막의는 마치 바람이 날리듯 훌쩍 정사의 담장을 넘어 자취를 감췄다.

"와! 대단한 공력이다."

많은 승려들은 탄성을 지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사실, 천축의 불문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보리달마가 선학(禪學)에 통달했을 뿐만 아니라 선공(禪功) 역시 대단하다고 소문이 나 있던 터였다. 그 소문을 바로 눈 앞에서 확인했으니 모두들 눈이 휘둥그래질 수밖에 없었다. 보리달마를 지지하던 승려뿐 아니라 반대하던 무리들도 이구동성으로 소리지르며 감탄해 마지않았다.

먼발치에서나마 보려고

막의가 보리달마를 돕기 위해 쓴 천강 공법은 북두칠성의 기운을 받는 최상승(最上乘)의 선법에 속한다. 북두칠성의 기운을 아랫배 단전에 모아 단련을 쌓으면 최강의 경지에 이른다. 이 공법을 쓰면 무력을 이용한 어떤 공격도 물리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공법은 이른바 경공(輕功) 즉 몸을 가볍게 날리는 공법의 극치를 이룬다.

정사를 빠져 나온 달마와 막의는 한달음에 영취산을 벗어났다. 그제야 보리달마는 발을 멈추고 막의에게 합장하며 예를 갖추었다.

"사매. 도와 줘서 고맙소."

막의도 옷매무새를 바로 하며 답례했다.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한데 아까 듣자하니 사형께서 동쪽 땅 진단으로 가신다고 하던데, 그게 정말인지요?"

"그렇소."

달마는 굳은 의지를 나타내듯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러나 막의는 납득할 수가 없었다.

"천축 땅이 이렇게 넓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갈구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은데 이 곳을 떠나신다니 알 수 없는 일이군요. 설마 사형께서 선법을 베풀 곳이 이 땅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보리달마가 탄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날, 천축의 불문이 이처럼 많은 종파로 갈라져 파쟁을 일삼는 상황에서 선종의 힘은 약할 수밖에 없소. 나 한 사람만 떠난다면, 분쟁도 수그러들 것이고 선종 또한 안녕을 찾을 수 있을 것이오. 나도 마음이 편안할 것이고…."

막의가 말했다.

"사형께서는 27대 조사이신 반야다라 존자의 전법제자라고 알고 있는데, 28대 조사의 자리를 그토록 쉽게 버릴 수는 없는 일이 아닙니까?"

달마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비록 선종이 아직은 힘이 약하지만 지혜로운 서람이 숲의 나무들과 같이 많소. 선종의 법통이 나로 끝

> **"기억에서 사라졌던 사매 이런 곳에서 만나게 될 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날 수도 없거니와 뒤를 이을 것을 조금도 걱정하지 않소. 반야다라 조사께서는 오래 전에 나의 인연이 동녘 땅에 있다고 하셨소. 그래서 그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오. 그 땅에서 선종을 빛내면 그 또한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고 있소."

속으로 '아미타불' 연호

막의는 사형의 성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동녘 땅으로 가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이미 확고하게 결정된 이상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일이었다.

막의는 길게 한숨지었다. 그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말을 이었다.

"사형. 진단으로 가는 길은 산 높고 물 깊어 위험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부디 만사를 헤아리시고 옥체를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매. 그토록 마음을 써 주어서 정말 고맙소."

"그럼, 이만."

순간, 막의는 쏜살같이 몸을 날려 숲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뒤도 돌아다보지 않고 사라진 길에 한 줄기 바람이 일었다.

달마는 막의가 사라진 곳을 향해 목례의 눈길을 보냈다. 이 순간 달마의 마음은 명경(明鏡)같았다. 은은하게 파고들던 막의에 대한 애뜻한 감정은 흘러가 버린지 이미 오래였다. 그의 마음은 장중함과 신성함 그리고 평안함과 상스러움 속에 제자리를 잡고 있었다.

달마는 생각했다. 일체만법(一切萬法)은 자성(自性)을 떠나지 않는 것이요, 자성은 본디부터 깨끗하고 고요한 것이다. 자성은 본래 생멸하지 않고, 원래 스스로 구족(具足)한 것이요, 자성이 동요가 없어야 능히 만법을 생(生)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 스스로 본성을 볼 수 있어야 비로소 능히 성불(成佛)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보리달마는 비록 잠시 동안이었지만 막의를 만나 한차례 뜨겁고 차가운 인정의 소용돌이를 경험한 것에 대해 스스로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더욱 마음을 가다듬어 입 속으로 '아미타불'을 연호했다.

보리달마는 발길을 재촉해 저녁 무렵 도견왕의 왕궁으로 돌아왔다. 건강을 되찾은 도견왕은 태자와 귀족 그리고 근신들을 거느리고 친히 무릎을 꿇고 예를 표했다. 뿐만 아니라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불조인 숙부의 노독을 달래 주었다. 달마는 영취산 대법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감개 어린 목소리로 결심을 내비쳤다.

"종파의 편견과 싸움이 너무나 극심해서 탄식만 나올 뿐이오. 스승 반야다라 조사께서 일찍이 훈계하시기를 나의 불연(佛緣)은 남천축에서 일어나 동토(東土)에서 익는다고 하셨소. 손을 꼽아 헤아려 보니 이제 동녘에서의 인연이 무르익어 교화를 행할 시기가 된 것 같소이다. 내 생각으로는 이제 서둘러 진단으로 갈 준비를 시작해야겠소."

도견왕은 숙부의 말을 법처럼 중시했다. 그 뜻을 조금이라도 거스르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레 여쭈었다.

"숙부님의 선광(禪光)은 그 곳 중생을 널리 비춰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데 이번에 동토로 가시면 언제 다시 뵐 수 있을는지요?"

달마가 대답했다.

"내가 이번에 가면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오. 인연이 무르익고 법이 전해지면 마땅히 돌아와야지요."

도견왕은 달마의 이 말이 진정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미 숙부의 나이가 100세가 넘었는데 어찌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할 수 있단 말인가. 도견왕은 서글펐다.

"이 나라는 무슨 죄를 지었고, 동쪽 나라는 또 무슨 복이 있어 숙부께서 떠나시는지요? 부디 이 곳을 잊지 마시고 꼭 돌아오세요."

佛紀 2545년 (辛巳年)

이천만 불자가 하나되어
희망찬 새해를 만들어 갑시다.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불교대학
학 장 무진장 이사장 김재일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반야회
회 장 김재일
사무국장 구본설 기획실장 문종순
대 중 일 동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
http://www.dongsanbud.org
TEL : 02) 732-1206~8 FAX : 02) 732-1207

대한불교 조계종 서 암 사
주 지 서 암
신도회장 구덕성화
총 무 이 경 자
신 도 일 동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429번지
TEL : 054) 761-3770
054) 762-3770

대한불교 조계종 석 굴 암
주 지 도 일
신 도 일 동
■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교현리 1
TEL : 031) 826-35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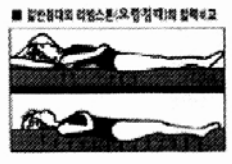
대한불교 태고종 대 덕 사
주 지 월 암
신도회장 윤춘화
반야회회장 서희숙
신 도 일 동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산 69-7
TEL : 02) 3159-8886
FAX : 02) 3159-9774

깊은수면중에 기(氣)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족을 사랑하십니까? 건강 잠자리로 바꿔주세요!!
이제 편안한 잠자리로 보약을 드십시오.
좋은 잠자리는 보약입니다.
건강한 잠자리에서 희망찬 인생이 시작됩니다.

리빙스톤 요람침대



신체공학과 침대의 과학화
→ 최고의 편안함! 최고의 안락함!
→ 최고의 쾌적함! 바로 그 침대



리빙스톤 요람침대(보료)
실용신안등록(제0188136호)

특 징
1 젖먹이 유아부터 수험생, 신혼부부, 노년층, 병약자까지
2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뜨끈뜨끈… 4계절용
3 수맥차단, 유해 전자파, 정전기 완전제거
4 진드기, 먼지, 곰팡이, 알레르기에서 완전해방
5 전기료 월 10,000원 안팎으로 부담 없슴.

■ 요람침대는 기존침대에서 매트리스 제거 후 얹어 그대로 사용 (보료로도 사용가능)
■ 규격별(S, S/S, D, Q, K)로 전제품 제작 가능

※ 척추보호 및 교정효과로 어린이, 청소년, 노년층에 절대 필수!
※ 병원 및 원룸, 특수기관용 단체구입시 특혜

침대의 名家 세계인을 편안하게 건강하게 리빙스톤
☎ 02)424-9427/2203-7821

침대 곰팡이 · 세균 · 진드기 심각

침실의 안락함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침실 위생에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침대시트정도만 물빨래하고 매트리스는 물걸레로 대충 닦기만 하자니 근본적인 청소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잠을 자며 흘리는 땀과 몸에서 떨어져 나온 피부각질 같은 것들 때문에 매트리스에는 세균 박테리아 곰팡이 미생물 집먼지 진드기등이 서식하기에 적합하다.

- 동아일보 2001년 1월 3일 25A

신행수기 당선작 (현대불교사장상)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으로

백 남 영 ㈜경북 경산시 진량읍㈜

우리나라 사람치고 대자 대비하신 관세음보살이라는 명호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천개의 눈으로 우리의 고통을 살피고, 천개의 손으로 우리 중생들을 건지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관세음보살님은 우리 불자들의 가슴속에 스며있는 가장 친근한 대상이어서인지 불자들은 자주 '나무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감사와 기쁨의 기도를 올린다. 또 고통스럽거나 어려운 일이 닥쳐도 간절한 마음으로 '나무 관세음보살'을 염하며 고를 극복하면서 살아왔다.

관세음보살님은 각 개인의 근기에 따라, 또 우리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때로는 엄한 모습으로 또 때로는 자비로운 모습으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다. 힘들고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항상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면 그 마음으로 인해 관세음보살과 내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헤쳐나가야할 장애물들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

자신에게 잘못이 있을 때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은 숨기면 숨길수록 커지게 되며, 그 잘못을 없애기 위해서는 또 다른 잘못을 범하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더욱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그래서 나는 '죄가 있으면 곧 참회하고, 잘못이 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데에 대장부의 기상이 있다. 그리고 허물을 고쳐 스스로 새롭게 되면 그 죄업도 마음을 따라 없어 질 것이다'는 서산대사의 〈선가구감〉 구절을 학생들에게 틈나는대로 강조한다.

이 구절을 가슴에 깊이 새긴 것 때문에 잘못을 참회하고 반성한 일이 있었다.

지난해 학교 춘계 체육대회 때였다. 운동장에서 학생들과 물 로켓 발사를 하는데 한 학생이 다가와서 "선생님, 잠깐 저쪽으로 오시라는데요"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어느 선생님이 부른 것인지, 또 무엇 때문인지 전혀 영문도 모른 채 따라갔다.

학생들이 모여 있는 소 운동장 한쪽으로 가보니 다섯 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선생님,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뱀을 잡았어요. 같이 요리해 먹어요"하면서 뱀을 건네 주었다. 솔직히 수십년 동안 즐겨 먹던 뱀을 보니 구미가 당겼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불현듯이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살생중죄금일참회(殺生重罪今日懺悔).' 이 문구가 계속 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쳤다. '그래, 방생을 못할지언정 살생을 하다니' 이런 마음이 들자 학생들을 꾸짖고 뱀을 숲속으로 가서 놓아주었다. 솔직히 서운한 감이 있었지만 불자로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어리석은 중생들의 한순간 짧은 생각으로 인한 죄업을 용서하소서, 나무 관세음보살' 이렇게 마음속으로 참회하고 운동장으로 돌아와 체육대회를 무사히 끝냈다.

저녁때 집에서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니, 불자로서 '불살생'을 지킨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지난날의 낚시, 음주 등 방탕했던 나 자신의 생활이 너무나도 후회스러웠다.

며칠 뒤의 일이었다. 2학년 1반 수업시간이 끝나자 드릴 말씀이 있다며 한 학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러면서 "선생님, 체육대회 때 선생님께서 놓아준 그 뱀을 다시 잡아서 숲속에서 저희들끼리 구워먹었어요" 하는 것이 아닌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앞이 캄캄해 졌다. 나도 모르게 '나무 관세음보살'이 나왔다.

그 학생은 그러면서 "선생님,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저녁부터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낮에 죽인 뱀 수백마리가 나타나서 제 몸을 숨막힐 정도로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라며 두려움에 가득찬 눈빛으로 고민을 털어놓았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다.

'내가 놓아준 그 뱀을 다시 잡아서 죽이다니' 괘씸한 생각이 들면서 화가 나 꾸지람이 앞섰지만 겁에 질린 학생의 모습을 보자 불쌍한 마음이 들어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그날부터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중요한 화두였다. 부처님 법을 배우면서 청소년 포교사가 되어 청소년의 불국정토를 이루겠다는 원을 세우고 공부한 나인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온종일 이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해결방법을 쉽게 찾을 수 없었다. '그래, 언젠가는 학생들에게 부처님 정법을 포교하겠다는 원을 세운 만큼 그 학생부터 포교해 보자' 라는 결심이 섰다. 그 학생을 찾아 우선 부처님 말씀을 들려주었다.

"백천만겁 동안 오래오래 익힌 번뇌의 업이라도, 일실(一實)로써 관찰하면 곧 모두가 소멸된다는 말씀대로 이런 절박한 상황과 순간에 처할 때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라. 그러면 관세음보살님께서 곧 그 음성을 듣고는 네 죄업을 다 해결되게 하리라."

그리고 당장 그날부터 잠들기 전에 부지런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명호를 수십번씩 부르면서 매일 잠자라고 일러주었다.

며칠뒤였다. 아침에 교무실로 나를 찾아온 그 학생의 기적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 학생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더니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선생님 말씀대로 '나무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르며 잠들었는데, 첫날에는 전날 밤보다 뱀들의 수가 반으로 줄었지만 나타나 계속 괴롭혔는데 그래도 꾸준히 '나무 관세음보살' 명호를 열심히 부르자 점점 수가 줄더니 어젯 밤에는 한 마리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래간만에 잠을 너무 잘 잤어요"하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나 기뻤다.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나무관세음보살'을 계속 염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그 학생이 아침에 부모님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지난 일들을 부모님에게 말씀드렸더니, 그 학생의 어머니께서는 놀라시면서 "이놈아, 이 엄마는 절에 열심히 다니며 조그만 미물이라도 살생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는데 네가 어떻게 그런 짓을 했느냐"며 야단을 치셨다고 한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선생님과 관세음보살님께서 너를 살려주셨구나. 이제부터 선생님 말씀을 믿고 따르거라"는 당부도 하셨다고 한다.

이야기가 끝나자 그 학생은 "선생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선생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몇 번이나 하면서 교실로 돌아갔다. 나는 돌아서서 가는 그 학생의 뒷 모습을 보면서 환희와 기쁨에 넘쳤다.

'내가…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감히 어떻게 이런 덕행을 베풀 수가…" 하는 생각이 들자 '나무 관세음보살'을 여러번 염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 흘러 환희심이 생겼다.

이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며칠 뒤 그 학생의 어머니가 학교에 찾아와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학생들에게 부처님 법을 많이 가르쳐 줄 것을 부탁하셨다.

이제 그 학생은 3학년이 돼 직업훈련반을 택해 정보학과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기숙사에서도 매일 관세음보살님의 사진을 보면서 "나무 관세음보살"을 부른다고 한다.



그림 · 이준석

"꿈속에 뱀이 나타나지 않아 잠을 잘 잤어요"

자신도 성실한 불제자가 되어가고 있음은 물론 주위 친구들에게도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부처님의 공덕을 널리 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기뻤다. 가끔 교내에서 후배들을 위해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 하며 이 모두가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과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부처님정법 덕분이라고 자랑까지 한단다.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새삼 느끼게 된 일이었다.

부처님께서는 욕망을 버리고, 서로 베풀며, 계를 지킴으로써 청정하게 살라고 가르치셨다. 또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악을 짓지말고, 선을 받들어 행하여 스스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나가는 진리라고 하시지 않았던가. 하지만 몰라서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개는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이다. 그래서 '착한 일이라는 것은, 세 살 먹은 어린이도 알지만 여든살 먹은 노인도 행하기 어려운 것' 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 같다.

나는 20여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면서, 매일 학생들과 진학문제, 이성문제, 가정문제에 관해 많은 상담을 해왔다. 이렇게 교직은 나에게 주어진 평생의 업이라 생각하고 다른 곳으로는 눈길 한번 돌리지 않고 살아 왔다. 하지만 아마도 전생의 업에 의해 불교와 인연이 있어서 인지 대구 영남불교대학장 우학 스님으로부터 부처님법을 체계적으로 배우면서 점차 불법에 정진하기 시작했다. 그런 중에 청소년 불자가 점차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학생 포교가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 지도 새삼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포교사가 되겠다는 마음을 내 열심히 불법 공부에 전념했다. 힘들어서 나태해질 때마다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마음을 다잡았다.

'도를 얻지 못하면 나의 살과 뼈가 마를 지라도 맹세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리' 라고 강한 서원을 세웠다. 부처님 정법을 지켜 어둠의 길에서 방황하는 학생들을 위해 포교사가 되리라는 강한 의지와 우학 스님을 비롯해 여러 선지식들의 훌륭한 가르침 덕분에, 제5회 포교사 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시험장에서도 '관세음보살' 명호를 염송하니 마음이 한없이 편안해짐을 느낄 수가 있었다. 포교사 연수때 부처님께서 녹야원에 처음으로 법륜을 굴려 교진여등 다섯 수행자를 교화시켰듯이, 청소년들에게 포교하겠다는 원을 세웠다. 지금은 내가 재직하고 있는 진량고에 불교학생회를 창립해 고교생 포교에 힘쓰고 있다.

그동안 불교학생회 학생들과 갓바위, 동화사, 은해사, 불국사, 해인사를 찾아다니며 기도 정진도 하고 우리 문화의 근간을 이룬 불교문화유산에 깊은 감명을 받기도 했다.

사찰에 갈 때마다 '관세음보살' 명호를 염송하면서 사찰에서의 예절, 법당예절을 가르쳐 주며, 참선과 108배 정진도 열심히 했다. 특히 지난 5월 동화사에서 광주시와 대구시의 지역 교류를 위해 동화사를 방문한 대구시장님께서, 불자 학생으로서의 자세를 말씀하시며 청소년 포교를 하고 있는 나를 격려해 주신 것과 9월 학생들과 함께 불국사로 성지 순례를 갔을 때 포교국장스님의 아낌없는 조언들이 학생들과 내가 더욱더 발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 내가 지도하고 있는 불자학생들이 학교 생활과 가정에 충실한 모범학생으로 변화되어 가자 학부형들로 부터도 많은 격려와 칭찬을 받았다.

부족한 내가 지도하는 불자 학생들이 어디에 가서든지 칭찬 받고, 참된 부처님의 불자임을 자부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은 항상 지켜주시고 어려운 고비 때마다 큰 힘을 낼 수 있게 해 주신 관세음보살님의 무궁무진한 가피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오늘날 청소년에게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고있는 이성 · 학업 · 진학 문제를 지도하면서 불교사상에 근거한 올바른 가치관이 학생들에게 정립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자 항상 내 자신을 되돌아 본다. 미래의 주역인 동시에 한국불교의 내일인 청소년 불자들을 지도하는데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정신적 공황과 가치관의 혼돈 속에 빠진 청소년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비단 청소년 문제로만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사회적 문제로 발전될 것이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은 자라나는 나무와도 같다. 물과 양분을 주어 꽃을 활짝 피우게 하며, 거친 비바람의 외풍에서도 굳건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항상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어야 한다. 또 언제나 부처님 말씀을 따르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식이 되며, 모든 학생과 더불어 공덕을 나누며 지혜와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모든 원을 원만히 실천할 수 있도록 새해 다시 발원해 본다.

"부처님 정법을 통해 청소년 불자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불국토가 되도록 그들에게 부처님의 자비 광명과 지혜를 내려 주시길 거룩하신 불보살님께 귀의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아바타 코스는 7~9일이 걸리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이 선택하기만 한다면
당신의 삶 전반이 바뀔 수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중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H.ch Gallery 슬기샘 慧泉 박물관 건립 기금 마련 불사 茗茶禪院
地鶴堂 혜천스님이 선(禪)수행으로 얻어낸 인간을 이롭게 하늘에 소리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인 학변상도(鶴變相圖),전각적 상형문자에 언어로 찾아 오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선물상(禪物相) 화두수행에 결정체인 복덕행 방편으로 불가사의한 힘을 발휘하는 친필 선서화(禪書畵)특별보급안내 ※ 각 사암에서는 불사의 방편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각 사암 특별보급처 문의요망)
극락왕생승무 천도방생선망부모
단결노력근면 연화복덕학
석혜천『禪慧泉』 명다선원 운영
전국서점가 밀알 책보시용 주문
복덕성취 신년대운성취 복덕성취기원
부부심학 수명장수 부부화합 소원성취기원
사업성학 복덕구족 영업상업 사업성취
삼무선학 이사여행 안전운행기원
가내백신불침지학 업장소멸 총중퇴치 우환소멸기원
음향수학 남녀음양화합 복덕향운기원
인연성학 인연화합 결혼성취
관재멸학 관재구설 송사 소멸원
가내화합행운학 무명장수성취원
심인지학 소아 안전 무사고
임원심학 학업소원성취 시험합격기원
삼두선학 사업 명예 권위 계약성취기원
입삼재멸학 수명 복덕장수 입삼재소멸원
중삼재멸학 수명 복덕장수 묵은삼재소멸원
출삼재멸학 수명복덕장수 출삼재소멸원
연화복덕학 단결 노력 근면
퇴마기학 아귀 사마소멸
동심수학 남녀 아 무병장수
선정관학 적정심 성취원
병고멸학 무병 신병 병고멸
칠성무학 득남득녀 자손창성
연화복덕학 가내외 행운성취
지장보살 기도용 액자
관세음 보살 기도용 액자
심달마도외 업멸달마 수심달마
임월성신칠성민호도 가내 액운퇴치,복덕
천북용신도 호신수호,길상
무학천마도 추진력성취
천도방생선망부모 극락왕생승무
마두관음 호신소형액자
해탈동자
문수 보현 한산 습득
천수천안관음 동심안 보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슬기샘 慧泉 박물관 건립 종무소 建立宗務所
혜천미술관 慧泉美術館 地鶴堂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776-5번지
전 화 : 031) 774-6953
핸드폰 : 011) 216-0306
장생불사 극락조학
가내 만사대길 복덕행운귀학
임심동학 안정 만남 귀환
여 · 재능성학 재능개발성취
남 · 재능성학 재능개발성취
순금 호신용카드 행운 복덕 소원성취
길상다리니거북 만사형통 소원성취
옴마니반메훔 호신 소형액자
봉운불사기획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신화동 26번지
전화 032)884-9332 FAX 032)884-9333
온라인 국민은행 예금주 전승희 175-25-0001-318
○ 경기북 보급처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128-115호 삼각산 여래사
전화 : 02)381-0505 / Fax : 02)382-0503

근본에 맡기고 사는 게 벗어 나는 길

육도윤회 벗어나려면 …

문 불교에서 육도란 천(天), 인간(人間), 아수라(阿修羅), 지옥(地獄), 아귀(餓鬼), 축생(畜生)의 여섯 세계를 지칭하는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도를 사는 중생들은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기에 전부 제도되어야 할 불쌍한 중생들이며 미물에 불과합니까? 불교에서는 육도를 벗어나 해탈을 이루고 열반에 들어 성불하는 것을 영원한 행복이라고 하는데, 해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답 마음도리를 공부하지 않는다면 순간순간 내 앞에 닥쳐오는 헤아릴 수 없는 문제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과거로부터 지어 놓은 대로 모두 인연이 되어서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량이나 지식, 또는 물질로는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만 진실로 믿고 나오는 곳에다 되돌려 맡겨 놓을 때 비로소 하나하나 녹아 내리는 것입니다.

천상인간도 윤회하므로 벗어나라고 했거늘, 잘잘못을 가리고 분별심을 내어서 보이는 것만 논한다면 내면의 깊은 뜻은 헤아리지 못하게 되고 고통만 따를 뿐입니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마음을 잘 관찰하고 다스려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고 모든 것은 내 탓으로 돌리며 주인공에 맡겨 놓아야 자유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릇된 것으로 끌이 나는 게 아니고 또 잘된 것으로 끌이 나는 게 아니며, 잘 되는 것을 취하다 보면 잘못 되는 것이 따르게 마련이니 양면을 다 놔야만 참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강조해서 말하는 것은, 업식으로 뭉쳐진 인연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의식으로 돌아다니다가, 새 둥우리로 들어가기도 하고, 개구리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뱀 속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의식의 차원이 밝지를 못하니 분간을 못하기 때문에 아무 곳으로나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모르고 들어갔을지라도 한 철만 살고 다른 모습으로 화하면 좋을 것을, 그 모습으로 살던 습이 익어져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또 대다수가 물질로 사는 법만 배웠기 때문에 그 모습에서 세세생생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끼로 태어나서 어미가 되고, 어미가 죽어서 다시 새끼가 되는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사람 몸으로 태어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서 이 도리를 모르면 죽어서도 모릅니다. 그리고 육도의 윤회를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는 길을 물어보셨는데, 어떻게 인간으로 왔으며 어디서 왔는지, 또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깨닫는다 못 깨닫는 다를 떠나서, 내 안에서 들고나는 모든 것을 근본에 맡기고 살아가는 그 자리가 해탈의 길이자 열반의 길이라는 것을 아시고, 나고 드는 모든 것을 근본에 맡겨놓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자유롭게 사십시오.

올바른 수행방법 아닌것 같아

문 불교수행 법 중의 하나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신(身),구(口),의(意) 삼업을 청정히 닦아나가는 수행은, 몸은 무드라(진실한 모습)를 만들고 입으로는 진언(진실한 말)을 외우고 뜻으로는 진실한 상념을 짓는 수행이라고 합니다. 저도 조금 수행해 보니 몸과 마음에 어느 정도 힘이 생기고 잡념이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수행 방식이 좋다는 생각, 또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잡념이 없어지는 체험을 했으니 올바른 수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또한 저 자신이 이 수행방식에 묶여 부자유스러워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수행법에 대한 스님의 생각은 어떠하시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잘 다듬어진 말이나 이론이 아니라 평범하면서도 진실된 비유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비유하여 여러분이 수박이라고 합시다. 여러분이 다 수박이라면 작년의 씨로 인해 수박이 된 것입니다. 작년의 씨가 아니라면 어떻게 올해의 수박이 생겼겠습니까. 그 수박은 놔두고 작년 씨를 바깥에서 찾는다면 아무리 애쓴들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올해의 수박에 씨와 열매가 한데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그 안에 자기 씨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나 다른 모든 생물 또는 흙, 바람, 불, 공기의 생명들도 모두 이 씨로 인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것 속에는 근본 원소가 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몸만 다스리다 보면 잘못되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몸뚱이 떨어지면 그건 아무 것도 아닙니다. 몸 떨어지고, 말 떨어지고, 행 떨어지면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라는 건 영원한 겁니다.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돼서 무정물, 과일, 나무들도 서로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돼 가지고 사랑을 하면서 열매를 맺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돼서 사랑하고 서로 호와가면서 작용을 하는 거니까 그게 중용이죠. 몸도 자재로이 할 수가 있다 이 소립니다. 모두 잠재의식의 관습에 의해서 그것을 못 믿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진짜로 믿는다면 죽고 사는 것도 다 그냥 탁 맡길 수가 있습니다.

동생이 심한 발작 일으켜…

문 스승님이 계셔서 그대로, 부족하나마 이만큼 마음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풀지 못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동생이 어려서부터 심한 발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가족들 모두 점점 마음이 병들어 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어서 빨리 해결하고 싶습니다. 주위에서는 업식이 두터워서 그렇다고 어려운 문제라서 해결하기 어려울꺼라고 수군거립니다. 스님! 마음은 체가 없다고 하지 않으셨는지요. 뛰어넘고 싶습니다.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가르침 청하옵니다.

답 일체 모든 것, 즉 이 우주 천지가 나온 근본이 바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직결되어 있음을 알고, 그 직결되어 있는 마음의 주인공을 믿고 거기에다 모든 것을 되맡겨 놓아야 합니다. 진실히 맡겨 놓을 때, 즉 병도 거기에서 인과응보로 나온 것이니까 나온 데다가 다시 믿고 맡겨 놓는다면 거기에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공, 당신만이 고칠 수 있다. 주인공에서 나온 것이니까 주인공이 고쳐야지! 하고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자기가 땅에 엎어졌으면 일어날 능력도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어 놓은 거니까 자기가 풀어야 하고 또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 거기에다 되놓아라 하고 가르쳐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도 가스로 될 수 있듯이 그렇게 화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인과응보를 쳤던 업이 그냥 송두리째 무너져 녹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보살로서 재생이 되므로, 그때에 비로소 억울하고 누명썼던 업이 많은 인과응보, 모든 것이 다 거기에서 스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몸속에 있는 모든 세포 생명들도 이 때가 되어 활개를 펴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잘 공급해 주게 되므로, 회전이 잘 되기 때문에 비로소 병 증세가 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천입니다. 실천해서 우리가 체험을 하고, 체험 속에서 우리는 믿게 되고 진실하게 되고 아! 이런 것이로구나! 일체만법이 작으나 크나 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로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바로 태초요, 내가 나왔기 때문에 또한 태초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것이 바로 화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화두이지 만약 여러분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더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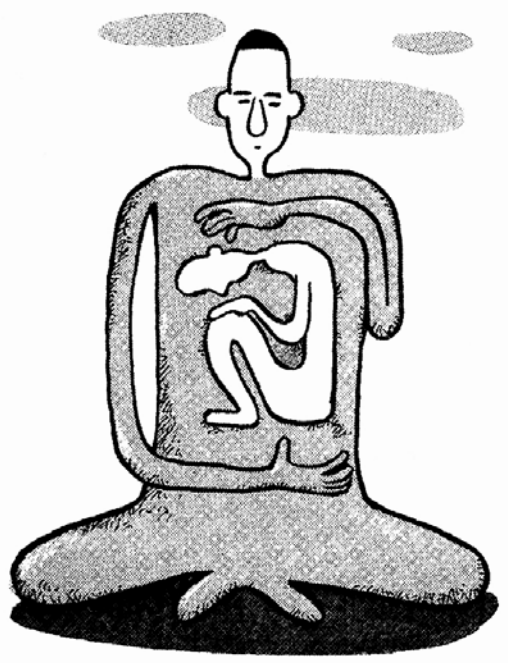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넘어졌으면 일어날 능력도 내게 있어

나오는 곳에 되돌려 놓을때 업식 녹아

자기 안에 있는 씨로 인해서 수박이 생겨나고, 그 수박으로 일체 중생을 다 먹이고도 되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심어서 먹이고, 또 심어서 먹이고 해도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는다, 사람이 생겨난 만큼 먹고 살 수 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먹고살고, 많으면 많은 대로 먹고 살 수 있다. 그래서 분지복은 자기가 가지고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하거나 몸으로만 하는 것은 직코스로 들어가는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들어 있는 의식들, 생명들이 그걸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같이 동일하게 작용을 해주지 않습니다. 부자유스럽게 다스리는 내가 있고, 다스림을 받는 상대가 있으면 둘로 되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체를 들고나게 하는 장본인에 놓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근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자리에 맡기라고 그렇게 말을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서 아, 너도 나도 없구나! 모두 나로구나 ! 할 때에 내 몸 안의 의식들이 전부 작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다 놓으면 누진, 두뇌로 통신이 돼서 하달이 돼 가지고 사대로 통신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육신이 작용을 합니다. 그것은 주인공 자체가,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작용을 해주는 거죠. 여기서 모자라면 저기서 보태고, 저기서 모자라면 여기서 보태고 해서 작용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건강하게 다룰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살을 뺄 수도 있고, 살을 찌게 할 수도 있고 그건 자기 마음대로 입니다.

어떤 아쉬움이 있고 어떤 못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못났을 때, 내가 못 배웠을 때, 내가 가난했을 때, 내가 미생물이었을 때의 바로 나의 모습으로 보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 병 증세가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공만이 모든 것을, 내 동생을 고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되고 안 되고를 그냥 놓고 진실되게 관하시기 바랍니다.

공부 놓치고 가는 것 아닌지

문 청년 때부터 공부를 해오다 결혼을 하여 집에서 살림을 돌보면서, 이제는 아기가 생기고 생활이 편해지니 자꾸 공부를 놓치고 가는 것 같아 혼자 뒤떨어지는 듯한 마음이 생깁니다. 괜한 걱정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살아가면서 더욱 좁아지는 마음새를 대할 때마다 역시나 이 생활이 나를 점점 더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도움 말씀을 구합니다.

답 본인의 생각에는 상황이 달라져서 혼자 뒤떨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말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다 정자 난자가 한데 합쳐져서 모습은 형성되지만 태어날 애기가 생명력을 가지고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보이지 않는 자기를 믿고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불성이자 자부처거든요. 이렇게 움죽거리게 하는 것도 바로 자기 생명력이 자기를 움죽거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은 수없이 꺼내 써도 줄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믿고 모든 걸 다 거기다 맡기세요. 생활이 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닥쳐오는 생활 속에서 열심히 관하고, 잘되면 감사하게 놓고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우리 두뇌에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다고 항상 말씀드렸죠? 거기에 모두 과거에서부터 해온 대로 입력이 돼 있어서, 입력된 대로 살기 때문에 고달프기도 하고 지혜롭게 행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된 대로 나오는 거, 좋은 것이 나오면 '주인공 감사해' 하고 놓고, 또 그걸 다시 바꾸려면 바꾸고, 그렇게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입력이 돼 있는 데다가 입력을 다시 넣으면 앞서 입력이 없어지죠? 그것만 알면 됩니다. 과거가 없기에 잘못 했던 나도 없고, 어찌될까 두려운 미래도 없어요. 현재도 공해서 찰나찰나 고정됨이 없이 돌아갈 뿐인 걸요. 그러니 지금 말한 이 말의 뜻을 잘 새기어 본다면 한층 깊은 눈으로 나를 살펴보며 진실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명상중에 두려움 생겨요

문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비겁하고 멍청하게 20년을 살아오다가 최근에 부처님에 대한 책을 접하며 그것에 대한 지식만 쌓아오기를 몇 년째 계속 해 오고 있는 23살 된 청년입니다. 두정에 찻잔을 올리고 명상을 할 때면 몸에 열이 나고 이마엔 식은 땀이 나면서 두려움과 불쾌감이 강해집니다. 사고가 줄어들거나 편안함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 육체 차원에서 해소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까? 그리고 저는 제게 있는 공격성이라든가 하는 감정을 늘 감추며 살아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소해야 합니까? 아니, 해소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부끄럽습니다. 제가 죽을 수 있는 상태라면 꼭 한번 죽어보겠습니다.

답 육신은 마음에 따라 다니는 것이라 할 수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육신을 아무렇게나 두어도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수행자들은 마음이 주인이라니까, 또 거기에 집착해서 몸이 하는 행동은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바르면 몸도 바르게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니, 서로 공생(共生), 공용(共用)하는 관계라 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역시 주인은 마음인 것만은 분명한 일입니다. 마음이 근본입니다. 마음이 뿌리입니다. 그 근본 뿌리가 제대로 서지 않고서 가지나 잎을 아무리 정돈해 보아도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좌선을 해도 마음이 주요, 생활 속에서 어떤 것을 하더라도 마음이 주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떨어지면 말도 떨어지고 행도 떨어집니다. 그러니 오직 자기 마음의 근본을 믿고 들어가야 됩니다. 오직 나의 근본 주처를 쥐고 물러서지 말고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렇게 진실히 해 나간다면 거짓의 내가 죽어서 영원한 참나를 상봉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의 희열, 그 감사함을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참주인을 만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눈 하나도 깜짝 안하고 지긋이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주먹을 펴면 깊은 데로 들어가고, 아주 얕은 물에도 다닐 수 있는 그 자유자재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꼭 그렇게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다한증 때문에 생활 불편

문 저는 손발에 땀이 많이 나는 다한증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는 데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인공에 놓아 나가는 수행을 통하여 증상이 조금은 완화되었다는 것을 느끼지만 과연 이를 완치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스님,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수행해 나가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상이 생기는 것은 과거생으로부터 긴장하는 습에 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어떠한 업식에 의한 것인지도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은, 운명에 관한

☞ 20면으로 계속

가파른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백지 볼줄 알면 만법 굴릴 수 있어

☞ 19면에서 계속

것입니다. 사실 이 사회에서는 관행적으로 사주나 궁합 등의 운명철학 쪽을 먼저 감정한 후에 일을 하는 것이 뿌리깊게 관습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운명에 대해서 물어보는 제 자신이 주인공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탓도 있는데요, 이러한 믿음 이전에 운명철학의 실체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님께서는 운명은 없다라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운명철학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운명철학을 신봉하는 저희 가족들을 어떻게 바르게 이끌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자리를 통해서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 이 마음의 도리는 일체를 놓아서 일체를 건지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어떤 병고가 나오더라도 생각으로 지어서 이것은 업보다, 유전이다 하고 생각을 옭아매서 움켜쥐지 않아야 합니다. 그건 왜냐? 부처님 자리에서 우리가 한생각 그대로 낼 때, 그건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대로 그냥 녹아지는 거예요. 이것은 진실이에요. 둘이 아닌 까닭에 그냥 녹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을 한 바로는, 죄를 억만 겁을 지었다 하더라도 한생각을 진정 진실하게 내면 공해서 그대로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죄가 있다면 모르는 게 죄지, 죄가 어디 붙을 자리가 있으며, 병이 어디 붙을 자리가 있으며, 업보가 어디 붙을 자리가 있습니까. 왜 업보가 있다고, 죄가 있다고 목을 딱 매서 그렇게 올가미를 씌워야 속들이 시원한지 모르겠습니다. 업보 붙을 자리가 어디 있을까요? 비행기가 지금 떠서 프로펠러가 사정없이 돌아가는데 거기 먼지 앉을 자리가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체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앉았는데도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일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팔자니, 운명이니, 무슨 인과가 있다, 유전이 있다 이런 게 정말 몰록 그냥 없어진다는 얘깁니다, 자기까지도. 그러니까 일체를 맡겨놓고 자유스럽게 사는 그런 분들은 그냥 그대로 부처의 행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본래 공해서 병이니, 업보니 이런 거는 붙어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마음공부를 하는 사람은 업보에 끄달린다, 유전이 있다 이런 소리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붙을 자리가 없으니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그러니 내가 공했는데, 내가 없는데 병이 어디 붙을 게 있고, 유전이 붙을 게 있고, 팔자가 붙을 게 있고 그러나? 하는 거죠. 한생각 놓는다면, 그렇게 살던 습을 다 놓는다면 그냥 그냥 그대로다, 이래도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내가 본래 없어서 붙을 자리가 없다고 하는데도 말입니다.

자기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그렇겠지만, 지금 거사님의 병도 물질로 끄달리는 마음을 마음의 근본을 알아가게 이끌어 주기 위해서 주인공 자리에서 이끌어 가는 나툼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세요. 병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붙여놓은 이름일 뿐입니다. 다만 그러한 증세가 일어나면 그것을 담담히 지켜보면서 과거에서부터 인연 지어서 내 몸 속에 있는 것들이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구나. 나를 이끌어온 당신이 형성시켜 놓았으니 당신이 해결할 수도 있지. 하고 모든 것을 자기의 근본 주인공에 맡겨놓고 들어가십시오. 일거수일투족을 행할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가져왔으니 그 자리에서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업보니 운명이니, 모든 인연 지어진 것을 녹이는 것도 당신밖에는 없다 하고 지극하게 관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알콜중독 빠져 고생

문 혼자 해결하기 힘들어서 질문 올립니다. 저희 외조부가 알콜중독과 중풍으로 돌아가신 후 저희 어머님도 알콜중독과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제 남동생도 술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한 후 보니, 장인어른도 큰 사기를 당하신 후, 술병으로 간장, 위장 등에 병이 생겨 비참하게 자살하셨습니다. 아내는 부자로 살다가 장인어른의 몰락에 큰 상처를 받고는 돈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하며, 무서울 정도로 술을 입에 대고 있으며, 극도로 비관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장모님을 비롯한 아내 쪽은 독실한 카톨릭 집안인데 늘 종교가 달라서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저는 주인공에 절실히 다 맡긴다고 하지만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도자로서 혼자 해결 못하고 이런 질문을 올려야 한다는 게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답 항상 말씀드리기를, 모든 건 내면 용광로에 맡겨 놔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됐다가 현실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자리에서 나온 것을 제자리에다 돌려놓으면 바로 과거에 입력된 게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입력된 그 자체가 팔자 운명대로 그대로 나온다면 십중팔구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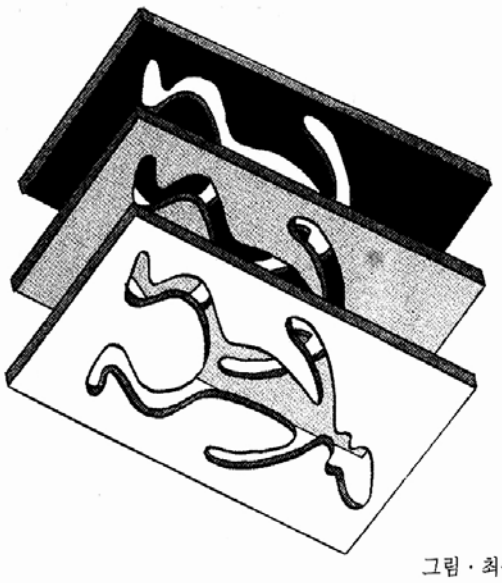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내가 공했는데 내가 없는데 병 · 업보 · 팔자 어디 붙을까

그러나 그것도 마음 장난입니다. 이제껏 살아온 관습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생활 자체를 마음의 용광로에다 되돌려 놓는다면 자동적으로 생산이 돼서 나가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인과의 유전성이라든가 업보성, 세균성 할 것 없이 말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거기에다 되돌려 놔야만이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앞서의 입력된 게 다 해결되기 때문에 현실에 생각하는 그대로 새롭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볼 때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모두가 어디서 잘못됐느냐 하고들 야단들이지만 그것은 바로 한 군데서, 즉 말하자면 가던 길에서 엎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일어설 수가 없다, 단 엎어졌으면 넘어진 그 땅을 짚고 일어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그런 뜻에서,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나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이것은 근본을 믿고 근본에 돌려 놓아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드러운 말과 행동으로 지극하게 주위의 분들을 이끌어 주세요. 그렇지 않고 강제로 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이 돼서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도록 주인공, 당신만이 나와 연관된 모든 이들이 근본을 믿고 자유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다. 하고 지극하게 마음으로 관(觀) 하세요. 그리고 시간을 내셔서, 법회도 참석하고 도반들과 공부에 대한 대화도 하면서 하신다면 더욱 쉽게 풀리겠죠. 그러니 그것도 자유예요. 그냥 한탄만 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내가 이 마음공부를 해서 나뿐만 아니라 주위의 분들까지 편하게 이끌 것이냐, 그래서 정말 인생의 진실한 면을 맛보고 갈 것인지 오직 나의 자유에 달려 있을 뿐이지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되기를 관하고 있는데…

문 가끔은 어떤 일들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잘되고 못되고가 없이 그냥 그렇게 관하고 있다보면, 마치 무언가 해야될 것을 하지 않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저의 관에 잘못이 있지 않은 지요. 그리고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 즉 사업과 가정의 안위 등등, 이러한 마음이 과연 바른 모습인가요?

답 나는 번뇌망상이 왜 이리 많을까 하는 생각도 놓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빨리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놓고, 공부가 왜 이렇게도 안되나 사생결단을 내야지 하는 생각도 놓고 편안히 자연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조바심을 낸다면, 그것은 마치 많은 다리를 가진 지네가 잘 가다가 문득 자기 다리를 보고는 아니, 내 다리가 이렇게도 많은데 어떻게 해서 서로 엉키지도 않고 잘 갈 수가 있었을까? 하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서로 다리가 엉켜서 갈 수가 없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믿고 놓고 가면 잘 가게 되는 것을 공연히 생각을 일으켜서 걱정을 하니까 오히려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된다 안된다 하는 생각도 다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마음공부를 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아니, 내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하늘이 무너져내려 죽는다 해도 죽으면 죽는 대로 살죠 .이러는 사람은 아주 잘 살게 되어서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살려고 바둥바둥대면서 나는 왜 다 맡겨 놓는데도 안되나? 부처님! 주인공! 제발 살려 주십시오!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해달라긴 누구더러 해달랍니까? 해달라면 벌써 둘이 되는 게 아닙니까? 이래가지고는 아무리 빌어본들 공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공에 놓았다면 놓았다는 생각마저 없이 놓고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면 안 되는데, 혹시 안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노심초사를 한다면 결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근본을 믿고 좀 지극하게 맡겨보세요. 어차피 죽을 것, 하루 빨리 죽으면 어떻고 하루 늦게 죽으면 좀 어떻습니까? 생명이 붙어 있는 날까지 운명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떳떳하게 좀 살다가 간다면 하루 빨리 죽은 것도 억울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뭘 그렇게 잘되기만을 바라겠습니까?

식구들이 각기 다른 종교 믿어

문 가족들이 각자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는데, 우리 집 식구들만 살 때는 별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들이 커서 다른 집 사람을 식구로 맞아들이니 갑자기 예민한 문제로 드러나 곤혹스럽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각기 다른 종교로 인해 생각이 다르게 나타날 때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봐야 할까요?

답 천주교면 어떻고 기독교면 어떻고 불교면 어떻습니까마는 천주교든 불교든 기독교든 타의에서 찾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처가 자신한테 있는 건데 고상을 걸어 놓고 빌고, 부처님 형상을 모셔 놓고 빌고, 십자가를 걸어 놓고 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모셔 놓은 것은 빈 껍데기, 내 모습과 같다고 생각을 해야 할 텐데 그걸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처는 반드시 자기한테 있다, 그게 생명처고 에너지가 되고 그게 과거 자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걸 믿지 않는 거죠, 모두.

자기한테 있는 걸 믿지 못하니까 모두 통신이 두절되죠. 자기 원소가 자기한테 있지 딴 사람한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모든 닥치는 일들이 있게 마련인데 그게 과거에서부터 내가 살아온 대로 입력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자동적인 컴퓨타에 입력이 되듯 입력이 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믿고 다시 맡기면 앞서의 입력이 없어지면서 새로이 입력이 들어가니까 지금 처해있는 힘든 상황들도 나아진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주처가 자기한테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을 그 자리에서 해결하도록 돌려놓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주처를 자기한테서 찾으라고 말해 주세요. 주님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있다고요. 주님이라고 그러지만, 주인공이라 그러는 것도 모두가 공했지 않습니까? 이 지구가 공해서 돌아가듯, 모든 것이 끊이지 않고 돌아가듯, 공했지 않습니까? 더불어 같이 공생(共生)으로 사는 건데 그렇게 고정을 시켜서 내 것과 남의 것을 나누고 내 생각과 남의 생각을 분리시켜서 배척하니까 맞지가 않는 겁니다.

또, 기도하는 건 타의에다 의지하고 기도를 하지만 관하는 거는 자의에 관하는 거죠. 관한다는 거는, 부처님이 삼천리 밖에 계신다 해도 여기에서 하는 거죠, 어디 법당이 따로 있고 예배당이 따로 있습니까? 부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안하게 사세요.

그냥 일을 하다가도 생각나서 관하면 행선이라 그러죠, 서서 다니다 관하면 입선이고요. 앉아서 관하면 좌선이구요. 그러니 생활에 선이 아닌 게 하나도 없죠. 모두들 공부한 사람들은 그래요. "도가 따로 있는 줄 알았더니 내 마음에 있더군요." 하구요. 그러니 이 마음법이 얼마나 편리하면서도 직속으로 들어가는 길인지 모릅니다. 항상 자기를 이끄는 주처가 자기 그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그 이름이야 뭐면 어떻겠습니니까. 그런 마음으로 편안하고 화목하게 가정을 이끄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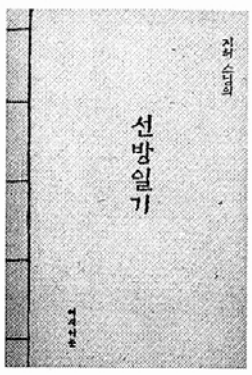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새로나온책

선방일기

선방에서의 수행 풍토는 물론이고,
당시의 시대상까지 접할 수 있는 값진 글!

이 『선방일기』는 1973년 봄 『신동아』의 논픽션 공모에 당선된 작품으로
'지허知虛' 라는 서울대 출신 스님의 선방에서의 일과가 솔직담백하게 담겨 있다.
일반인들로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선방에서의 수행 풍토는 물론이고, 당시의 시대상까지 접할 수 있는 값진 글들이다.
수행자로서의 고뇌와 의지가 곳곳에 스며 있는 이 글은,
새로이 발심하여 출가 수행자의 길에 들어선 이들이나 재가불자, 그리고 불교에서
새로운 세기의 대안을 찾고자 하는 많은 이들에게 수행의 거울이 되리라 생각한다.



지허 스님 지음
B6 136쪽
값 5,000원

"겉만 보고 입산했다가 실상을 알고보니 세상에서 느낀 절망보다 더 큰 절망이 절간에 도사리고 있음을 알게 된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그대로 머무느냐, 하산하느냐이다." 선방의 숨은 이면이 때론 잔잔하게 또 더러는 치열하게 그려진다. 북 디자인도 내용에 어울리게 단아하다. — 문화일보(2000. 2. 23.)

'금단의 영역'으로 알려진 선방에서의 일상을 다루고 있는 이 책은, 70년대 초의 선방 풍속도로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큰 변화없이 이어지고 있는 선방의 전통을 보여주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 강원일보(2000. 2. 23.)

서울대 출신의 필자가 73년 봄 월간지 『신동아』의 논픽션 부문에 응모해 당선된 글을 예쁜 장정의 포켓북으로 꾸몄다. 일반인들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선방에서의 수행 풍경은 물론 세상을 보는 지혜가 각 장마다 번뜩인다. — 동아일보(2000. 2. 26.)

지허 스님에 따르면 절간에는 피안도 열반도 없다. 정신과 육체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고통이 있을 뿐이다. 선객들은 깨달음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사이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화두에 매달린다. — 한국경제(2000. 2. 26.)

스님들의 수행 공간인 선방은 일반인에게 신비의 장소이다. 그 때문에 산문을 닫아 걸고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해가는 스님들의 모습이 때로 침소봉대돼 전해지곤 한다. 최근 선보인 이 책은 선승들의 선방생활을 진솔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경향신문(2000. 2. 29.)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듣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02)737-0695 팩스 : (02)737-0696

여시아문에서 펴내는 주머니 속 대장경

101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교리 · 입문)
'20C의 창조자' '환상 문학의 창시자' '사상의 디자이너'라 불리우는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그에게서 전해 듣는 붓다의 가르침, 그 핵심을 모았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알리시아 후라도 공저, 김홍근 편역/ B6 변형 242쪽/ 값 5,500원

102 법수로 배우는 불교 (교리 · 입문)
불교의 법수는 일반적으로 쓰는 세속의 숫자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경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숫자들…, 그 깨침의 묘리를 푼다.
이체열 지음/ B6 변형 196쪽/ 값 4,500원

201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생활불교)
궁극적인 깨달음을 노래하지만 그것보다 불교에 대한 마음가짐과 기초 수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티베트인들의 정신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이다.
초펠 스님 편역 / B6 변형 178쪽/ 값 4,000원

301 참선요지(參禪要旨) (선禪)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게 참선의 요지만을 담았다.
허운(虛雲) 화상 법어, 대성(大晟) 스님 옮김/ B6 변형 278쪽/ 값 5,500원

302 방편개시(方便開示) (선禪)
깨달음 그 자체보다는 궁극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허운(虛雲) 화상 법어, 대성(大晟) 스님 옮김/ B6 변형 330쪽/ 값 6,000원

303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선禪)
한글 세대를 위한 선(禪)불교 강의
한형조 지음 / B6 변형 334쪽/ 값 6,000원

401 허공의 딸꾹질 (문학)
조선 시대 선사 44인의 선시 모음집
이종찬 지음/ B6 변형 282쪽/ 값5,000원

501 불성이란 무엇인가 (문화 · 학술)
모든 중생에겐 불성(佛性)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성불할 수 있을까?
전치수 지음/ B6 변형 196쪽/ 값 4,500원

502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문화 · 학술)
황폐한 우리의 교육 현장에 던지는 붓다의 음성 '천상천하유아독존'
김종서 지음/ B6 변형 182쪽/ 값 4,500원

•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는 계속 출간됩니다 •



●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 (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4cm (1회 4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사찰 토굴 부지안내 세로 5cm × 가로 5cm (1회 5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건강기타

전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5)834-1115~6
016)849-3858
012)1166-3858

◈청학사 수양원◈
● 수양 · 기도 · 공부 · 참선
●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 月 숙식비 : 30만원
●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5)883-2935
055)883-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단체 불교수련대회 접수 받습니다.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 화엄경 (80권) - 1,500,000원
● 사 교 (7권) - 250,000원
● 법화경 (7권) - 180,000원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055) 932-7252 김창본
011) 545-7252 처 사

黃印七子餠茶, 七子鐵餠茶
六安散茶, 보이散茶,
육보차, 벽돌전차, 소타차,
고산오룡, 철관음
도매가 판매
"山中禪房 · 전통찻집 특별상담"
02)911-6798
017)406-6682
茶道里

기존 모든 구도 핵심 원융 진정한 塵俗
一如道生合一의 찬마꽃 피우는 방편꽃
단 일주일안에 精氣心神 관통
삶을 온전히 누리기
www.nowhere truth.com
(홈페이지를 읽는 것 만으로도 뚜껑이 열립니다)
016-206-1001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교악세사리 광 약 | 일 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0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男女철학원생모집
과 목 풍수, 사주, 작명, 궁합, 관상, 부적
과 정 초급반, 고급반, 개원반, 자격증반
강 사 원장직강(사주비전外 10여권 저술)
사주 · 감정 의뢰하실분(3만원입금후 전화요)
계좌번호 기업은행012-027395-01-017달마사
卍 달마사 포교원 달마스님
(051)328-5551 (051)312-4804
(02)999-5551 · 999-4804

구갑염주, 합장주 구갑은 장수와 행운을 뜻합니다.
· 108염주 150,000원 고급가공 케이스포함
· 매듭합장주 30,000(10mm)
서울관대처 김상원 (02)722-4435 (조계사 앞)
지방 - 전화를 주시면 물건을 보내드리고 대금은 후불로 받습니다. (구갑사)
02)444-2822
017)208-2822, 018)293-2823

영가천도
대한불교 조계종
성거사
천안시 목천면
(독립기념관 근처)
041) 567-6820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심한 피로 · 정력강화
◆간기능 획기적 개선
◆혈압, 혈당치 낮추고 장 · 변비개선
◆손발냉증 · 피부 고와져
◆감기에 강한 체질로
▶가격: 분말(230g) : ₩39,000
환 (250g) : ₩45,000
동양물산(주) 02)2236-0748

소원성취 / 특수작명 · 개 명 · 신생아 작명 · 상 호
- 운명이 확 바뀌는 개명(改名)비법 -
◆ 사업부진, 삼재예방, 부부불화, 교통사고 예방
◆ 시험합격, 결혼성혼, 금전문제, 매매성사
신년운세, 성명 감정 2만원. 전화로 예약하면
3일만에 집에서 받아 볼 수있습니다.
(053) 982-4976 · 011)813-3697 지장선원

수인작법 사주팔자
▶ 옛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의 내려온 비술
▶ 손하나만으로도 몇년전, 몇월, 몇일의 은세 점심 몇년후, 몇십년후 몇월, 몇일 몇시의 일도 예측할 수 있는 작법
▶ 경리를 바꿨어도 시원치 않는 분
▶ 은행확을 바꿨어도 시원치 않는 분
▶ 내림굿을 받았어도 점과가 시원치 않는 분
인연있는 분에게 전수합니다.
02)918-5554 / 017)317-1597

판매 합니다. (직접가공함)
≪ 혹단염주, 108주 : 6천원
≪ 합장주 (매듭) : 천 오백원
≪ 일천주 (케이스 포함) : 6만원
전남 나주시 다도면 덕림리 552번지
덕림산방 : 박 정후
연락처 : 061-337-4879
011-610-4879

공양주 보살님 부전스님 모십니다.
공양주 : 60만원
031)952-7905

급 백일지장 기도할 사찰이나 조용한 곳을 도와주실 분을 찾습니다.
(아름다운 국토보존의 급박한 문제인 매장의 개혁의 대서원을 세운 53세의 묘 지산입니다.)
053)616-0798

동반자 원함
신체 건강하고 마음이 넉넉한 자비여성으로 56세 술생 개띠생 여성을 원하며 중생에 길을 포교로써 남은 생애를 함께 할 동반자 원함. 현 55세 해생의 남자로써 신체 건강하고 포교원 운영중입니다.
054)751-8225

공양주 모십니다.
061)
337-3440

역학 수강생 모집
● 과목 : 사주, 육효, 신수, 작명, 관상
● 과정 : 정규반, 연구반, 자격증반, 창업반
● 시간 :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4시, 저녁 7시~9시 (월~금 주5일)
● 강사 : 엄윤문 원장 (명학비해 外 20여권 저술)
● 위치 :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하남빌딩5층 서울역 지하철 3번 출구
● 문의 : 02)752-9013
청운역리 학원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요지)
● 평수 : 55평 3층
법당, 스님방, 공양실, 거실, 주방 (모든시설 완비)
● 가액 : 월 1,000 50만
월 2,000 30만
● 시설비 : 1,700만원
051)581-8652
011)9790-1779

탈종공고
· 사 찰 명 : 계명정사 · 대표자(주지) : 김 창 식 (보현)
· 소 재 지 :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32-110
상기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와 종풍이 맞지 아니하므로 이에 탈종 신고합니다.
2001년 1월 3일
대한불교 법상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공고
· 사 찰 명 : 자 비 암 · 대표자(주지) : 김 이 심 (덕화)
· 소 재 지 : 전남 해남군 황산면 일신리 350
상기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와 종풍이 맞지 아니하므로 이에 탈종 신고합니다.
2001년 1월 3일
대한불교 법상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공고
· 사 찰 명 : 무 학 사 · 대표자(주지) : 이 석 희 (혜성)
·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412
상기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와 종풍이 맞지 아니하므로 이에 탈종 신고합니다.
2001년 1월 3일
대한불교 법상종 총무원장 법하

사찰안내(전세)
● 위 치 : 종로구 평창동 (현, 단독주택)
● 대 지 : 100평 ● 건 물 : 40평
● 과거 절로 사용한 적 있음
● 전세 보증금 1억 2천(절충가)
02)379-7139
011)459-2972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대문구 북가좌동 145-101호
● 평수 : 법당20평 방3칸 부엌
● 특징 : 시유지, 복지사업할 여건이 되어 있음
● 가액 : 전세 4천만원 월세 가능
031)868-0516
016)335-8257/011)335-4408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전광역시 보문산 옆
● 가액 : 전세 3천
시설비와 물품은 답사 후 절충
● 시설완비
1층 - 공양간 20평 방 1칸
2층 - 법당, 산신각, 방 2칸, 37평
011)430-3344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 부지 : 1200평
● 임법당 : 40평 ● 가액 : 2억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 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2)723-4082
광진불사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하남읍 남현리
● 부지 : 242평
● 건물 : 대웅전, 산신각 요사체 2채
● 가액 : 상담 후 결정
055)391-5369

포교원 안내
● 각종시설완비, 방2, 주방, 층 50평
●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 3동 대로 변
● 보증금 : 1,500 월 80만원
합 3,500만원 협의가
031)977-6117
011)405-3263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하단동
● 부지 : 대지 73평 법당 요사채
● 가액 : 답사 후 결정
● 특징 : 법당 뒷 산 실평 120평 지하철 역에서 5분거리
011)877-9009

사찰 안내(특별)
● 위치 : 서부 경남 내
● 대지 : 300여평 법당 1동 요사 2동 주지실 1동 종각 1동 부속건물 3동
기름보일러 욕실완비 사답 몇 마지기
● 가액 : 상담 후 결정
017)552-7350
055)746-735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여주 ● 위치 : 청주 ● 위치 : 청주
● 법당 : 22평 ● 법당 : 18평 ● 법당 : 11평
● 요사 : 35평 ● 삼성각 : 5평 ● 삼성각 : 2평
● 부지 : 220평 ● 요사 : 10평 ● 약사전 : 7평
● 가액 : 2억 5천 ● 부지 : 500평 ● 요사 : 25평 ● 부지 : 425평
● 가액 : 9천 5백 ● 가액 : 2억8천
※ 전국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사찰 양도 · 인도 할 분
○ 군위 우보 IC에서 10분거리
○ 대지 169평 토담집 3채
○ 양도가 3,500만원
※ 1년 사시면 반드시 팝터
- 마당 넓고 뒷山 명당지
마을 맨 끝집 휴양지, 기도터

○ 군위, 고로 인각사 부근
○ 대지 151평 밭 724평은 집앞 100M떨어져 있음
○ 암반, 계곡 물 좋고 공기 좋고 산세 좋은 곳
○ 황토집 2채 - 불때면 3일간 따듯
○ 양도가 3,900만원
사찰, 창건 지도 불사, 편의 제공 사찰정보 : 053) 982-6778 핸) 011-813-3679

사 찰 안 내
● 위 치 : 충북 괴산군 소재
● 부 지 : 1,700평
● 법 당 : 25평 (목조)
● 요 사 : 35평 (현대식)
※ 산세좋은 기도 포교도량 임
● 양도가 : 1억 5천
● 위 치 : 서울시 동작구 소재
● 대 지 : 25평
● 건 물 : 20평 (단층 주택)
※ 역사깊은 도심 포교도량 임
● 양도가 : 6천 5백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 국 불 사 02)561-7791/018)273-9390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안내
● 위치 : 전남 보성
● 부지 : 4500평
법당, 목조건물 29평, 요사 50평
◆문화재 있음
● 가격 : 4억 5천만원
011)678-7691

사찰 안내 (매매,전세)
● 위치 : 경북 소재(대구에서 40분거리)
● 평수 : 총 1000여평, 법당 : 30평
● 요사 : 60평(2동)/주차장 완비
● 가액 : 1억 5천만원
현재 법회중인 지장도량 입니다
011)9576-3936
018)503-9190

사찰 안내 및 전세
● 위치 : 경기 이천 (서울 30분거리)
● 평수 : 대웅전 26평, 지장 12평, 요사체 35평
● 대지 : 250평 ● 가액 : 4억 5천
● 전세 : 1억5천(전세후매입가능) 원금 분할 매입 가능
교통 시설 전망 시설 주위 개발 환경 공사비 안들었음
011-239-1173

사찰부지(급)안내
● 충남 금산 진산 (대전에서 20분거리)
● 준농림 9000평 (대지, 전, 답, 임야)
● 가액 : 3억 5천만원
● 상업적, 투기목적 매수 사양
011)826-6888

사찰(터) · 납골당안내
● 장소 : 원주시 문막면 비두리
● 평수 : 63,000평
● 가액 : 평당 4천원
좌청룡 우백호 큰 사찰터나 납골당 유력지. 산세좋고 물이 많이 흐르는 천연의 대지입니다.
011)286-2680

사찰(급)안내
● 소재 : 대구 시내 중심가 (2층 3층 각 48평)
● 2층 : 법당1,큰방 2,부엌,화장실,사워장
● 2층 : 보증금 6백 (월 40만원)
● 시설비 : 1천 9백만원
3층은 별도 협의 - 큰방2, 화장실, 사워장 넓은마당있음
※ 특 : 2층 보증금 없이 (1년선세 840) 가능
053)255-6628

토굴 안내
● 위치 : 전남 광양시 진월면 마룡리 117-8번지 구덕마을 이장집 뒷집
● 대지 : 140평 방3개 현대식 주방 보일러 사시 축사 천연 암반수 물
● 가액 : 2,700만원
019)545-2962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 강동구 명일역 부근
● 구조 : 3층건물 3층 30평 (법당, 방2개, 주방)
● 가액 : 보증금 1,500 월 50만원
● 시설비 : 300만원
02)481-4483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소재
● 부지 : 500평(종교부지)
● 법당 : 25평 ● 요사 : 40평
● 가액 : 9천만원
● 특징 : 도심 인근에 위치하고 있음 포교하기 적지이며 기도도량으로도 좋음
※ 전국사찰, 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53)964-0455
좋은 인연됩시다. 서울 02)326-1060
동진불사 대구 053)655-1062 · 1063
휴대폰 018-334-9021

토굴(급) 안내
● 위치 : 함양
● 대지 : 250평
● 인법당 : 황토방 1개
● 가액 : 6천 5백만원
055)962-3528

사찰 및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군포시
● 대지 : 120평 (25×10×8m) 코너
● 건평 : 120평
● 불기구 5천만 무상 제공 (포교원 최적)
● 융자 포함 매 5억 2천
시정상 급매
031)454-1133
011)386-6467

포교원 안내
● 위치 : 광명시 새마을 시장 내에 3층
● 평수 : 35평 10년 됐음
● 가액 : 5천만원 전세
02)2618-0767
011)753-0768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남해 소재
● 평수 : 약 천평, 법당, 요사 2동, 주차완비
● 가액 : 7천만원
055)854-5205
017)856-3617
약 천 사

포교원 (급) 안내 (합 600만원)
● 보증금 400만원 월세 50만원 시설비 200만원
● 위 치 : 서울 마포구 망원2동 474-15 (2층건물에 2층)
● 평 수 : 20평 방1,부엌1,법당1
(6호선 마포구청역5번 출구 100m)
02)332-3726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진구 전포동 송상현 동상옆 진경경찰서 입구
● 건평 130평 법당 70평 방 5개
● 가액 : 전세 1000만원 월 60만원
● 특징 : 시설 일체 완비 양도 시설비 답사 후 절충, 즉시 법회가능
055)326-0671
011)843-5672

주문전화 02-732-1522

클릭!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인터넷 불교용품 전문백화점 마하몰! 특선 상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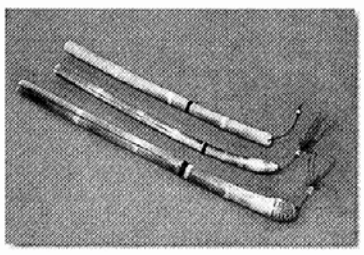
▌옥 염주



옥은 군자의 길에 비기며 회남자(淮南子)에는 천지의 정(精)이라고 하였다. 옥을 지니고 있으면 여러 질병을 예방해 준다고 하였다. 이미 알려진 사실로서 몸에 지니면 기를 발산하여 고혈압, 두통, 소화불량, 신경통 등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며 보석에 버금가는 대단한 아름다움을 겸비하고 있다.

- 백옥108염주 가격 : 40,000원
- 청옥108염주 가격 : 40,000원

▌죽 비



- 뿌리죽비(대) 30,000원
- 뿌리죽비(중) 25,000원
- 뿌리죽비(소) 20,000원
- 일반형(2개 1세트) 18,000원
- 보급형(2개 1세트) 12,000원
- 죽비세트 53,000원 (뿌리大, 뿌리小, 일반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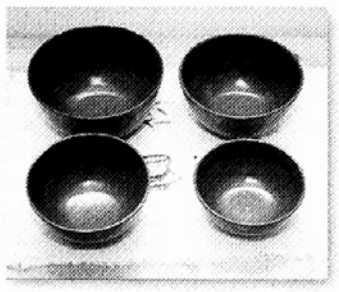
대나무 밑 부분을 쓰고 4마디 이상 들어가며(일반형 이상)타 제품보다 튼튼하다.
대나무 1 그루당 죽비 1개 제품만 생산

▌108 나한단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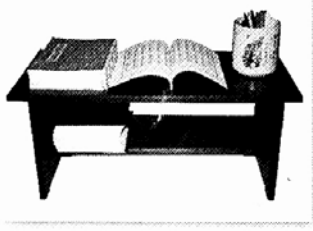
- 복숭아씨를 조각한 100% 수공예 작품
- 염주 한 알에 6분의 나한님이 조각되어 있음 (18알×6나한 = 108나한)
- 오래 소지할 수록 광택이 나며, 그 가치가 더해집니다.
- 고급케이스에 담겨 있어 선물용으로 더욱 좋습니다.
- 가격 : 20,000원

▌와 발 우



- 순수한 황토와 천연유약을 사용한 인체 및 환경친화적 발우
- 율장에 근거한 법다운 발우
- 1300C의 높은 온도에서 만들어진 강도 높은 옹기 발우
- 가격 : 4합 60,000원 (무게 2.7Kg)
  2합 30,000원 (무게 1Kg)

▌경 상



경전 공부하는 모습도 옛 전통을 이어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 전통經床의 실용화
- 재질 : ASH (느름나무) 완전원목
- 가격 : 85,000원
- 규격 : 72Cm (가로)×34Cm (세로)×32Cm (높이)

▌참선명상 방석



- 국내 최초 인체공학적 설계 참선, 명상, 단전호흡 수련방석
- 엉덩이 부분을 높게 하는 것은 인체의 균형과 장시간 앉아도 척추와 허리에 역학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함
- 일 반 30,000원
- 숯기반 35,000원
- 황토반 35,000원

- 실용신안 19998-025009
- 의장등록 제 14387 호

▌향 선물세트



보원향 선물세트 (보원향+만복침향+한방향+향꽂이)	60,000원
백화향 선물세트 (백화향+신자단향+선연목향+향꽂이)	50,000원
한방향 선물세트 (향꽂+한방향+향꽂이)	25,000원

▌영인스님 CD염불 시리즈 20



1. 예불천수경
2. 석가모니불 정근
3. 관세음보살 정근
4. 화엄신중 정근
5. 약사여래불 정근
6. 천수경/아미타경
7. 장엄염불
8. 금강경
9. 장고가락 염불
10. 지장정근
11. 천도타령 염불
12. 회심곡
13. 부모은중경
14. 팔양경
15. 우리말 천수경
16. 지장경(상)
17. 지장경(중)
18. 지장경(하)
19. 신묘장구대다라니
20. 천도제 의식

가격 : 장당 10,000원
다량주문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아로마 도자기 램프



단순히 장식품이 아닌, 방향제 와 램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사용방법 : 적당량의 물을 램프 윗부분의 홈에 담고 아로마 오일을 3~4방울 넣은 후 빛의 강도를 터치버튼을 이용하여 조절하시면 됩니다.
- 전압 : 220V / 60W · 규격 : 10Cm × 16Cm × 13Cm · 색상 : 청자, 골드
- 빛의조절 : 4단계 터치방식 · 가격 : 90,000원 (※ 아로마오일 10ml 포함)

전통 개량 한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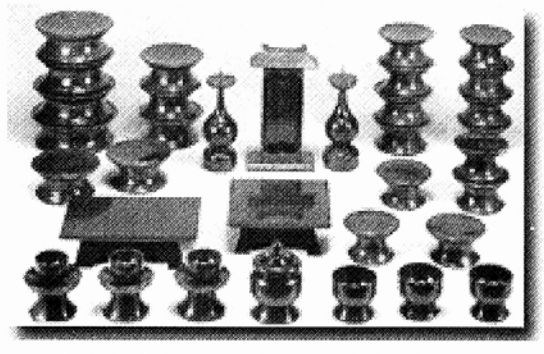


- 남성용
- 소 재 : 폴리
- 색 상 : 진회색 검곤색 붉은밤색
- 사이즈 : M / L / XL
- 가 격 : 49,000원

개량한복의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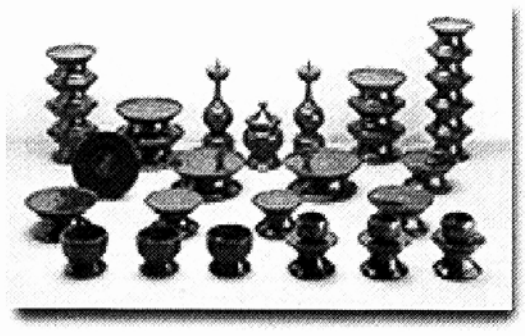
1. 입기 편하고 움직이기 편해 활동하기 좋은 옷
2. 오래 입어도 질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연속에서 입을 때 더욱 멋이 나는 옷
3. 우리 민족 고유의 멋이 길들어 있어 입는 사람의 품위를 살려주는 옷

남원 동천목 제기



■ 재 질 : 지리산오리목 ■ 가 격 : 172,000원
■ 구 성 : 촛대2, 탕기3, 술잔3, 술잔받침대3, 나물그릇3, 편기2, 적기2, 큰접시4, 중간접시5, 작은접시6, 지방틀, 어틀, 편틀, 향로 + 제례서식1권

남원 동천목(孝) 제기



■ 재 질 : 지리산오리목 ■ 가 격 : 203,000원
■ 구 성 : 위와 상동

성묘용이동식(휴대용)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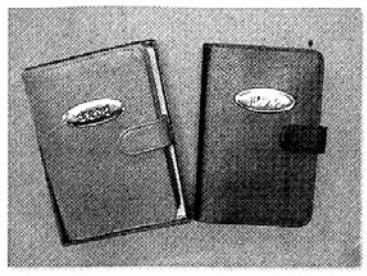
■ 구성 : 중간접시3, 작은접시3, 탕기2, 술잔2, 술잔받침대2 + 성묘용제기함 + 휴대용가방
■ 재질 : 지리산 오리목
■ 가격 : 88,000원

제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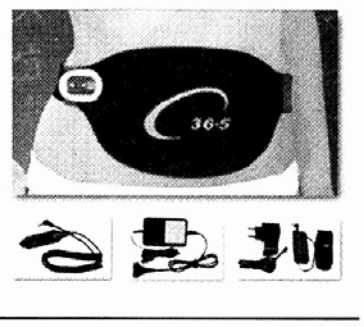
■ 규격 : 58Cm × 42Cm × 48Cm
■ 가격 : 75,000원

▌신행수첩



- 지갑기능도 겸해 휴대가 간편
- 예불, 헌공, 법회, 의례, 찬불가까지
- 신행생활과 성지 참배기를 요약기록
- 색상 : 회색,검정
- 가격 : 25,000원

▌옥(玉) 건강벨트



- 내용물 건강벨트, 온도조절기, 어댑터, 시가잭 충전기/밧데리 (휴대용 구입시)
- 가격 : 가정용 105,000원 휴대용 180,000원

▌연꽃 불자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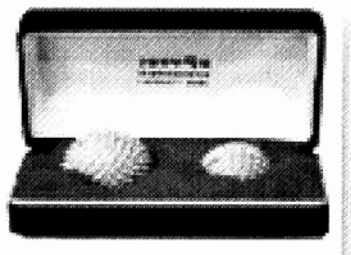


특별사은품 (달마시계 + 수암옥108염주)



불자들만을 위한 연꽃 불자시계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튼튼한 시계를 원하는
불자들에게 안성 맞춤인 시계
- 남성용, 여성용 각각 : 11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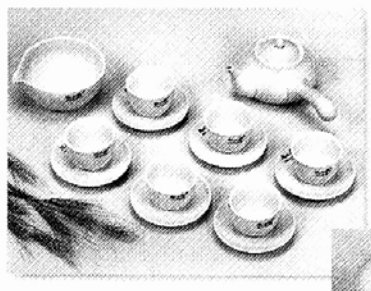
▌만다라 옥(玉)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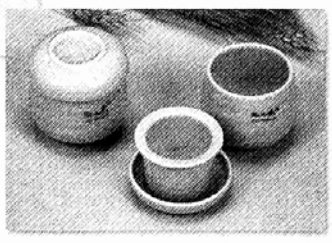
양손에 쥐고 움직여 주면 손바닥에 경혈을 자극하여 혈액순환이 증진되고 고혈압,중풍,치매 등 고질적인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 가격 : 30,000원

▌옥산가® 춘천옥® 다기 상품

각종 질병치료에 쓰이던 중국의 신강성 연옥은 수백년전에 생산이 끊어졌으며 오늘날 여러 질병에 건강증진작용하는 한국춘천연옥(韓國春川軟玉)이 세계 유일한 제일 좋은 연옥이 되었다 .



- 옥(玉) 다기세트
  구성 : 다관(1p), 숙우(1p), 찻잔(6p), 찻잔받침(6p)
  가격 : 330,000원



- 옥(玉) 개인다기
  구성 : 찻잔(2p), 거름기(2p) 찻잔받침(2p)
  가격 : 70,000원

▌홍화 선물세트



- 홍화씨 - 500g (1봉지) 가격 : 25,000원
- 홍화분말 세트 - 200g×3병 가격 : 90,000원
- 홍화정 세트 - 200g×3병 가격 : 120,000원
- 홍화엑기스 세트 - 80ml×60포 가격 : 128,000원

▌향적원 선물세트



- 1호 - 용량 : 고추장, 더덕장아찌 (각 1kg) 가격 : 42,000원
- 2호 - 용량 : 오이, 감, 무우장아찌 (각 500g) 가격 : 20,000원
- 3호 - 용량 : 된장, 고추장, 더덕, 마늘쫑, 무우장아찌 (각 500g)
- 가격 : 39,000원

사암련 올계획 '눈에 띄네'

구미사암련 신도교육관 건립
부산불교련 대규모 문화축제
수원불교련 생태방생 운동
제주불교련 한라산 지키기



◇구미불교사암연합회가 오는 3월 문을 여는 첫 신도전문교육관인 구미불교문화교육원 전경.

문화관광부 선정 '지역문화의 해' 및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지역 사암연합회가 다양한 문화 · 포교 · 환경 · 복지 불사를 준비하고 있어 지역불교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구미불교사암연합회가 최초의 재가자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비롯 수원 및 마창불교연합회가 자비행을 강화하고, 안동 · 무안불교사암연합회가 지역축제에 적극 참여키로 하는 등 각기 특색있는 지역포교를 다짐하고 있다. 특히 익산과 제주불교연합회는 미륵사지와 한라산 지키기 등 문화재 · 환경지킴이를 자임하고 나서는 등 지역사회에서 불교의 사회적 역할과 위상도 높아질 전망이다.

처음으로 전문 신도교육원을 개설하는 구미불교사암연합회(회장 정우)는 오는 3월 구미시 송정동에 건평 100평 규모의 구미불교문화교육원을 설립, 불교교양대학을 개설해 신도 입문교육, 기본교육, 지도자 교육 등을 통한 지역포교에 나선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성오)는 오는 4월 봉축문화행사를 비롯 10월 12일 사명대사 추모법회와 10월 중순 팔관회 등을 대규모 불교문화축제로 봉행한다. 무안불교사암연합회(회장 경훈)는 무안연꽃축제가 2001년 문화관광부 지정축제의 하나로 선정됨에 따라 행사기간의 법요식과 불교문화예술제 등을 알찬 문화상품으로 꾸밀 예정이다. 안동사암연합회(주지 정우) 역시 정부 지정축제인 안동국제페스티벌 문화행사 가운데 범패공연과 유등제를 지역불교 활성화의 기회로 만들 방침이다.

자비행 및 지역연대 활동에 주력하는 곳은 마산 · 창원과 수원지역이다.

마창불교연합회(회장 지태)는 10일 오후3시 창원 경남여성회관에서 제11회 저소득가정 위안법회 봉행(성금 2000만원 전달)을 시작으로 제2회 자비의 탁발행사, 불우청소년 및 난치병 환자 돕기 연중캠페인 등 보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달중 불교환경단체를 창립, 환경단체들과의 연대활동도 본격화할 계획.

수원불교연합회(회장 성관)는 우리 꽃 심기, 국태민안 연합방생법회 등을 통한 생태방생운동을 확산시키고, 환경단체와 연대해 '아름다운 수원 만들기' '연꽃심기 운동'을 본격화한다. 경로잔치 및 소년소녀가장 돕기를 연례행사로 추진하는 등 자비행도 강화한다.

제주 및 익산사암연합회는 환경 및 문화재 지키기에 나선다.

제주불교총연합회(회장 증원)는 한라산 케이블카 반대운동을 벌이는 동시에 한국불교의 초전법륜지로 알려진 한라산 영실 존자암지에 대한 복원 및 보존운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익산사암연합회(회장 지광)는 익산 미륵사지석탑 앞 골프장 및 아파트건설 반대운동을 통해 지역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 이달 중으로 서울 강남불교사원연합회가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찬불가경연대회, 다도 등 연합문화행사를 갖고 관내 복지시설과 불우청소년, 직장직능단체 후원 등의 사업을 추진키로 하는 등 그동안 침체되거나 전무했던 지역의 사암연합회 활동도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수원불교연합회 회장 성관스님은 "정부가 지역의 문화적 전통을 새롭게 조명해 재창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만큼 사암연합회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 김두식 기자
(jgkim@buddhapia.com)

2월 9일 '화엄무차광장'

환경 · 생명 대안문명 토론
인드라망공동체 매달 개최

스님과 재가자들이 함께 모여서 환경과 생명 등 대안문명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화엄무차광장'이 열린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스님)는 화엄무차광장기획단(단장 정해숙 前전교조위원장)을 꾸려 내달 9일 오후7시 조계사 설법전에서 '일상 속의 깨달음'을 주제로 첫 번째 화엄무차광장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매달 한번씩 열린 포럼을 갖기로 했다.

사부대중이 머리를 맞대고 생태와 수행, 생명공동체 등 사회 · 문화적인 사안들에 대해 불교적인 해법을 제시하게 될 이 포럼은 나이 계층 지위 승속을 떠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현대판 무차대회'의 성격을 갖는다.

정해숙 기획단장과 한국빠알리성전협회 대표 전재성박사 등이 참여한 화엄광장기획팀은 수행과 삶, 지역공동체, 대안문화, 환경과 생명 등 4개 분야로 나눠 '대안교육의 현실', '계율정신과 사회윤리', '업사상과 유전자조작'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연구주제로 채택할 방침이다.

이정호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사무처장은 "화엄무차광장은 출 · 재가의 차별을 떠나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불교적 해법을 함께 도출한다는 점에서 불교NGO활동의 이념적 준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조계사 심벌제작

'卍' 자 · 대웅전 기와 형상화
"열린사찰 이미지 심겠다"



조계사(주지 지홍)가 대내외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사찰을 상징하는 심벌과 국 · 영문 로고를 제작했다. 심벌과 로고는 지난 1일부터 사보를 비롯한 각종 홍보물 및 인쇄물, 행정용품, 현수막, 불교용품점 포장봉투 등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심벌은 불교의 상징인 '만(卍)'자를 모티브로 하고 장방형의 조계사 대웅전 기와 이미지를 곡선으로 변형시켜 혼합했다. 심벌 왼쪽 상단의 회색부분은 모든 형태의 기본이 되는 점을 형상화한 것이다. 색상은 금색 선에 녹색 · 적색 · 청색 점, 또는 검은 선에 회색 점을 사용한다.

심벌 아래 표기된 서울, 만남, 미래는 조계사가 공간적으로 서울에 위치하고 불교를 대표하는 사찰이자, 열린 시민의 공간으로서, 한국불교의 미래를 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국문 로고는 월인천강지곡, 석보상절, 용비어천가의 글자체를 기본으로 재구성해 현대적인 멋과 한국적인 선의 미를 조화시켜 표현했다. 심벌 제작은 '안상수체'로 유명한 디자인 전문업체 안그라픽스가 맡았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기획실장 해임" 촉구

재가연대, 정대스님에 공문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는 구랍 29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 앞으로 지난 11월 임명된 총무원 기획실장 성혜스님의 해임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재가연대는 '해임 촉구 이유서'를 통해 "상습도박으로 인해 국법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승려의 임명은 조계종 종무원법 제6조 임용결격사유 중 제9호 '국법에 의하여 파렴치범으로 처벌받은 자'를 임명한 것에 해당되며, 과거 중앙승가대학 사무처장 재임 중 중앙승가대 학사 이전을 위한 흥천사 토지처분금을 장기간 입금치 않는 등 종단 정재에 관한 불미스런 일로 교육원 및 중앙종회에서 공개적으로 거론된 것은 기획실장의 직무를 맡기에 적절치 않은 인사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재가연대는 기획실장 해임 촉구공문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을 경우, 전국 출 · 재가 지도자 3천여명 앞으로 사실을 알리는 통신문을 보내고 재가지도자 연대성명을 통해 릴레이 피켓시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백창기 조계종중앙신도회 회장을 비롯한 9개 불교단체 대표자들은 구랍 29일 조계사 산중다원에서 만나 조계종 기획실장 임명문제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참석자는 정인악 조계종 서울지역신도회 회장, 이준 한국교수불자연합회 회장, 임완슥 전 국교사불자연합회 회장, 김동혼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운영위원장, 유재근 연심회 회장, 김희욱 삼보법회 기획이사, 고영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지도위원장 등이다.

김재경 기자

종교다른 청춘남녀 10쌍 만남

'종교팅'을 들어 보셨나요?

기독교 여성과 불교남성 각각 10명이 13일 한자리에서 만난다. 상대 종교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마음을 열어 결혼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이번 만남을 주선한 비에나래 측은 지난해 10월 이후 가입자를 대상으로 결혼 희망상대 요건에 대해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종교를 우선시하고 있어 이같은 사회적 현상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고 한다.

이들은 강남의 한 사회복지 단체를 방문, 봉사활동을 통해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 자유대화시간, 미팅이벤트를 가질 예정.

김두식 기자

해인사 영가천도 대법회

해인사(주지 세민)는 9일부터 1,029일간 대적광전에서 '호국영령과 일체 선망부모, 유주 · 무주고혼 등 제위를 위한 영가천도 대법회'를 봉행한다.

오는 2003년 11월3일 회향시까지 1029일동안 열리는 이번 대법회에는 21번의 49재동안 방장 법전(원로의회 의장)스님 등 21명 고승의 법문이 있을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좋은벗들 4기 통일마당

좋은벗들(이사장 법륜스님)은 3월 30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30분 서울 서초동 정토회관에서 '통일의 새 지평을 열며'란 주제로 제4기 통일마당을 연다. '통일미래를 준비하는 143연속 대화마당'의 네 번째 순서인 이번 강연회는 13차례의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02587-8755

김재경 기자

불자 88% "화장 원한다"

'붓다뉴스' 302명 설문

최근 사회적으로 화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0명의 불자 중 9명이 화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일간 붓다뉴스(www.buddhanews.com)가 지난해 11~12월 두달간 실시한 사후장례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화장을 원한다'는 불자가 전체 응답자 302명 가운데 269명으로 88%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50%는 화장 후 산골을, 38%는 납골당 안치를 원했으며, 유교식 매장은 5%, 매장 후 화장 2%로 매장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낮았다.

강지연 기자

천태종 올예산 28억여원

천태종은 12월 7일 총본산 구인사에서 제19차 재단법인 이사회를 열고 2001년도 예산 28억 5천6백67만원을 심의 확정했다. 또 새 해 사업으로 구인사 관문사 삼광사 등에 속한 포교비를 늘이고 국제불교문화교류, 금강불교대학 운영, 사회복지부분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경숙 기자

어르신돕기 ARS 전화

서울 삼천사(주지 성운)와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이 지난해말 무의탁 어르신을 돕기 위한 ARS 성금모금 전화를 개설했다. ARS 전화번호는 02-7000-747로, 한 통에 2000원의 후원금이 적립된다. 적립된 성금은 어른신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쓰인다.

한명우 기자

도와주세요

백혈병 앓는 연주에 희망을



7살의 장연주 어린이가 서울대 병원에 입원한 것은 지난해 10월. 급성림프구성백혈병으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야위어가면서 명랑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제주도에서 치료차 올라온 연주양은 지금은 경기도 고양의 한 친척집에서 기거하며 어머니 임인자씨(40)와 함께 약물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다닌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아버지 혼자 짓는 조그만 밭농사로는 엄청난 치료비를 마련할 길이 없다. 그나마 밭마저도 은행 담보로 잡혀있어 한달 은행이자를 갚기에도 벅찬 형편.

제주 한마음선원 신도인 연주양 부모는 매일매일을 "연주 병이 하루빨리 낳아 제주도에서 친구들과 뛰놀 수 있게 해달라"며 안타까운 가슴만 쓸어 내리고 있다.

어린 나이에 몹쓸병으로 투병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견디기 힘든 일. '만약 내 아이가 이토록 아프다면 …' 연주의 생명을 살릴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

도움주실 분은 (02)734-8050(생명나눔실천회)으로 연락하거나, 후원계좌(농협 053-01-243778 예금주 생명나눔)를 이용하면 된다.

한명우 기자

부처님의 가르침과 큰 스님들의 말씀을 21세기 첨단의식공학 기법으로 새롭게 만나보십시오. 9일간의 자기 성찰 여행이 당신 안에 있는 또 다른 당신을 일깨워줄 것입니다.
한벗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동시통역사 손인국 · 아바타 마스터/임상심리 전문가 김정원
연락을 주시는 분께는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 1동 1277
전화 : 02) 3392-0464 / 핸드폰 : 016) 271-2096

불 대원사 천일기도 만등불사 대법회 행
불우이웃돕기 및 장학기금 마련
귀의 삼보하옵고,
대한불교조계종 대원사에서는 불우이웃과 장학기금마련을 위한 「천일기도 만등불사 대법회」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수희 동참하시어 모든 증생에게 회향하는 인연을 지어 그 공덕으로 각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 하시길 합장 발원하옵니다.
초청법사 : 법산 큰스님
동국대학교 정각원 원장 · 동대학 교수
입재일시 : 양력 2001년 1월 9일 (오전 10시)
음력 2000년 12월 15일
회향일시 : 양력 2003년 10월 5일 (오전 10시)
음력 2003년 9월 10일

법산 큰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기도도량 대원사
신도회장 문위윤 정토회장 김동영 신도일동
TEL . 051-891-7255 / 891-1051 FAX . 051-893-783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 3동 산 40번지 가야공원 내 대원사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관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관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관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4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는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백두대간 속으로 〈27〉

혼탁한 물이라 할지라도 얼음으로 바뀌면, 그 피부만큼은 하얗게 빛나며 물의 본성을 되살려 낸다. 겨울 찬 바람이, 순수한 물알갱이만을 들어올리는 까닭이다.

혼하들 겨울은 추워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렇지만 그 속내는 여럿이리라. 외투나 난로 같은 것들이 잘 팔려서 돈이 잘 돌기를 바라는 셈속도 있겠고, 냉랭한 공기에 온몸을 내맡기고 느슨해진 마음을 다잡고자 하는 생각도 있을 것이다.

더러는, 텅 빈 들녘의 '아무 근심 없음'에 마음을 포갰다가, 어느 볕 좋은 봄날 아침, '아, 참 잘 잤다' 하고 기기개를 켤 수 있을 때까지 긴 겨울잠에 빠지고 싶기도 할테고.

하지만 오늘의 우리는 온전히 겨울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 네모난 공간에 스스로를 유폐시킨 채 달력 장이나 찢으며 계절을 넘기는 것이다.

좀더 벗어야겠다. 땀구멍으로 솟아나는 온기가 얼음의 결정처럼 빛날 수 있도록. 한겨울을 따뜻한 방안에서 자낸 동백은 봄이 와도 꽃을 피울 수 없는 법이다.

백두의 정기품은 겨울 함백의 장대함

함백산→매봉산→피재



◇매봉산에서 바라본 함백산. 굵은 선으로 흘러내리는 산주름과 장대한 형세는 백두대간의 기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중함백 서쪽 계곡엔 적멸보궁 정암사

고한읍 카지노 열풍 박탈감만 안기고

사철 그 모습대로 좋지 않은 산이 있을까만, 함백(1572.9m)이야말로 겨울에 비로소 그 이름에 값한다. 몸무게를 쌓아올린 듯한 바위로 이루어진 정상은 어차피 사철 변함없는 모습이지만, 사방에 거칠 것 없이 솟아오른 장대한 모습은 겨울에 더 선명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만약 〈산경표〉의 태백산 바로 위에 적힌 '대백산(大白山)'이 함백산을 가리키는 게 맞다면, 그야말로 '크고 밝은 산'이라는 뜻에 딱 어울리는 형국이다. 남으로 길게 누운 태백산과 북으로 매봉, 두타 청옥으로 이어지는 힘찬 기운이 그대로 전해온다. 백두대간이 내륙으로 몸을 틀면서 불끈 힘을 준 근육이 바로 함백산임이 틀림없다.

함백산 정상에서 미끄러지듯 능선을 타고 내리면 철조망으로 둘러쳐진 주목 군락을 끼고 중함백(1506m)으로 오르는 길이 나타난다. 함백산 자락이 맞나 싶을 정도로 평탄한 길이 한참 계속되다 봄쑥 솟으면 중함백이다. 중함백에서 은대봉(1142.3m, 상함백) 오르는 길도 사정은 비슷한데, 군데군데 때깔 고운 자작나무들이 '나 여기 있소' 하며 눈길을 끈다. 과연 '자작 이라는 호칭을 얻을 법한 자태다. 그러나 마냥 자작과 길동무할 수는 없다. 상함백 또한 약속이나 한듯이 갑자기 시야를 압도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태백산 정암사'로 부르는 정암사도 실제로는 중함백 서쪽 계곡의 끝자락이 고한읍에서 만항재로 오르는 414번 지방도와 만나는 곳에 있다. 〈삼국유사〉의 탑상편에 전하는 창건 내력 한 토막을 보자.

"자장법사는 처음에 오대산에 이르러 문수보살의 진신을 보고 산 기슭에 띠집을 짓고 살았다. 이레 동안이나 보이지 않더니 묘범산(妙梵山)으로 가서 정암사를 세웠다."

여기서 우리는 함백산의 또다른 이름을 발견한다. 묘범산. 수미산을 일컫는 것으로 짐작하기에 어렵지 않은 이름이다.

우리 나라 5대 적멸보궁의 하나인 정암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셨다는 내력을 지닌 수마노탑(보물 제410호)을 등에 지고 오늘도 여여부동한 자세로 부처의 혜명을 잇고 있다.

은대봉에서 급하게 허리를 낮추는 백두대간은 맞은편 봉우리인 금대봉을 오르기 전에 싸리재(1268m)라는 고개 하나를 열어 준다. 길이 산을 넘으니 고개는 분명 고개이지만, 높이로만 본다면 웬만한 산을 훌쩍 넘는다. 고한과 태백을 연결하는 38번 국도 위의 고개로서, 백두대간을 넘는 포장길로는 으뜸가는 높이를 자랑했으나 요즘은 아래로 굴이 흘리는 바람에 인적이 뜸하다.

싸리재는 달리 '두문동재'라고도 불린다. 고개 서쪽의 두문동에서 따온 이름이다. 석탄 산업의 쇠락을 증명이라도 하듯 주인 없는 집들이 대부분인 이 동네는, 아주 오랜 전부터 가슴저린 역사를 속앓이 하면서 세월의 켜를 쌓아왔다. 이른바 '두문불출'의 내력이 바로 그것이다.

본디 두문동은 북녘 땅 개풍군 광덕산 서쪽 골짜기의 옛 지명으로, 두문동 칠십이현으로 불리는 임선미, 성사제, 조의생 등 72명의 고려 유신들이 조선에 반대하여 벼슬을 버리고 은거한 곳이다. 또 다른 얘기로는 72명의 문신은 서두문동으로 숨어 들었고, 48명의 무신은 동두문 동으로 몸을 감췄는데, 이들 모두가 조선 태조의 갖은 회유에도 불구하고 문밖을 나가지 않았다 한다.

이로써 '두문불출'이라는 말이 생겨났다는 것인데, 이야기는 이쯤에서 끝나지 않고 참극으로 이어진다. 인내의 한계에 다다른 태조는 끝내 이곳에 불을 질렀고 가까스로 살아난 몇몇이 고한 땅까지 흘러들었다는 얘기다. 이들 또한 '두문불출'했음은 물론이다.

한데 요즘들어 고한읍에 붐고 있는 '카지노'의 열풍은,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현지인에게는 상대적 박탈감만 안기고 돈 잃고 패가망신한 사람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다. 21세기형 두문동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지난 얘기는 여기서 접고, 다시 대간 길을 잇자. 싸리재에서 백두대간은 금대봉(1418.1m)을 오른다. 금대산으로도 불리는 이곳 북쪽 계곡은 한강 발원지로 확인된 검룡소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근래의 계측 결과 이곳에서 한강 하구까지의 직선거리는 497.5km로 확인되었다.

금대봉에서 한두 시간 거리인 비단봉을 지나니 날이 저문다. 온통 고랭지 채소밭인 기슭을 한 시간 가까이 헤맨 끝에 매봉산(1303.1m)에 오른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멀리 동해 바다의 고깃배들이 환한 불빛으로 인사를 건낸다.

이곳에서부터 백두대간은, 저기 부산의 몰운대에 이르는 —그동안 우리가 태백산맥으로 잘못 불러온— 낙동정맥을 가지치고는 오른쪽으로 동해를 끼고 곧장 북쪽으로 백두산을 향해 줄달음칠 것이다.

글=윤체학 기자
사진=손재식(사진작가)



◇상서로운 기운이 감도는 엷은 구름으로 덮인 태백시. 매봉산에서 본 모습이다. 이 산에서는 동해까지도 조망이 가능하다.

불자와 함께 네트워크 불교세상

한눈에 불교가 보인다.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세계로 열린 불교정보의 산실, 현대인을 위한 디지털 법당.
도서관에서 책을 펼치 듯 인터넷에서 가벼운 클릭으로
정보여행을 떠나자!
아름답고 넉넉한 부처님 세상이 있는 곳으로...

오늘의 불교뉴스 오늘 읽고 본다.
일간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를 만나는 일주문 붓다뉴스를 클릭하는 순간!
따끈 따근한 불교뉴스에서 신행정보, 생활상담까지
불교의 모든 것을 그날 그날 접하게 됩니다.

무선인터넷 불교정보서비스
■ 불교정보 접속방법 안내
011 SK Telecom
6. 여성/문화 ⇨ 9. 종교 ⇨ 불교정보
016 한통프리텔
정보여행 ⇨ 생활문화 ⇨ 건강 ⇨ 불교정보
019 LG Telecom
5. 인터넷채널 ⇨ 7. 종교 ⇨ 불교정보
017 신세기통신
InfoTouch ⇨ 종교 ⇨ 불교정보
018 한통엠닷컴
정보여행 ⇨ 생활문화 ⇨ 건강 ⇨ 불교정보

맛 최고, 멋 최고 기분 최고 쇼핑을 즐기는 곳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집 근처의 슈퍼마켓? 유명백화점? 거기에는 없습니다.
불교용품을 한곳에서 만날 수있는 불교쇼핑 전시장!
주문도 배달도 안방에서..
문화쇼핑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번으로 책주문이 가능합니다.
여시아문 닷컴 www.yosiamun.com
2만여 불교서적이 검색 클릭 한번으로 뚝딱!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여시아문이 주문에서
배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책임집니다.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02) 737-0695

산사의 불교가 내손안으로!
이제 오대암에서도 법문을 듣고
불교문화를 감상하며 스님을 만나거나
신도간의 커뮤니티를 즐길 수 있다.

불교정보 서비스는 총 7개의 주제속에
정리된 30여 메뉴를 통해 사찰정보,
불교인물 검색등 D/B검색과
매일매일의 불교뉴스, 공연, 전시,
법회안내 등을 검색할 수있다.